금주법구
조그만 이익에 날뛰는
중생의 어리석음은 섬이 없네.
마치 원숭이가 홍에 겨워
제 배를 두들기듯.
-대보적경-

# 현대불교

봉생하늘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숭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8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329 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군법당으로 피어난 불심

군 포교의 경우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 이유로 종단의 군 포교에 대한 정책 부족 및 구조적 지원 체계 미흡, 법당 수 부족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모두는 따지고 보면 종단과 불자들의 군 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5월 한 군법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입대 당시 33%였던 군 불자 수가 군 생활을 거치면서 28.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법당이 없는 부대의 불자인구가 법당이 있는 부대의 불자인구와 비교해 최대 30%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심 여하에 따라 군 포교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 봉은사 불자들이 원력을 세워 경기도 양주 25사단 포병부대에 새 법당 보타사를 건립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봉은사 신도회 구역법회인 강남을구(대표 정일심행)의 신도들은 8년 전 인연을 맺고 유대를 다져온 이곳 장병들이 좁고 허름한 법당에서 어렵게 신행생활 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어 뜻을 모았다고 했다.

지난해 부대로부터 법당건립 허가가 나자 강남을구 신도들은 김치와 옷 등을 팔아 법당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도회에서도 지난해와 올 초파일에 기금마련 연등달기 행사로 돕고 나섰고, 봉은사도 사찰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70여 평의 새 법당이 지어졌고, 3일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과 신도회, 강남을구 회원들과 군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게 됐다.

30명도 채 들어서기 힘든데다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떨어가며 법회를 보아야 했던 불자 장병들의 서러움은 이제 난방시설은 물론 에어컨과 노래방까지 갖춘 새 법당에서 말끔히 씻을 수 있게 됐다. 보타사는 최근 일반 군장병들의 모임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 앞으로 포교의 요지가 될 전망이다.

봉은사 신도들의 군 포교에 대한 열의와 애착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99년에는 용인 특수전학교 법당 호국사를 건립했고, 올해에는 가평의 제3야전수송교육단 법당 안행사를 개보수하고 7월14일 현판식을 갖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화천 15사단, 28사단 태풍부대, 의정부에 있는 군법당 천보사 등은 각 지역법회와 신도회가 결연을 맺고 지원을 해오고 있다.

매달 음식과 단주를 들고 위문을 다녔던 봉은사 불자들. 그들의 원력과 정성에서 군 불자들의 신심이 쑥쑥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한명우(취재 1부 기자)

### 장 군 죽 비

◇달라이 라마 2003년 한국 방문 희망. 그때 또 못 올지라도 실망할 일은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불자에겐 이미 국경이 없으므로. (2면)

◇"때리는 뺨에 맞는 손." 피해와 가해의 분별을 넘어 21일간의 단식참회정진으로 해인사와의 갈등을 종식시킨 실상사 스님들. (3면)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댐 건설 NO, 절약 YES. 아껴쓰고 다시쓰고 깨끗이 쓰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 (8면)

◇재가 불자들을 위한 생활불교의 둥지 '유마정사' 개원. 단체 수련은 물론 가족 단위 주말 정진도 가능. (22면)

# 무르익는 '조계종 사면'

## 9월 종회 종헌종법 개정안 상정
## 월하 스님 대법원 소송취하 '호재'

조계종단의 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인 제151회 중앙종회에 사면관련 종헌개정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함께 정화회의를 이끌었던 월하스님(前 통도사 방장)이 최근 대법원에 조계종을 상대로 한 소송(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총무원장 자격부존재)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정화회의의 소송제기는 결과적으로 종단의 사면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만큼 이번 소송취하서 제출로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사면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무원 집행부에서도 사면에 회의적인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취하서 제출을 계기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종회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도 "어른(월하)스님이 나로 인해 불이익 당한 사람들을 종단화합차원에서 풀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이미 종단관계자에게 피력한 바 있다"며 "어른스님께서는 사면요청 성명서도 발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사면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던 일부 종회의원들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면에 가장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종회의원들의 친목모임인 *회의 한 스님은 "월하스님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98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우리들도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사면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종회의원스님은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사면 수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토론회나 세미나가 먼저 개최되어야 한다"며 "종헌을 개정하고, 심사과정에서 참회하지 않는 사람만 제외하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정 혜암스님 토굴 앞 삼배

7월 25일 '수행자들의 발로참회와 거듭남을 위한 21일 단식기도 정진'을 회향한 도법 · 수경 · 연관 · 재연 · 성륜 스님 등 실상사 스님 6명은 이날 오후 해인사를 방문,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원당암 미소굴 앞에서 삼배를 올린 후 폭력근절의 뜻을 담은 청원서를 전달했다.

해인사 원당암=고영배 기자

## "완력 행위자 엄정 처리하라"

### 조계종 본사주지련 결의
### 실상사 참회정진 회향

실상사 스님들의 21일 단식 참회기도회향과 함께 폭력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들로 구성된 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 · 수덕사 주지)는 7월24일 "승가의 각성과 관련 종법 대폭 강화를 통해 종단 내에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호소문'을 채택,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본사주지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총무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물리적이며 완력적인 행위자를 엄정히 처리해 확고한 재발방지의 기강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또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16개 단체들도 같은 날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불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5일까지 종단 주요 기관 및 소임자들에게 공개 청원서를 전달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22일 '비폭력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 제도적 과제를 위한 대중토론회'와 대중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실상사는 7월25일 오전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에서 종단 내 폭력근절을 위한 21일 단식기도 정진 회향식을 가진데 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교계 기관과 원로 스님에게 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다음주 신문(8월 8일자) 쉽니다**

## 8 · 15 남북 법회 조계사서 열린다

8 · 15남북공동법회가 15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7월 2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한 8 · 15남북공동법회를 전 회원 종단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개최키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대표단 30명과 참관단 80명 등 총 110여명을 구성해 참가시키기로 했다.

또 행사중 열릴 예정인 '불교와 환경보존 세미나' 발표자 추천을 각 종단에 의뢰키로 하고, 3개국 스님들의 환경사진전시회 출품작 50점도 공모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 北, 태고종에 단청지원 요청

### 조불련 전화통지문
### "불교문화 교류 기대"

북한불교계가 태고종에 사찰단청 기술 지원을 요청해와 향후 남쪽의 단청기술이 북한의 사찰 복원불사에 참여하는 등 남북불교교류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가 7월 24일 총무원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귀 종단이 종합적인 단청기술자료들과 단청재료들을 제공 및 지원한다면 민족공동의 재보인 북의 사찰들과 문화유산에 대한 단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협력과 연대가 깊어지리라 본다"며 이에 대한 실무접촉과 단청기술자 초청문제를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에 따라 25일 열린 종무원장 및 기관장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 단청기술자 파견 등 불교문화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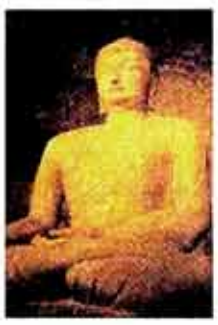
태고종은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만나 단청 기술자 파견과 단청재료, 복녕의 전통 또는 신축 사찰의 단청불사 지원 등 남북불교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자고 먼저 제안했었다.

이경숙 기자 gskee@buddhapia.com

## 지역불교 문화기행

### 신라 불교문화를 찾아서

#### 8월 : 석굴암 · 골굴사 · 기림사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린 성보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 · 사진)은한국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석굴암에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내부 구조의 완벽한 조화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렀다는 천년고찰 기림사에서는 맑은 계곡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함월산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대웅전(보물 제833호), 지옥과 염라대왕을 묘사한 탱화, 와당 등 갖가지 진귀한 성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선무도로 유명한 골굴사에 들러 마애여래불 좌상(보물 제581호)을 친견합니다. 경주지역 불교문화기행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찬란했던 신라불교의 숨결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출 발: 8월25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 사 설

### 불교시민단체 지원 환영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공모하고 8개의 사업에 300만~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계종의 사업비 지원에 대해 우리는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브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크다. 행정학에서는 시민단체를 '제3섹터'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한 사회의 운영 축으로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를 친다. 한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반정부적 행동으로 으해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시민단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단체가 하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 언론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 대한 감시활동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시민단체의 활동은 포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이들 단체들이 불교의 포교를 주목적으로 삼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 실현하고자 하는 방편으로서의 활동이다.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조계종총무원이 나선 것은 늦기는 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지원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생색내기용이라고 폄하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지원금의 액수를 차차 늘려 불교시민회단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조계종에 당부한다.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일이 조계종만의 일은 결코 아니다. 여러 종단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불교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종단간에 경쟁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경쟁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면 26개 종단의 협의기구인 종단협의회가 나설 수도 있다. 종단협의회에서 불교시민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중앙승가대 정상화 해법없나

조계종 도제양성의 요람 중앙승가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승가대가 새롭게 도약의 꿈을 안고 김포학사로 옮겨 김포학사의 즌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성대히 봉행된 것이 불과 얼마전인데 취임한지 7개월 밖에 안된 총장 종범스님이 사의를 표했고, 교직원들 월급까지 못주고 심지어는 단전 단수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 불전국역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 등 중앙승가대를 떠받치는 전문연구기관들이 이미 믄을 닫은 상태고 다른 부속기관들의 폐쇄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라니 대학이라는 허울만 남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전통강원과 현대 대학교육의 두가지 장점을 모두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승가대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책임은 우선 종단에 있다고 하겠다. 조계종이라는 불교계 최대 종단에서 종립 대학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서야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본래 인재양성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법이다. 재정문제 해결에는 종단이 나설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중앙승가대의 운영책임이 이사회에 있고 총무원장이 바로 이사장을 맡고 있지 않는가. 중앙승가대를 진정한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교구 본사들에게서 분담금을 각출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마련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승가대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립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암학사를 활용한 임대사업과 그동안 배출한 1천여 동문들을 활용하는 후원회 결성도 필요한 일이다.

늘 지적되는 일이지만 휘청거리고 있는 중앙승가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 학인들의 수행가풍 강화이다. 종립대학의 모범이 되는 지행합일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보일 수 있는 승풍진작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중앙승가대의 위기는, 승가대의 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상대방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종단의 3대 사업중 가장 중요한 일이 도제양성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종단과 학교, 동문회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운문사 사하촌 새단장

## 음식점 138동 철거…200m밖 집단시설지구 조성

국내 최대의 사미니 강원(학인 270명)이 있는 청도 운문사(주지 혜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하촌 정비가 마무리됐다.

최근 운문사 입구 경내지에 있던 음식점마을(속칭 사기점마을)이 수십 년 만에 철거돼 운문사 일주문 주변이 말끔히 단장된 것. 지난해 3월 공주 동학사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뤄진 이번 운문사 사하촌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주변 집단 상가지역의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행환경 보호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운문사와 청도군은 10여 년 전부터 운문사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 사기점마을내 무허가 음식점들의 철거를 시도해왔으나 그때마다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강제철거계획을 연기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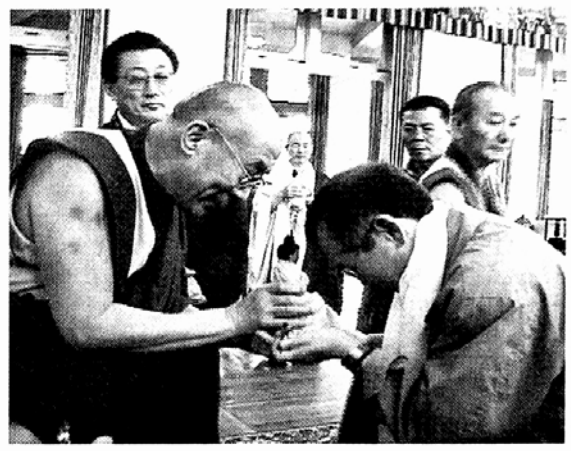
그러나 올해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들어가면서 지난 7월 2일부터 200여명의 공무원 동원, 철거작업을 시도해 2주일만인 7월 15일 21가구 138동의 음식점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들은 조성중인 운문산 집단시설지구에 수용할 계획이다.

운문사 입구 사찰 경내지에 사기점마을이 조성된 것은 90여 년 전. 당시 운문사 밑에 5, 6가구가 있었으나 전국에서 운문사를 방문하는 신도들과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자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 음식점 집성촌이 됐고 운문사 수행환경을 어지럽히는 골칫거리로 전락돼왔다.

한편 청도군은 운문사주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기점마을 식당촌을 철거함과 동시에 200m 떨어진 신원리 일대에 16억원의 예산으로 16만2천㎡(4만9천여 평)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를 조성중이다. 현재 83%의 공정률로 올해 말 개장예정이며 관리사무소와 야영장을 비롯, 주차장과 숙박시설, 오수처리장, 상가 등이 들어선다.

운문사 교무 석우 스님은 "당초에 사찰 주변에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이번에 사하촌 정비사업이 일단락돼 수행교육도량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면서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역시 사찰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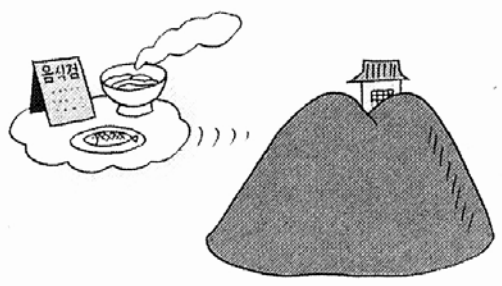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박광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공동대표가 달라이 라마로부터 불상을 선물 받고 있다. (사진제공=불교저널 21)

## 현대만평

박 구 원




하산…

## "강원-승가대 명칭 골라 쓰세요"

### 강원교직자련 모두 허용…지오스님 회장 재선출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는 7월25일 동학사에서 총회를 열고 강원 또는 승가대학이라는 명칭 사용 문제를 각 강원(승가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현 회장 지오스님(해인사 강주 · 사진)이 2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총회에 참석한 39명의 교직자들은 종법에 승가대학 또는 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강원(승가대학)의 재량에 따라 명칭을 사용키로 결의했다.

한명우 기자

## 30일 태고종 승려대회

### 협상땐 구종법회 변경

'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연합(위원장 철화)'이 준비하는 '태고종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7월 30일 오후 1시 신촌 봉원사(또는 성북구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개최된다(7월27일 오후 8시 현재). 그러나 태고종 분규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측과 종단 바로세우기 연합 측이 △혜초 총무원장을 제외한 현 집행부 일괄 사퇴 △승적을 정적당한 9명 스님 복적 △세칭 '7인방' 스님 공직에서 모두 사퇴 등 현안에 대해 계속 물밑대화를 계속(27일 현재)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승려대회는 '태고종 발전을 위한 구종법회'로 변경되어 개최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 동국대 비구니 폭행 물의

### 현각스님 징계요구

동국학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세영)는 7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국대 비구니 교수 폭력 사건 피의자인 현각 스님을 적절히 조치하고,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징계 회부하라고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요구했다.

김원우 기자

#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 만남

## 한-티베트 문화교류 협의…수용소 등 방문

"그동안 저를 초청하기 위해 애써 주신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3년에는 꼭 불교 형제국인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연기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웃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7월 19일 인도 다람살라 망명정부에서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공동대표 성관 · 박광서)를 접견한 자리에서 2003년 방한을 희망하면서 한국 종교인과의 교류, 한 · 티베트 불교문화의 교류 등을 제안했다고 방한준비위가 밝혔다. (성관스님 인터뷰 4면)

7일간의 다람살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7월 23일 귀국한 방한준비위는 당초 달라이 라마 방한 무산에 따른 참회 방문을 계획했으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다람살라 측의 만류로 불교문화 교류와 티베트 문화 이해를 위한 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티베트망명정부로부터 국빈급 대우를 받은 45명의 방문단은 이번 일정동안 인도령 티베트 성지 라다크의 난민수용소와 전통 병원, 다람살라의 어린이학교과 전통문화연구소 등을 방문, 라다크와 다람살라에 각각 1만불씩의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한 · 티베트의 불교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광서 방한준비위 공동대표는 "앞으로 티베트 불교문화의 한국 소개와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은 물론 티베트 학생의 한국 대학(동국대 위덕대 국민대 등) 입학 추진, 티베트 어린이 교육비 지원, 한국 종교인 티베트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불교 사회단체 사업 8곳 선정

## 조계종 3200만원 지급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7월 18일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신라문화원, 불교장기수 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사찰환경연구회 등 8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8개 단체에는 총 3,200만원이 사업비로 지급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불교단체는 환경관련분야(연구조사 포함) 3단체, 인권활동 관련분야 2단체, 복지관련 분야 1단체, 평화운동 관련분야 1단체, 생명운동 관련분야 1단체 등이다.

이번 제1회 공모사업에는 총 15개 단체가 응모했으며, 불교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파급력 및 영향력, 공모사업의 창의성, 사업의 타당성과 수행능력, 예산책정 및 배분의 타당성, 단체의 신인도 등 총 5개 항목으로 심사하여 8개 단체를 선정했다.

한편 조계종은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불교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방의 불교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 성 명 서

통도사주지 직무수행 임명과 관련하여 원산 스님(범하스님, 영배스님)의 일방적인 요구로 현문 스님과 합의 작성된 7월12일자의 합의서는 종헌종법과 총림설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합의서가 종헌종법의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영축총림 대중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1. 현문 스님을 주지(직무대행)로 먼저하고 차기주지는 양 문중이 원산 스님을 추대한다.**

위 사항은 총림설치법 제 13조에 의한 총림방장의 고유권한으로 총림의 주지는 방장의 추천에 의해서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이지 합의로서 임명될 수 없다.

**1. 부방장으로 청하 스님을 모신다.**

월하 스님 문중이나 경봉 스님 문중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방장 임면은 총림설치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부방장 임면권은 총림방장의 고유권한 임으로 합의 사항이 될수 없다.

**1. 종무소 7직과 박물관장은 원산 스님이 지명하며 임명된 7직과 박물관장은 주지(직무대행)가 해임하지 못하며 7직중 재무는 주지 에게 지명권을 준다.**

지방종정법 제 11조에 의하여 본사주지가 소속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욕에 의하여 전래가 없는 임면권을 요구한 것도 종법 위반 사항이다.

**1. 부주지는 임면하지 않는다.**

부주지 임면 사항 역시 지방종정법 제 14조에 의한 본사주지의 권한 사항으로서 합의 사항이 될 수 없다.

**1. 표충사와 미타암 중 1개 사찰을 원산 스님이 지명하는 스님으로 주지를 임명한다.**

말사주지는 본사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종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표충사와 미타암주지는 임기중에 있으며 종무운영에 있어서 직무상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있는 특정사찰을 지정하여 요구한 것은 삼보정재에 욕심을 낸 사욕이며 이 또한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 동대 이사 후보로 추천된 영배 스님을 통도사대표로 인정한다.**

위 사항은 통도사주지 임명 사항과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이며, 통도사의 대표는 두 스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1. 본사주지(직무대행)임명, 7직과 박물관장 임명, 표충사와 미타암 중 1개사찰 임명은 주지임명과 동시 15~30일 이내 처리한다.**

본사와 총무원의 적법 절차에 의해 임명되어 종무를 운영하는 소임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로서 이것 또한 종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1. 향후 합의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화합을 도모한다.**

위 내용은 총림과 종무소의 모든 업무관장에 대하여 사전합의 · 보고 · 결재를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지방종정법 제 13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1. 위의 합의사항이 한 개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총무원장 스님은 주지(직무대행)를 즉시 해임한다.**

위 사항은 이 합의서가 조계종 종헌종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원장 권한 · 총림방장 권한 · 본사주지 권한보다 상위법으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조계종 본사주지 임명에 있어서 전래가 없는 이 합의서는 종헌종법을 완전히 부정하고 통도사를 마치 문중대립이라는 파벌양상으로 세간에 비추게 한후 몇사람의 개인 사욕에만 치중한 채 종단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총림을 유린하는 내용이다.

**영축총림 대중은 분노한다.**

위 합의서 전문은 범하, 영배 스님이 초안하여 원산 스님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부득이한 상황에서 현문 스님은 날인하였고, 통도사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총무원장 스님은 고육지책으로 증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영축총림의 운영권(방장권한)과 인사권(주지권한)은 원산 스님에게 있고, 영배 · 범하 스님은 본사주지 임명을 기화로 하여 동국대 이사취임을 위한 총림의 대표성 인정과 박물관이란 특정 소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재정이 우량한 사찰을 지정 요구하여 개인의 탐욕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통도사주지를 운운하면서 종헌종법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하는 폐악을 드러낸 것이다.

영축총림 대중은 대중의 총의 마저 무시한 이 합의서의 합의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으로 총림 대중화합과 총림 위상회복을 위해 이 후부터 종무일체에 관한 권한은 신임주지 현문 스님이 행사토록하여 총림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총림대중의 뜻으로 결의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5년 7월 25일

**영축총림 대중일동**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전송 055)382-7196

## 목어

### 느림의 삶 '두배 만족'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전 구간을 완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구간별 신기록을 세우고 완주를 포기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평면적인 비교는 사실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인생을 굵고 짧게 살 것인가 아니면 느리더라도 완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 요즈음 영화를 보면 화면 전개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영화를 자주 접해 본 사람이 아니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옛날 영화를 지금 감각으로 보면, 극중 배우의 행동이 있기 전에 이미 관객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큼 느리다. 영화뿐만이 아니다. 길거리를 나서 보면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하나 같이 잰걸음이다.

딱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그러니 나도' 하는 생각으로 뛴다. 사회가 또 그렇게 뛰도록 다그친다. 옆도 들아보지 않고 목표로 삼은 정상에 섰을 때, 사람들은 과연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높고 강하고 빠른 것에만 습관된 사람들은 계속 진행형으로 있어야 불안이 적다. 그런 최고 일등 최강에 집착하여 자신을 닥달하면 여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쉬어가면서 일할 것과 여가를 선용하란 충고를 주지만 그런 쉼이나 여가 조차도 최강 일등 최고로 지내려고 한다. 습관이다. 한 템포만 늦추어 보면 보이는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만족할 것도 많다. 중독된 습관처럼 내닫는다면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여유로움이란 다음의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저축이요 생체리듬을 북돋우는 영양제 역할을 할 것이다. 가만히 정좌를 해 보자. 조용히 숨을 고루어 보자. 하루에 한번쯤이라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두배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느리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나를 가꾸어 보자

이근후(열린마음 클리닉 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실상사 폭력을 계기로 종단 내 폭력 근절을 위해 7월5일 '수행자들의 발로참회와 거듭남을 위한 21일 단식기도 정진'에 들어갔던 도법(실상사 주지) 수경(지리산 살리기 상임공동대표) 연관(화엄학림 학장) 스님 등 5명의 실상사 스님들이 25일 오전 단식기도 정진을 회향했다.

5명의 스님들은 7Kg이상 체중이 주는 등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평화로웠다. '반목과 질시, 폭력과 분열은 어떤 명분으로도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발원으로 채웠던 3주간의 시간. 단식기도 정진 회향식이 봉행된 7월 25일 실상사에서 도법·수경 두 스님을 만났다.

# "출가정신 원력 다시 세울때"

21일 참회 단식 정진 회향

## 실상사 도법-수경 스님 인터뷰



◇도법(오른쪽)·수경 스님이 7월 25일 오전, 21일간의 참회 단식기도정진을 마치고 화엄학림 강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단식기도를 회향한 소감은.

**도법스님=** 35년 동안 절집 생활을 하면서 불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단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키면서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회 단식 기도는 우리 자신과 종단의 오랜 고질적 병폐를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폭력문제는 종단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실상사에서 지핀 작은 불씨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수경스님=** 중 노릇을 잘못했다. 한두 사람 바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현대불교신문'에 기고한 글에 다소 격한 표현이 있었다. 정진기간 동안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하지만 대불 건립에 대한 반대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번 문제가 교단 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발로참회 단식기도를 택한 이유는.

**도법스님=** 불교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선은 양쪽이 함께 변화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발로참회는 모든 것을 뉘우치되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처음 생각대로 문제를 다뤘더라면 승패논리로 끝났을 것이고, 결국은 어느 쪽이든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은 불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힘들지만 양쪽 모두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승패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명예롭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했다.

수경 스님

"기고문의 격한 표현 정진중 참회 '대불' 반대 변함없다"





도법 스님

"발로참회 단식기도 승패논리 아닌 승기발전 모색시간"

▲종단 내 폭력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수경스님=**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우리 교단은 해방전후로 여러차례 갈등을 겪어왔지만 불교적 방법으로 푸는 지혜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수행풍토도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엔 폭력이 빈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집단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다만 불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수행풍토를 바로 잡는 일이다. 수행자가 수행자 다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사부대중 모두가 거듭나려는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

▲무너진 수행풍토를 우려하는 대중들이 많은데.

**수경스님=** 사실이다. 승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가 본연의 뜻이 흐려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출가정신의 원력을 다시 세우는데 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회향문에서 폭력병폐 근절의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각고의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법스님=** 폭력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재가자들의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종단은 물론 수좌들도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나서서 본사에 촉구하고, 수좌계에서도 명예회복에 나서길 기대한다. 이번 단식 참회 정진이 불교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단식 참회기도와 유사하든 다른 방식이든 계속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실상사=한명우 기자

# "폭력 더 이상 안된다" 재가 발원

## '비폭력문화정착추진위' 발족의미



◇7월 26일 발족식을 가진 '비폭력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위'.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참여불교재가연대, 대불청, 전국불교산악인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사불자련, 대불련, 전국불자교정인련 등 16개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7월 24일 서울 호텔에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기병 포교사단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3인을 공동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등 '비폭력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 것은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간주되고 있는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재가불자들이 처음으로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위가 미리 배포한 청원서에서 "원시적 완력과 토론을 통한 공의수렴 및 의시결정의 절차를 무시하는 풍토를 일변시키고, 교단차원에서 사회적 폭력과 증오심의 극복을 위한 문화적 기풍을 선도해 갈 것"을 승가에 촉구한 것은 출·재가의 위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불교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조계종 공식 기구인 중앙신도회, 출·재가의 교량역할을 하는 일선 포교사들의 모임인 포교사단이 주도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출가교단 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런 폭력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 때문이었다.

물론 추진위의 발족은 실상사 스님들의 목숨을 건 21일간의 '폭력근절 참회단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재가자들이 나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더 이상 물리적 언어적인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불교사적인 반성이 주요했다. 해방 이후 일제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불교정화운동, 최근 종단개혁과 쇄신운동에 이르기까지 정화와 개혁의 과정이 격렬히 진행된 까닭에 인내하는 토론과 대중적 공의에 수순하는 불교 본연의 수행풍토가 쇠퇴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1954년 정화불사로부터 94년 조계종 개혁불사, 98년 조계종 분규사태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불교적 인과를 보여주었다는 판단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추진위는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정하신 포살(布薩)의 전통과 육화합법(六和合法)의 정신에 의거해 '폭력문화의 극복과 평화와 상생의 문화회복'을 절실한 과제로 채택했다. 나아가 교단차원에서 사회적 폭력과 증오심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적 기풍을 선도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폭력 불감증은 교단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전쟁의 씨앗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출가교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히려 스님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불교본연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지는 참여자들의 순수한 원력과 불자들의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불가 입장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주지연합회의 성명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24개 교구본사 주지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일본 국민들에게 배포하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국민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지극히 불행한 일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지적한 지난 4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정 불가 입장을 통보해온 것에 대하여 이천만 불자들과 함께 깊이 우려하며 일본 정부의 반역사적, 반평화적 행위를 준엄하게 경책하고자 한다.

3.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검정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천만 불자와 함께 엄중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시정할 때까지 일본문화 개방 유보 등 확실한 대책을 추진하고, 이웃 나라와 연대하여 일본이 과거 침략사를 참회하고 인류 평화의 대의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5(2001)년 7월 24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연합회

# 결 의 문

우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일부 스님들의 집단적 행동으로 사찰 기물을 파손하는 등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이든 물리적이며 완력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금번 교단에 실망과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사회적 파장까지 몰고 온 중대사안이라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승가는 물리적이며 완력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각성하여야 할 것이며, 종도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물리적이며 완력적인 사태를 근절하는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총무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물리적이며 완력 행위자를 엄정히 처리하여 확고한 재발방지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종단의 입법기구는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이며 물리적 행위자가 교단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종법을 대폭 강화하여 교단이 안정속에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승가는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부처님의 자인(慈忍), 불해(不害)정신을 체득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세울 수 있도록 다함께 불퇴전의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45(2001)년 7월 24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연합회

## 일주문



### '원각경' 출판 기념법회

일공 원융종 종정은 5일 오전 11시 용산 호텔 캐피탈에서 '법랍 61수(壽) 및 〈원각경〉 출판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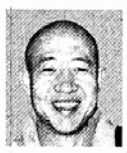
### 8월 다보법회서 법문

혜담 각화사 주지는 2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8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 '불교의 업사상' 강의

일초 前 동학사 강주는 6일 오후 7시 전북불교회관 화엄불교대학 여름 특강에서 '불교의 업사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 '청소년 성매매' 토론회

선일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장 스님은 7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연변대 법학 세미나 참석

고준환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리는 '21세기 법학과제' 세미나 참석차 7월 24일 출국했다.

##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요"

### 입으로 종이학 접는 안명훈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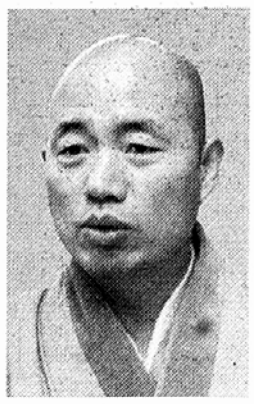


"종이학을 많이 접으면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현각스님)에는 입으로 종이학, 비행기, 배 등 16가지의 모형을 접는 안명훈 씨(22 · 뇌성마비 1급 장애인)가 있다. 왼쪽 발 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7살 때부터 입으로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잘 접는다. 충주에서 특수초등학교를 나온 덕택에 한글을 깨친 그는 17세 부터 틈틈이 400편의 시를 써 가족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는 지난 달 'SBS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 이제 펜 레터도 받는 스타가 되었다.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는 그는 다음 세상에는 32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의 몸으로 태어나길 발원한단다. 원주=김재경 기자

# "달라이 라마 2003년 초파일 재초청"

### 다람살라 다녀온 방한준비위 대표 성관 스님



"한국의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달라이라마를 뵙기를 고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세차례나 약속을 어겨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그의 방한을 기대하기에 2003년 부처님오신 날을 즈음해 다시 초청할 생각입니다."

7월 15~23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망명정부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돌아온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성관스님(수원포교당 주지)은 "인권정부를 자임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좌절되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기필코 방한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불자 및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다.

"망명정부의 지도자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종교지도자에게 세 번이나 방한 약속(비공식적이었지만)을 번복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에 먹칠을 한 일이었다"는 성관 스님은 "1959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경전을 등짐에 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은 후 외롭게 평화적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일제강점시대를 망각한 의롭지 못한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세번이나 방한약속 번복

#### 정부 외교 신뢰성 먹칠

#### 난민에 성금·선물 전달

때문에 성관 스님은 한 자유인의 정당한 입국절차를 방해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함께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정부의 빈약한 인권정책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중국정부에 의한 티베트인에 대한 인권 및 종교탄압(고문, 투옥 등) 실상을 망명정부로부터 브리핑받고 티베트 난민수용소와 난민임시학교를 방문, 티베트 인권상황을 다시금 절감했다는 성관 스님은 난민들을 위해 다람살라에서 성금 1,000만원과 생필품 600셋트, 학용품, 대장경CD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경전에 기초해 전통의학과 천문학, 점성학 등을 고도로 발전시킨 티베트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 경전은 그들의 생활이요 생명임을 느꼈다"는 스님은 한 · 티베트간의 불교문화 교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관 스님은 티베트 학생의 국내 대학(동국대, 위덕대, 국민대 등) 입학 추진, 티베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티베트 불교문화 국내 소개, 한국 종교인들의 다람살라 방문 추진 등을 2003년 달라이라마 방한전까지 성사시킨다는 원력을 세웠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K2 정상에 올라 환호하는 박영석 씨.

## 불심의 산사나이 雪山 14좌 '완등'

### 박영석 씨 K2 올라

박영석(동국대 산악회 OB) 씨가 드디어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올랐다.

등반대는 7월 22일 오전 1시 40분(현지시간) 마지막 캠프를 출발, 13시간의 목숨을 건 등반 끝에 K2 정상을 정복했다. 이로써 박 씨는 지난 91년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이후 10년 만에 히말라야 8,000m급 14 고봉 완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 씨에 이어 두 번째, 세계에서는 9번째.

등반대는 원래 날씨가 좋아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8~9시간으로 예상했으나 능선에 눈이 많이 쌓여 전진하는 데 애를 먹어야 했다. 또 준비한 픽스로프(추락에 대비하기 위해 능선에 깔아놓은 고정로프)마저 바닥나 비상로프를 써야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인내와 경험을 발휘해 정상등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등반대는 하산 도중 박영도 대원이 실종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7월 25일 하산한 등반대는 26일 철수해 6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앞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 남극과 북극 도보탐험에 나설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제주 불교문화 역사 체험 하러 옵서예"

### 다도문화기획 · 투어 조인석 대표



"원래 탐라국 제주는 불국토라 할 만큼 불교역사가 제주문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 불교에서 유래된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제주불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광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단순 관광이 아니라 불교체험 및 수련을 할 수 있는 성지순례코스를 제공하는 제주불교성지순례전문 '다도문화기획 투어'를 설립한 조인석 대표. 조 대표는 제주도 관광이 '바가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수련과 관광'을 겸한 내실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순례코스를 준비했다고 밝힌다. 다도문화기획 · 투어가 마련한 불교성지순례는 천왕사 존자암 불사리탑 약천사 법화사 등 대표적 성지와 함께 섭지코지, 산굼부리 등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를 연계한 다양한 순례코스로 불자들은 살아숨쉬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조예가 깊은 조인석 대표는 제주의 유일한 불교계 신문인 〈한라불교〉를 89년 창간, 10여년 동안 제주도의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온 주역으로 "숨어있는 제주불교의 깊은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라고 각오를 보였다. (064)746-0107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월정사 '좋은세상 구현 선수련회'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7월 23~26일 월정사 주지 현해,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과 60여 수련생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사람, 좋은 세상 구현' 첫번째 선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예불, 발우공양, 울력, 사경, 보궁참배, 3보1배, 불교특강, 수계식, 소감문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 정토회 '자연과 나눈 평화이야기'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산하단체인 불교환경교육원과 좋은벗들은 7월 21~22일 경기도 가평 백둔리 자연학교에서 불교환경교육원의 생태선재기행과 좋은벗들의 평화운동을 결합한 '자연과 나누는 평화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이야기와 평화이야기, 야외 명상 등으로 열렸다.



## 민주당 복지견학단 소쩍새마을 방문

소쩍새마을(원장 현각)은 7월 19일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등 민주당 복지시설 견학단의 방문을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현각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도 정상인과 함께 불편없이 살아야 한다"며 "함께 살아가는 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 회당학원 가족체전 5백명 참석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지광) 주최 '제2회 회당학원 가족체전'이 7월 19~20일 양일간 위덕대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체전에는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 지광 회당학원 이사장, 경혜 이사, 혜명 위덕대 전담임원 등 진각종 스승들과 손제석 위덕대 총장을 비롯한 위덕대, 심인중 · 고등학교, 진선여자중 · 고등학교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01학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 (6기생) 모집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고,
한성대학교사회교육원에서는 날로날로 발전하는 불교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1~5기생 50명을 교육 · 배출하였으며 이번 학기에 6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을 전수, 각종 행정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사회의 시사문제 부동산 재산관리 · 법무행정, 생활영어, 컴퓨터를 통한 문서작성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수업기간 : 불기 2545년(2001년) 9. 4 ~ 12. 11 (15주)
2. 강의 요일 및 시간 · 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4시 30분
3. 모집인원 : 주간 남 녀 40명
4. 자 격 : 불교 종무행정 관계자나 종무행정에 관심 있는 분으로서 연령 학력 교파 제한 없음
5. 수 강 료 : 1학기 1인당 35만원 6. 제출서류 : 본원소정양식 1부, 사진 2매(학생증용)
7. 접수기간 : 2000년 8월 1일 ~ 2000년 8월 10일 ※ 전화 및 우편접수 가능함
8. 접수 및 문의처 :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전화문의 환영)
   - 주 소 : 서울 성북구 삼선동 389 · 전화 : 02-760-4003, 760-4401 · 팩스 : 02-760-4002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삼선교역)하차, 도보로 7분 거리임. 마을버스 5분마다 운행

※ 2기생(2년과정)졸업예정자들은 졸업준비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시고 휴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학기 졸업시 참석 준비 및 앨범제작)

◇ 이번 학기 개설 강좌내용(주4시간 15주) ◇

| 과 목 | 내 용 |
|---|---|
| 불교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천 | 불교종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영역을 강의함. |
| 사찰운영을 위한 컴퓨터 강좌 | 사찰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컴퓨터 활용기법과 정보체계를 강의함 (컴퓨터 기초부터 홈페이지 작성까지 1인 1대 교육 컴퓨터 문외한 환영) |
| 불교 생활영어 특별강좌 | 외국여행에 필요한 출입국 절차 영어 및 간단한 불교 생활영어 특별반 개설 운영 |

※2년 전과정을 수료한 분들에게 본교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불교 종무행정사 자격증 수여 예정
※1학기 수료자들에게는 본교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대학 개강 (2년제)**

정토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 왜곡되지 않은 「바른불교」, 어렵고 난해하지 않은 「쉬운불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년, 4학기 과정)

교과과정

- 불교입문과정 : 실천적 불교사상
- 부처님의 일생 : 인간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 근본불교 : 불교사상의 뿌리
- 변천사 : 한국불교 및 인도불교, 세계불교변천사
- 불교교학 : 대승불교의 꽃
- 수행론 : 참 나를 찾아서
- 불교와 사회 I : 불교와인류문명
- 불교와 사회 II : 불교와 환경 생명사상
- 불교와 사회 III : 불교와 평화
- 불교와 사회IV : 불교와 복지
- 기타 : 특강 및 수행수련

| | 교육기간 | 요 일 | 법회시간 |
|---|---|---|---|
| 서 울 | 9/4-12/11 | 매주 화 | 주/야 |
| 부 산 | 9/3-12/10 | 매주 월 | 주/야 |
| 대 구 | 9/5-12/12 | 매주 수 | 주/야 |
| 대 전 | 9/7-12/14 | 매주 금 | 주 |
| 청 주 | 9/7-12/14 | 매주 금 | 야 |
| 마 산 | 9/4-12/11 | 매주 화 | 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정토불교대학 02) 587-8993
부산정토불교대학 051) 557-2746
대구정토불교대학 053) 744-3025
대전정토불교대학 042) 253-8990
청주정토불교대학 043) 284-5951
마산정토불교대학 055) 247-8991
011) 9000-9529

모집대상 및 입학금

- 대 상 : 만 19세이상 누구나 다
- 참가비 : 6만원(한 학기)
- 접수기간 : 7월 16일~9월 24일
-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대학 사무국

※ 본과정은 중간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2001년도 하반기

**정토불교통신대학 개강 (2년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정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들을 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기본 교과내용으로 하면서
사회적 실천대안을 새롭게 제시하신 법륜스님께서
정토불교통신대학에서 강의합니다.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는 법륜스님의 통신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입학대상 : 성인 남녀 누구나 (연령, 학력 제한 없음)
2. 교육기간 : 2년(4학기)
3. 특전사항 : 2년 전과정을 마친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4. 접수기간 : 7월16일 ~ 9월24일(월요일)
5. 접수 및 문의 : 정토불교대학 사무국
   전화 : 02-587-8994 / 전송: 02-587-8998
6. 입학식 · 소집일 : 2001년 9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 정토회관
7. 교육방법 :
   - 법륜스님께서 강의하신 녹음테이프와 교재가 우송됩니다.
   - 과목별로 과제물을 제출하여 평가받습니다.
   - 철저한 학사관리를 합니다.
8.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9. 등 참 비 : 입학금 10만원, 한학기 20만원(분할 가능)

★ 국민은행 823-01-0148-855<이지현>

10. 교과내용

| | | | |
|---|---|---|---|
| 실천적 불교사상 | 인 간 붓 다 | 근 본 불 교 | 불교의 변천사 |
| 법 성 게 | 신 심 명 | 반 야 심 경 | 육 조 단 경 |
| 환경과 불교 | 복지와 불교 | 평화와 불교 | 통일과 불교 |
| 일 수행의 수행 | 일 수행의 일 | 마음 다스리는 길 | 민족의 역사 |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준비위원회'가 7월 25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 "비리 언론 자정노력 하라"

## 불교등 4대 교단 '1천인 선언' 발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교단 종교인 1천여명은 7월 25일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이날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비리, 족벌언론의 대국민 사과와 강력한 언론개혁을 촉구했다.

불교의 청화(실천승가회 의장) 진관(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스님, 천주교의 김병상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개신교의 문대골 목사(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원불교의 이정택 교무(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대표) 등 3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교인들은 "비리 족벌 언론사와 언론사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족벌이 언론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불법과 탈세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경영권과 편집권을 전횡해 온 사실을 은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언론사들은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깊이 반성하고 국민과 역사의 가르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케케묵은 '색깔론'이나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 역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반역사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족벌 언론사와 사주가 반성과 자정의 노력으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각종 법회, 미사, 기도회를 통해 비리 언론사의 문제점을 신도들에게 알려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문에는 천주교 540명, 불교 308명, 개신교 358명, 원불교 92명 등 1298명이 동참했다. 김재경 기자

# 1단체 1지도법사 '발등의 불'

## 교리공부·신행상담 어려움 커
## 직장직능법사단 곧 발족 "기대"

임업불교연구원은 7개월 남짓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 사찰의 스님들에게 지도법사를 청했으나 "사찰 신도 관리도 벅차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서울열차승무사무소 불자회는 '법문비'가 부담스러워 지도법사를 초빙하지 못하고 있다. 법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10여 명 안팎이기 때문이다. 상용통신망에서 활동하는 모 동호회 서울경기지역 모임은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정기법회 장소 마련에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밤늦은 시각에 법회를 보는 것을 마뜩찮아 하는 사찰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94년 이후 줄곧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직장직능 신행단체. 그러나 수적 증가와 반비례로 지도법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도법사 부재'는 단일 사업체나 소규모 신행단체일수록 심해 어렵게 창립된 이들 단체가 친목 모임 정도로 유지되다가 유야무야 사라질 우려도 안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99년 전국의 직장직능 신행단체 12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행활동 및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지도법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적으로 지적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 보림사 주지 정악 스님이 10여 년 째 지도법사로 있는 경산 조폐창 금강회의 경우, 월 2회 정기법회와 교리공부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스님이 140여 명의 회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 회원들의 신행이나 인생 상담에 곧잘 응해주고 있다.

금강회 사무국장 서응교 씨는 "스님의 포교 원력이나 수행자로서의 인품에 회원들이 감화를 받아 신행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씨는 "평균 40여 명의 회원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회사일로 5~6명의 회원만이 모임에 참석해도 법사스님의 지도로 법회를 봉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법회를 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도법사의 부재는 직장직능 신행활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교리 공부나 법회 봉행 등의 원활한 진행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임원들을 제외한 직장직능 불자 대부분 '산사의 정취가 좋아서', '불교를 바로 알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가입한 초심자들이어서, 이들의 불교공부나 신행활동을 자세히 점검해주는 지도법사의 부재는 초발심을 꺾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방안이 쉽게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생적으로 결성된 신행단체라는 불자회의 특성 탓으로, 이들 단체를 지원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7월 19일 교계 첫 직장직능 의식집전 교육을 실시한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현황 파악을 한 후 하반기에 '직장직능법사단'(가칭) 조직 등 지원사업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나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최근 한빛은행 불자회 지도법사로 추대된 법현 스님(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직장직능 단체는 회원들의 소속 사찰이나 종단이 달라 그 정체성이 희미하다"며 "신행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1단체 1지도법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계종 포교원 뿐만 아니라 각 종단과 종단협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cu@buddhapia.com

## 서초경찰서 경승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

서초경찰서 경승법당 개원 1주년 기념법회가 7월 23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서초구 사암연합회가 후원하고 서초경찰서 경승단이 주최한 이번 기념법회는 200여 사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서초사암연합회장 춘광스님(관문사 주지)의 법어에 이어 서초경찰서 경승실장 월도 스님의 기념사, 서초경찰서 조삼랑 서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조삼랑 서장은 감사패, 서초경찰불교회 최용일 회장과 이영무 총무는 공로패를 각각 받았다. 법당은, 지난해 7월 아미타부처님이 봉안되고, 11월 경찰불교회가 발족되면서 불자 경찰들의 수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오종욱 기자



# 불교교사대학 첫 운영보고회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7월 2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1학기 운영보고회를 가졌다(사진). 정여 스님, 양정청소년회관 관장 범산 스님을 비롯한 어린이법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1학기 학사일정 보고와 재무보고를 갖고 2학기 계획을 밝혔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교계 최초로 창립된 대한불교교사대학 48명의 수강생들은 1학기동안 불교학과, 교육학,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마치고 방학을 이용 여름불교학교 실습 경험을 갖게 된다. 또한 2학기에는 참관학습, 불교문화재 탐방, 현장수업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고루 갖춘 어린이 법회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 포교와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수료한 이들이 어린이법회 현장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게시판

### 강좌

▲금정불교대학 교리·경전반=금정불교대학은 하반기 교리 및 경전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교리 과정은 월, 화, 수요일 주·야간으로 진행되며, 〈금강경〉, 〈육조단경〉, 〈선문촬요〉 등을 강독한 경전반은 목, 수요일에 마련된다. 접수는 8월 11일까지. (051)866-7277

▲정토불교대 하반기 강좌=정토불교대학은 2001년도 하반기 2, 4학년 강좌를 마련했다. 불교입문과정, 수행론, 불교와 사회 등 11개 분야 15개 과목이 마련된 이번 강좌는 9~12월 3개월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마산에서 진행된다. (02)587-8993

▲제주불교문화대 야간반 신설=제주불교문화대학은 제4기 야간반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불교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이상 학력 소지자와 관음불교학교 수료자, 기타 불교기초교리 과정 이수자로, 신청은 31일까지. 교육기간은 1년, 개강은 9월 5일. (064)702-2828

▲능인불교대학 제32기 강좌=능인불교대학은 제32기 강좌를 연다. 9~12월 3개월간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는 불교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등의 과목이 마련됐다. 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낮반과 수,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반으로 진행된다. (02)577-5800

### 모집

▲한문예절교실 수강생=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한문예절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은평구 거주 4, 5, 6학년 초등학생이며, 교육은 월~토요일 오전 8~10시. (02)385-1351

▲장애아동 목욕 도우미=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아동 목욕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주 1~2회 2시간씩 실시된다. (02)852-0525

▲밑반찬 조리 봉사자=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 밑반찬 조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는 주 1회 오후 2~4시 실시. (031)455-0551

▲태극권 교육생=조계종 원우회는 태극권을 함께 배울 불자들을 모집한다. 태극권 교육은 매월 첫째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종 포교원 4층. (011)9899-8934

▲독거노인 생신잔치 후원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잔치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은 매월 1회 (02)2203-3677

### 이전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전=(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종로구 명륜동 4가 206-6호에 사옥을 마련, 1일 이전했다. (02)765-9602~3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 우리 모임에선

### 대우종기 금강경 강좌

대우종합기계 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는 7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성주사 설법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15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독경, 108배,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법우회는 8월 28일 성주사 주지 원광 스님 초청 〈금강경〉 특강을 실시한다.

### 반야회 법왕정사 순례

한전 본사 반야회는 7월 21~22일 경기도 양평 법왕정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법회에 동참한 10여 명의 회원들은 법왕정사의 저녁, 아침 예불은 물론 주지 청견 스님의 지도로 '절하는 법'도 배웠다. 이번 법회는 5월 동원정사, 6월 청계사에 이어 세 번째.

### 교사불자련 무애원 봉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기법우회는 7월 22일 10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무애원을 방문, 설거지 봉사를 실시했다. 무애원은 해병 2사단 군법당으로, 매주 150여 명의 장병들이 무애원 주지 혜정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점심공양을 해오고 있다.

### 도시철도 법우회 정기법회

도시철도 법우회는 7월 26일 오후 7시 서울 답십리 관음정사에서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동참한 20여 회원들은 천수경 독송과 정근 그리고 관음정사 주지 경덕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우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해병불자회 독경정근

해병대 불자회는 7월 29일 오후 3시 강남 봉은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한 30여 회원 및 그 가족들은 독경과 정근을 통해 신심을 다졌다. 지난 4월 창립된 해병대 불자회는 매월 1회 정기법회와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 불교법사회 수련회

대한불교법사회는 7월 27~29일 경북 봉화 관음사에서 '스스로 참회하고 남에게 도움주자'를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갖았다. 이번 수련회는 동국대 목정배 교수의 '세제수행법' 등의 강연과 법사활동사례발표, 우란분절의 의미와 기도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 | | |
|---|---|---|
| 1학년 | 1학기(14주) |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
| | 2학기(14주) |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 2학년 | 1학기(14주) |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
| | 2학기(14주) |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전형방법 |
|---|---|---|---|
| · 불교학 출강 00명 |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br>·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br>·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br>·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 서류전형<br>- 합격자 개별통지<br>-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 · 불교학 통신 00명 | | | |
| · 불교학 편입 00명 |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 |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현오스님과 함께 하는
# 전생최면 지도자 연수프로그램

현오스님의 지도 아래 개최되는 전생최면 지도자과정 연수프로그램을 알립니다.
금번의 프로그램에서는 전생최면 시술법의 개별전수 및 다양한 명상법의 실수와 교리 강좌를 통해
① 현실 삶의 원인인 과거생을 돌이켜보고,
② 미래에 대한 통찰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준비하며,
③ 이를 바탕으로 불자대중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스님·불교지도자(교리체계를 갖춘 분)
■ 기 간 : 2001년 9월 11일 – 9월 16일(5박 6일)
■ 참 가 비 : 삼백만원(大智 전생연구회 발전기금)
■ 장소·참가자 선정 : 신청접수 후 개별통보
■ 참가 신청 : 전화상담 후 간단한 경력사항 제출
■ 문 의 : 02-929-0929, 033-374-5346, 팩스 : 02-571-5413
■ 참가비납부 :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근
■ 접수 마감 : 2001년 8월 31일
■ 참가자통보 : 2001년 9월 3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전생최면』의 저자 현오스님이 이끄는 大智 전생연구회는 불교의 교리에 입각한 전생최면의 해석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실상을 바로 알아 이익대중의 길을 모색하는 수행연구단체입니다.

주최 : 大智전생연구회

위 과정을 마친 이후 빠른 시일내에 일반인을 위한 2박 3일 과정의 〈전생 체험 명상 캠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치매노인 보살피며 자비 배워요"

신행현장

## 호암마을서 봉사 김무상씨 가족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봉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사는 것 이지요"

장마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던 7월 22일,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은 치매노인 전문요양원인 삼천사(주지 성운) 부설 호암마을에는 천둥번개에도 아랑곳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이어지고 있었다.

10~20대의 젊은 봉사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할아버지의 용변수발을 들던 장년의 김무상(54 · 삼보바이오리빙테크 전무)거사가 눈에 띄었다.

"집안일로 한 주라도 빠지면 오히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 할머니가 걱정할 정도이다 보니 이제는 개인생활을 접어둔지가 오래됐다"는 김무상(서초구 방배동)거사는 매주 일요일이면 부인 김옥연(50)보살과 자녀 민선(대원외고 2년), 민산(이수초교 4년)을 데리고 치매노인요양원인 호암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흐뭇해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 · 25전쟁 당시 한쪽 팔을 잃은 국가유공자 권상용(75세) 할아버지가 있다.

김거사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김옥연 보살과 민선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병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한곳을 유심히 쳐다보며 지나쳤다. 그러자 김무상거사가 휠체어를 멈췄다.

"커피가 드시고 싶으세요?" 김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오자 할아버지 얼굴에는 금새 미소가 돈다.

김거사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치매를 앓았던 어머니가 호암마을에 3개월간 다녀간 후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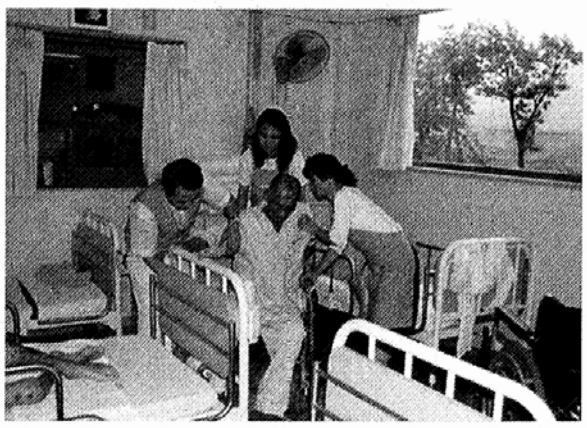
지친 치매환자가족의 휴식을 위한 3개월 단기 요양원인 호암마을을 찾은 김거사 가족은 이곳의 일손이 부족하고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호암마을을 통해 삼천사에 나가 불교를 알게 되면서 인생자체가 베품이고 나눔이라는 것을 통감했다"는 김거사 가족은 올 1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 10시면 호암마을에 도착해 오후 5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옥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여느 학생들처럼 친구만나는 일이 즐거울 것 같은데도 매주 부모님과 항상 이곳을 찾는 민선이는 "힘들긴 하지만 어른들을 조금만 신경써 모셔드리면 즐거워하니 기쁘다"며 "처음에는 친구들처럼 여가 시간에 공부하고, 놀고 싶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참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음 지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치매노인 요양원인 삼천사 인덕원 호암마을의 허영숙과장은 "호암마을에는 못하는 120여명의 노인들이 있다"며 "치매노인들은 급식, 간식은 물론 식후 양치질, 물 마시는 것, 소변 대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데 자신의 부모처럼 도맡아서 하는 김씨 가족을 보면 불자의 모범적인 신행이 느껴진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호암마을에서 자원봉사하는 김무상씨 가족이 국가유공자인 권상용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있다.

부인 · 아들 · 딸과 함께

매주 일요일 호암마을 行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생활속의 불교 수행방법에 집착말라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위해 모종의 특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책을 뒤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뭔가 좋은 방법일 듯 싶으면 며칠 동안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도 다른 방법을 들으면 또 그 방법으로 옮겨 간다. 자신의 그와 같은 방법찾기가 또하나의 집착인 줄 알지 못한다.

뭔가에 집착하는 한 그 수행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룬다, 얻는다는 생각에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란 곧 쉼이다' 또는 '방하착하라'는 말을 듣고 망상을 몰아내려고 한다. 혹은 놓아야 한다며 애를 쓴다. 그러나 망상을 몰아내려는 생각은 또 하나의 망상이다. '놓아야지' 하는 생각도 망념이다. 안 놓아진다면서,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망념이다.

수행의 방편으로 좌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좌선은 그냥 앉아 있음, 바르게 앉음 그 자체일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좌선은 선방에만 있지 않다.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인 것이다. 불보살의 명호를 외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에 의지하려 하다면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르침 밖에 안된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다. 나를 위함도 아니고 남을 위함도 아니다. 더구나 누구와 경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그저 수행 자체가 목적인 수행이면 된다. 앉았을 때는 앉음 그것이 목적이고 행할 때는 행 그것이 목적이면 된다. 거기엔 아상 · 인상 따위가 붙을 틈이 없다. 있다면 다만 생명현상이 있을 뿐이다. 생명과 함께 흐르는 마음, 그저 흐르게 놓아두는 쉼이 있을뿐이다.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자면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런 시비 분별의 마음이 없이 그냥 돌아 보면된다. 그외에 최선의 방법이란 없다. 그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돌아보면서 뭔가 알아내려 해서도 안된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냥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그것은 마음이 생명과 함께 자연스레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정진이다. ▩龍眼

## 주제가 있는 법문

# "도반의 열반소식 듣고 새삼 텅빈마음 갖습니다"



법안스님
삼각산 금선사 주지

일전에 가까운 도반 은사스님이 입적 했다는 소식을 듣고 팔공산 은해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결식을 마치고 다비장에 도착해 거화(관에 불을 붙이는 의식)를 해 훨훨 타는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세월이 지난 뒤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해 졌습니다. 일찍 가신 아쉬움 때문이였을까. 그래서인지 목이 메여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는 도반의 모습이 돌아서는 길목 내내 사무쳐 왔습니다.

저토록 한줌의 재가 되고 마는 것을. 풍진 세상에 태어나 수행자의 모습으로 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할까, 허허롭다고 할까. 그 여운이 며칠을 갔습니다.

누구나 죽고 난 다음에는 관대해 진다고 합니다. 생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사람일지라도 죽고 난 뒤에는 용서와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볼 수없는 명부의 세계로 떠나갔다는 생각이 들기에 그럴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모습이 안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일까요.

### 세상 이토록 허망한데 업연 짓고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을 돌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이 저토록 허망할 뿐인데 왜이리 나는 분주하게 업연을 짓고 살아갈까 하고 자책함은 아닐런지요. 정녕 인간 본원자리로 돌아가 자기를 비춰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칠월 백중(우란분절)이 다가오면 자신의 업연에 대해서 돌아보곤 합니다.

"대중이여, 나는 이제 참회를 행하노니, 대중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보고 듣고 또 의심하는 생각을 내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런 생각을 냈다면 나를 부디 가엾이 여겨 지적해주오. 죄를 알면 마땅히 그 죄를 뉘우치고 수행이 바로 참회입니다.

망자의 허망한 모습을 보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깨어 있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는

## 신행 캘린더

**8월 2일 (목)**

■청소년 봉사캠프=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3일까지 가평 꽃동네에서 '심신장애인 도와드리기' 청소년 봉사캠프를 실시한다.(02)2282-1100

■탈북자 생활체험=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탈북자 생활체험 행사인 '제5차 우리이웃 작은평화 나누기 2001'을 실시한다. (02)723-6258

**8월 3일 (금)**

■청장년 수련대회=금강경독송회는 5일까지 포항 금강정사에서 하계 청장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742-0172

■재가연대 가족캠프=참여불교재가연대는 6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청학사에서 '2001 재가연대 가족캠프'를 연다.(02)725-6231

■나를 찾는 캠프=우리는선우는 6일까지 경기도 양평 법왕정사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청소년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02)2278-8672

■시민연대 전략 강연=(사)좋은벗들은 오후 7시 30분 청도회관 3층 강당에서 '동북아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연대 가능성과 전략'을 주제로 대구가톨릭대 이정옥 교수의 강연회를 연다.(02)587-8996

■횃불정진대회=불광사 학생회가 7일까지 강원동 양구 호국 의선사에서 '제19차 하계횃불정진대회'를 실시한다.(02)3431-7885

**8월 4일 (토)**

■부산 경찰청 무궁화 법당 봉불식=부산경찰청불자회는 오후 3시 무궁화법당의 부처님을 모시는 봉불점안식을 봉행한다. (0510523-8760

■향일암 순례법회=한국석불선양회는 전남 여수 향일암 해수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여천 흥국사에서 정진하는 제16차 순례법회를 떠난다.(02)996-7945

■어름수련대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6일까지 충남 예산군 수덕사에서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11)740-9494

**8월 6일 (월)**

■여름성지대회=전국염불만일회는 8일까지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한다.(02)732-1215~6

■한문학당=광주불교교육원은 17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교육, 우리문화 배우기, 예술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위주로한 '한문학당'을 연다.(02)228-9098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설

청 년 만 해 대 학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만해 한용운님의 민족 자주와 불교혁신 정신을 계승,
생활 속의 수행을 실천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불교적 가치관을 제시할 강좌에 초대합니다.

◈ 불교수행론
◈ 불교사(한국불교 근현대사 중심)의 바른이해
◈ 불교문화의 이해
◈ 비교 종교학(특강)

❁ 시 간 : 매주(목) 오후 7:30 ~ 9:30(2시간)
❁ 일 정 : 2001년 9월 6일 ~ 2002년 1월 17일
❁ 모집인원 : 정규반 50명(출석수업) / 통신반 약간명
❁ 회 비 : 한 학기 15만원(통신반 18만원)
❁ 지원자격 : 불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모집기간 : 7월 26일 ~ 9월 6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전화 02)736-0408/02)730-9108
전송 02)735-2707
E-mail : kyba003@kyba.org

알기 쉬운 반야심경

여 름 공 개 강 좌

더운 날씨가 연일 기승을 부립니다.
이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한불청 부설 청년만해대학에서는
여름을 맞이하여 반야심경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번 강좌는
백남석 법사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1) 일 정 : 8월 2일(목) ~ 8월 30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총 5회 >
2) 장 소 : 만해 교육원
3) 대 상 : - 서울지구, 조계사, 서울불청
- 불교에 관심이 많은 청년불자 누구나
- 일반인 대상
4) 동 참 비 : 무료
5) 강 사 : 백남석 법사 (만해대학 전임 강사)
6) 문 의 : 만해대학 교학처
☎ 02-736-0408 / 730-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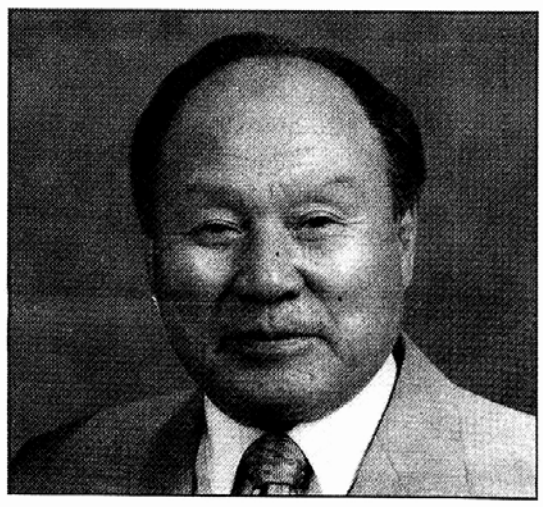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설 www.kyba.org

청 년 만 해 대 학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주시는 분께는 일천만원을 사례하겠습니다.



●이름 : 조형준(남자,66세)
●특징 : 눈이 크고 대머리이며, 키는 168cm정도이고 붉은 벽돌색 체크 남방에 국방색 등산조끼, 등산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었음.
치매증상이 있을 수도 있음.
●실종일시와 장소 : 2001년 6월 19일(화) 가평 석룡산 조무락골에서 (명지계곡, 화악산 근처)등산을 하시다가 실종되셨음.

연락처 : 대각사 (02)744-4502
02)2611-2196/011-9786-5094/011-9960-4973

※전국의 대소사찰 주지큰스님 및 대중스님과 신도 여러분께서는 상기인을 보시거나 보호하고 계시면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교수의 46

## 불교로 보는 인생

# 청소년의 종교교육

### 특정종교 주입식 교육 감수성 계발 장애요인

올해 대학생이 된 조카가 유치원 다닐 때의 일이다. 아직 한글도 깨우치기 전에 입만 열면 동심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을 놀라운 시어(詩語)로 자아내는 것이 너무도 신통하여 집안팎의 사랑을 한 몸에 담던 꼬마 숙녀. 이제는 저도 개성 있는 한 세상이 되어 매사에 자기 의견 분명한 성인이지만, 그 때야 정말이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마음 놓일 여리고 귀여운 싹이었다. 하루는 밥상 앞에 앉아 나를 보며 하는 말이 신경을 건드렸다. "삼촌, 이 밥 누가 준 줄 알아?" "응? 누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준거래. 비도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고 천둥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래."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래? 그 선생님이 너희들 재미있게 가르치시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보호해 주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랴, 횡설수설 말이 길어지고 있었다. 조카가 돌아간 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유치원에 전화 걸어 원장 선생님을 찾았다. 사정을 설명드린 후 내 생각을 전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특정 종교 언어로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학적 의문, 문학적 상상력, 윤리적 감수성, 합리적 사유 능력의 기초를 계발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종교적 선택은 충분한 사고력을 갖춘 후 스스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얼른 문제점을 납득해 준 원장 선생님의 조치가 뒤따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울산대 철학과에서는 2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철학교실'을 개설해 오고 있다. 올해 하계 교실도 높은 호응 속에 선발된 100여명의 수료생을 막 배출하였다. 이번에는 '영화로 본 철학(와호장룡과 동양사상)' '문학 속의 철학(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남녀 차별과 평등' '생명 윤리와 임신중절의 문제' '추측과 반박의 방법' 등 10개 테마가 개설되었다. 테마 중심의 '철학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큰 보람을 맛보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갖추어 주려는 교육적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그들에 대한 종교 교육은 어떤 내용이어야 바람직할까?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종교 언어에 일찍이 갇혀버리면 생명은 자칫 굳어지기 일쑤. 그 경직을 풀어 다시 유연한 생명의 건강으로 돌이키려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강한 전도 열정으로 원색적으로 진행되는 조기 종교 교육은 그처럼 간과할 수 없는 후유증을 안기 쉽다. 인간의 합리적 탐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종교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특히 철학 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균형 있고 수준 높은 사색의 기회를 갈구하고 있는지 절감하는 동시에, 그 엄청난 교육비가 정작 삶의 질서와 깊이를 스스로 마련해 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과는 무관하게 쓰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확인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유익한 삶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윤리 감각과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정도면 좋겠다. 다양한 삶의 길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 말랑말랑한 마음을 오히려 딱딱하게 만드는 종교 교육은 피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종교 교육은 인류가 소중하게 축적해 온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들에 대한 감수성을 계발시켜 주는 수준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불문(佛門)이 밝히는 그 탁월한 합리적 보편의 길은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방학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겨냥한 종교단체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풍성해진다. 그 교육이 특정 종교 언어에 대한 맹목적 신념의 주입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위한 몸과 마음의 예절을 익히는 보편적 수신(修身)의 도량이었으면 한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 재가불자 팔관재 실천 '자기점검'

참불자의 길 재일(齋日)



◇정기적으로 사찰에서 봉행하는 재(齋)에 참가해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바로잡자.

출가수행자들과 달리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상을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 닥쳐온 갖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삼보를 찾고, 가난한 이웃도 돌본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들의 삶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출가자들의 삶에 정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육재일(六齋日)을 도입했다. 재(齋)라는 것은 범어 우포샤타(uposadha)를 한역한 것인데, '삼가다, 부정을 피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정한 날에 계율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육재일은 부처님은 한 달동안 최소 6일은 꼭 계를 지키며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했다.

재가불자들이 단순히 부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편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육재일이 바로 오늘날 행해지는 불교의 각종 재일의 시초가 되었다. 육재일은 매월 음력 3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인데, 이 재일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재가불자들이 여덟가지 계를 지켜야만 했다. 여덟가지 계는 팔관재(八關齋)라 하는데, 재가 오계에다 '높고 넓은 침상을 쓰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일부러 구경하지 않으며 향수 등을 바르지 않고, 정오가 지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의 3계를 더한 것이다.

육재일을 살펴보면 부처님 시대에 재가불자들의 신행이 얼마나 철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세속의 일에 끄달리며 살아가는 재가불자라 하더라도 7~8일 간격으로 출가수행자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참 불자로서의 자기 점검과 출가수행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귀의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율장〉에서도 '팔관재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바새가 될 수 없고, 우바이도 될 수 없다'고 하여 재가불자들이 철저히 재일을 지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심지어 재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재가불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정도였다.

이같은 육재일의 불교 전통은 점

## 출가자의 삶 본받아 철야정진-일일출가

차로 변하여 십재일로 되었다. 십재일은 육재일에다 1일, 18일, 24일, 28일을 더한 것으로 각 재일에 특정한 불보살을 배대(配對)하여 의미를 부여했다.

1일은 정광불, 8일은 약사불, 14일은 보현보살, 15일은 아미타불, 18일은 지장보살, 23일은 대세지보살, 24일은 관세음보살, 28일은 비로자나불, 29일은 약왕보살, 30일은 석가모니불이다. 이를 십재일불(十齋日佛)이라고 부른다.

이 열가지 재일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지켜지고 있는 재일은 18일 지장재일과 24일 관음재일이다. 관음재일이나 지장재일의 의식은 〈천수경〉을 독송하고 각각 〈관음예문〉과 〈지장예문〉, 그리고 정근과 발원의 순으로 행해진다. 관음재일에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예문과 정근을 한다. 지장재일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발원과 정근을 한다.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것이다.

불교의 재일은 단순히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출가의 삶을 본받아 정진하는 정진일이다. 이같은 재일의 본래적 의미와 가르침을 오늘에 실천하기 위해서 재가불자들은 매주 1회 법회에 참석하거나, 보름 간격으로 철야정진이나 일일출가를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은자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㉔ 장제형에 대한 답서

# 알음알이의 길 끊어지면 모두가 진리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사대부들은 도(道)를 배우려라도 대개 진실한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업애버리면 곧 망연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못하고, 다만 마음 속에서 꽉 붙잡고 생각으로 헤아려 도달하려 하며 괄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누어 보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과거와 미래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마음 속 알음알이의 길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만약 마음 속 알음알이의 길이 끊어지면,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모두가 진리이며 대해탈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매 순간 매 순간 접하는 모든 경계가 도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도와 하나 되어 있으면서도, 생각으로 상(相)을 만들어 그 상에 머물기 때문에 도와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공부의 핵심은 도를 깨닫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식인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생각을 그럴듯하게 구성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이 도 공부에서 부딪히는 장벽은 당연히 생각이라는 장벽이다. 물론 지식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지만, 지식인에게 그 장벽은 특히 높다. 생각하는 일이 바로 지식인의 일이기 때문이다.

즉 지식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를 모두 생각을 통하여 해석하고, 생각 속에서 관념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도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써 따질 수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자신이 딛고 있던 발판과 잡고 있던 손잡이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발판과 손잡이를 버려서 곧 의지할 곳 없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듯이 불안한 이 상황이, 사실은 도(道)에 들어가는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발판과 손잡이를 과감하게 포기해 버리고 죽기를 무릅쓰고 허공 속으로 뛰어들어야 비로소 도의 문을 들어서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만약 여기서 용기가 없어서 다시 과거의 발판과 손잡이를 찾아 의지한다면, 영원히 도의 문을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지식인은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의심해 보고 헤아려 보아서 안심이 되어야 비로소 행동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 관문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되돌아 물러서 버리고 만다. 이것이 지식인이 도를 깨닫기 어려운 이유이며, 또한 지식의 비극이다.

아직 도를 모르는 범부에게 도의 세계는 낯설고 새로운 세계이다. 이 낯설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과거에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을 포기해야 한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든가, 한번 죽어서 부활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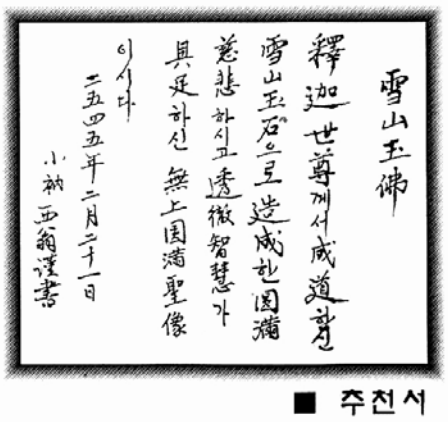
과거에 의지하고 있던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은 곧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를 발판삼아 미래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여 머물며 미래를 욕망한다. 이처럼 과거에의 집착과 미래에의 희망은 모든 범부들이 의지하는 손잡이요 발판이다.

그러나 도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런 손잡이와 발판은 버려야 한다. 즉 도의 세계에는 지금 이 순간 여기의 존재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함에는 어떤 종류의 해석이나 관념적 구성물도 필요하지 않다. 바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읽는데 무엇이 모자라는가? 지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데,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상(相)을 따라 분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의 존재에 아무 부족함도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부족함이 없으니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으니 바로 대자유의 해탈이다.

http://www.mindfree.net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추천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이렇게 들었다

휴가예절

## "겸허하게 자연 대하자"

▩나무 밑 그늘에서 잠시 쉬었거든 가지나 잎사귀 꽃과 열매를 헐지 말라. 은혜를 입고 악으로 갚는 이에겐 좋은 결과란 있을 수 없고 은혜를 등진 사람에게 선은 생기지도 않는다. <잡보장경>

▩땅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뭇 삶들이 땅의 세계에 탐착한다. <상응아함경>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그러나 막상 휴가길에 나서보면 일상보다 더 번잡한 것이 우리네 휴가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아예 단순히 더위를 피해 도망치는 '피서(避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망서(忘暑)' 즉 더위를 잊는 경지로 들어가 봄은 어떨는지. 시끄러운 피서지가 싫다면 집안에서 시원한 선풍기 바람으로 바닷바람을 대신하고, 불서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독서로 피서를 대신하는 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때문에 여름 산사는 고달프다. 피서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때문이다. 피서객을 상대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해마다 강화되지만 사찰은 매년 쓰레기로 장엄되곤 한다. 올해도 청정 수행도량을 오염시키는 얌체족들의 쓰레기 투기는 근절될 것 같지 않다는 게 사찰들의 전망이다.

"깊은 산속 불법(佛法)은 바위가 그것, 큰 바위 작은 바위 저마다 둥글다. 거짓 부처님을 만드느라고 공연히 벼랑깨어 법신(法身) 상했네."

백운스님이 '금강산 내 석불상'이란 제목으로 노래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대로가 청정한 불국토이자 중생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몸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자연을 대하더라도 인위적인 것은 결국 자연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올해 휴가를 떠나는 불자들은 더이상 국토에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겠다.

이런 점에서 최근 두레생태기행(대표 김재일)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환경휴가 10계명'을 공표한 것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대중교통 이용 ▶현장 주변의 생태환경에 관심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기 ▶현지 취사를 삼가고 지역의 향토음식 먹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사이좋게 지내기 ▶현지의 동식물을 훼손하거나 갖고 오지 말기 ▶차량은 현장에서 가능한 먼 곳에 주차 ▶아무데서나 합부로 세차나 용변을 보지 않기 ▶생태보전지역과 금지된 구역 지키기 ▶앰프나 확성기 사용 자제.

▩내 몸과 자연의 건강을 보전하는 환경 휴가가 된다면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 여여할 것이다.

"노승이 30년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였다. 그러던것이 그 뒤에 어진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을 물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을 깨치고보니 산은 의연코 산이요 물은 의연코 물이더라" <청원 유신선사법어>

김재경 기자

# 治山 治水…댐 건설이 최선인가

불자 세상보기

### '수요관리'가 첫째요건
### 생태계 파괴 '경계'
### '녹색댐'도 물확보 수단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지난 7월 11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봄의 극심한 가뭄을 방패 삼아 댐 건설 예정지 12곳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건교부는, 2011년 전국 물 부족량을 12억t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댐 건설의 이유로 삼았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댐 건설이 최선의 대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우선 건교부의 예측이 부실하다. 도시화율이나 상수도보급률을 예시하는 등 대단히 정밀하게 조사된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한 것이다. 물 수요는 인구뿐 아니라 물 가격, 소득수준, 생활양식 등과 경제적 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물 수요량을 추정할 때는 고도의 계량경제 분석기법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요 측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발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즈도 정부는 구시대적 수자원 관리 정책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이 때의 '구시대적'이라 함은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을 말한다. 물이 부족하면 댐 세우는 일에만 급급했지 비싼 돈으로 만든 물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거나 그야말로 물쓰듯 낭비되는 현실은 수수방관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당연히 '수요관리'다.

수자원 정책에서 수요관리의 핵심은 효율의 극대화와 절약이다. 건설 자체가 백지화된 영월댐을 예로 들어보자. 영월댐 백지화의 표면적 이유는 동강의 비경과 생태계의 파괴였지만 엄청난 국민 혈세를 낭비할 뻔한 계획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나라 주택의 85%는 수세식 변기를 갖추고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평균 13ℓ의 물이 소비된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서 선진국에서처럼 6ℓ의 물만 소비되는 변기로 교체하면 약 3억6천만t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영월댐의 용수공급 능력과 똑같다. 그러나 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기존의 변기에 간단히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 절수 기기의 가격 1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도 800억원이면 모든 주택에 보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월댐은 우리나라 전 주택의 절수기 설치 비용의 12.5배에 해당하는 1조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다.

수요관리의 대안은 무조건적 반대 논리와는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자연자원의 이용 및 환경오염 문제에 범지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에도 부합한다. 수요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의 대안은 절약이다. 이를 위해서 절수 기기의 보급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고 다양한 절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더디게 하는 장애 요인은 지나치게 싼 물값이다. 아직은 물쓰듯 쓸 수 있는데 누가 물 절약의 불편을 감수하겠는가. 그렇다고 물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1인당 하루에 200ℓ 정도까지는 싸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거운 요금을 물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안은 많다. 수질 관리도 중요한 사안이다. 아무리 양적으로 풍부해도 썩은 물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녹색댐'도 물 확보의 좋은 수단이다. 물을 머금는 기능을 극대화한 양질의 산림을 일컫는 '녹색댐'은 홍수조절이나 대기 정화와 같은 공익적 기능도 뛰어난 만큼, 기껏해야 40~50년이 한 계인 인공댐보다 우선하여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열 린 마 당

## 불교의 수행론 연구

아봐타 등 이른바 제3수행법 논쟁이 촉발된 후, 호기심에 가까운 관심으로 '이 수행법 저 수행법'을 찾아 기웃거리는 일이 늘고 있다. 전통 수행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이런 현상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에 보조사상연구원은 '불교 수행론 연구'의 첫번째 마당으로 7월 28일 초기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위파사나와 사띠를 다뤘다. 동국대 강사인 조준호씨와 임승택씨가 발표한 '위파사나의 인식론적 근거' '사띠(sati)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고찰'을 발췌했다.

### "있는 그대로의 진리 보는 수행"

#### '위파사나의 인식론적 근거'



조준호
동국대 강사

경전의 많은 곳에서 '여실여견(如實知見,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봄)'은 '참된 인식(sammappa)'으로 표현되었으며, '참된 인식'이란, 그대로 '완전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 자체로서 깨달음과 열반 그리고 해탈을 위한 '완전한 가르침'이며, 그러한 목표에 이르도록 다시 '완전한 수행법'인 위파사나(Vipassan )를 제시하고 있다. 아니 위파사나를 중심으로 모든 가르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계정혜'라는 삼학을 차례로 닦는 수행체계로 압축되었다. 불교적인 바른 의미의 '정'은 흥상 '계'가 바탕이 되어야만, 그리고 다시 '혜'는 '정'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야 바로 열반과 해탈과 같은 궁극적인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의 참된 인식의 근거는 여실여견(如實知見)이고, 목표는 열반 · 해탈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행되었던 체계가 바로 사마타-위파사나(samatha-Vipassan )이다.

결론적으로 위파사나는 분명히 후대 종파불교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 수행 전통에 있어 근본이며 중심이 되는 수행법이다.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菩提, bodhi)과 열반(涅槃, nibbna)해탈(解脫, vimutti)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실천체계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불교경전에 은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후대 종파불교 수행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만약 후대 불교에 의해 사마타-위파사나(samatha-Vipassan )체계가 해이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불교 전통에 있는 후대의 모든 수행법의 근거는 바로 여기서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지킴"

#### 사띠(sati)의 의미와 쓰임



임승택
동국대 강사

초기불교의 실천론을 하나의 틀로써 집약한 것으로 사념처라는 것이 있다. 이 사념처는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의 전반에 걸쳐 육체적 · 정신적 현상을 수행의 과정으로 포괄하는 체계인데, 이것이 곧 사띠의 수행체계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의 경전에서는 사띠를 "특정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따라감으로써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에 밀착하여 서는 것' 혹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확고하게 머무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띠 수행법을 단순히 '대상에 집중된 상태' 즉 사마타(samatha)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사띠 수행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입출식염(入出息念), 즉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지킴'에 대한 초기경전들의 설명은 느낌(受) 따위의 육체적 · 정신적 현상들이 '감지된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마음지킴(sati)을 확립하는 일차적인 대상은 '코끝' 혹은 '면상'이다. 따라서 피동적으로 감지되어지는 느낌 따위는 완전한 집중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부차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들 부차적 관찰 대상들은 일차적인 마음지킴의 대상으로부터 의식이 분산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은 인위적인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위한 매개로써 이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마음집중 즉 사마타 수행법과 그 궤도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의식의 상태에서부터 '지각과 느낌이 소멸된 선정(想受滅定)'이 발현되기 직전의 깊은 선정에 이르기까지, 일어남과 사라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무상 · 고(苦) 무아의 실상과 연기의 이법을 자각케 하는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기고

## 독서 · 참선 등 몰입의 즐거움 최상의 휴가



이우상
소설가

사마천의 사기에 삼망(三忘)이란 말이 나온다. 군인이 전장에서 잊어야할 세 가지 일이다. 즉 명령을 받고서는 집을 잊고, 싸움터에 나가서는 부모를 잊고, 공격의 북소리를 듣고서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생존의 현장에서 분투하던 우리들의 동지들이 짬을 얻어 휴식을 찾아 떠난다. 휴식은 소모가 아니라 재충전이란 말을 되새기며 산과 바다, 계곡을 찾아 떠난다. 번거로운 직장의 일을 잊고, 학기말 성적이 신통치 못한 것을 잊고 짐꾸러미에 설레임을 가득 담아 휴가를 떠난다. 열차의 기적소리를 공격의 북소리로 여기며 번잡한 일상은 동승시키지 않으려 떠밀어 버리고 차문을 닫는다.

그러나 자신을 잊는 일은 무척 어렵다. 온갖 문명의 이기들은 자신의 존재와 현위치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준다. 휴대폰과는 어느덧 일심동체가 되었다. 노트북 컴퓨터까지 들고 가서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펼친다. 주변환경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노래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들은 귀에 익숙한 가락이다. 합당하지 못한 물건값에 분을 삭여야 한다. 이기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기 십상인 것이 우리네 휴가 문화의 실상이다.

내 경우 독서의 집중이 곧잘 실현되는 곳이 지하철 전동차 안이다. 한 시간 정도 이동하는 것이 보통인데 책을 펼치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무척 수월하다. 시간을 압축해 버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전동차의 굉음이나 주변의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마운 습관임에 틀림없다.

거창하게 의미를 확대해 본다. 처처불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깨달음이란 고상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몰입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휴가지이다. 잊어야할 것은 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 그곳이 어디이건 시나브로 삼매에 빠져들 것이다.


인터뷰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illegible](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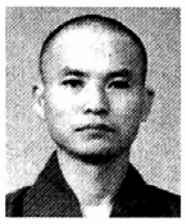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사·부·대·중

## 아쉬운 이웃



혜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문학포교원 앞집이 단독 기와집이었는데 다세대 붐이 일더니 여섯 세대가 모여산다. 집 주인이 기독교인이라 모두가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로 세를 주었다. 해질녘이면 잠자리 때처럼 모여 앉아 제비처럼 재잘거리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 때론 나도 끼어들기도 한다. 될 수 있으면 끝이 없는 종교논쟁은 피하곤 한다.

그런데 그 사람중에 조금 튀는 기독교인이 있다. 아침이면 핸드마이크를 들고 지하철로 나가 하루 종일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법회날이면 집 앞에 나와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 법회가 끝나 밖에 나가면 나에게 교회 오면 신학대학 보내주고 장가까지 보내준다고 한다. 오죽 답답했던지 주인 아주머니가 스님에게까지 선교하려고 하느냐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그 소리가 먹혀들지 않는다.

아저씨는 개인택시 뒤에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장로이며 기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차문제로 싸움이 벌어졌다. 내가 잠깐 시장에 갔다 오느라 법당 앞에 화분을 놓고 갔는데 화분을 치우고 자기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나는 크랙숀을 한 두 번 울리고 비켜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십 여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크랙숀을 계속 울렸다. 크랙숀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집 아저씨가 비켜주려고 했는데 미워서 비켜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그 집으로 쳐들어갔다.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법당 앞에다 주차하느냐고 한바탕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서서 내 멱살을 잡는 것이었다.

포교원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참회하며 마음속으로 "부처님 포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 후 한동안 말을 않고 지냈다. 화해도 하지 못했는데 칠월 어느 날 이사를 갔다. 그 때 내가 조금만 인내를 했으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칠월이 오면 그 분들이 생각난다.

목탁소리

## 폭력, 이젠 그만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7월23일 오전 편집국에 한 불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불자는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서 20일 자정경 어느 스님이 한 노인을 몽둥이질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분개했다.

확인한 결과 사건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60대의 이 노인은 그 사찰의 야간경비원으로, 신도들의 철야기도를 돕고 사찰 야간 순찰을 위해 스님들이 교대로 법당에 나가도록 돼 있었고, 그 교대시간을 경비원이 챙기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경비원이 제때 스님들에게 교대시간을 알리지 않았고, 신도들이 스님을 찾으며 사찰 측에 항의를 해오자 재무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경비원을 엎드리게 해놓고 근무가 태만하다며 경비봉으로 구타를 한 것이다. 그 스님은 기합을 준 것은 사실이나 경비봉으로 몇 차례 찔렀을 뿐 구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내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됐다.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계종의 한 사찰에서 젊은 스님이 70이 다 된 노스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자초지종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사찰에서는 젊은 스님을 징계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불교계는 뿌리깊은 폭력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가장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워야 할 승가에서 폭력성이 문제가 되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재가자들과 스님들도 종단의 고질병인 폭력근절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폭력은 증오와 또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폭력근절을 위한 의식개혁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9년째 경전 윤독 '부산대 불교독경회'

# "원전 읽으며 교학-신행-수행 기틀 다진다"

9년 동안 이어온 부산대학교불교독경회(회장 김태완 · 신라대 철학과)는 불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법을 구해 피안을 건너는 뗏목으로 삼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다.

부산대불교독경회는 93년 3월 이준오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매주 한 번씩 모여 3시간 동안 한문 경론서 및 선어록을 읽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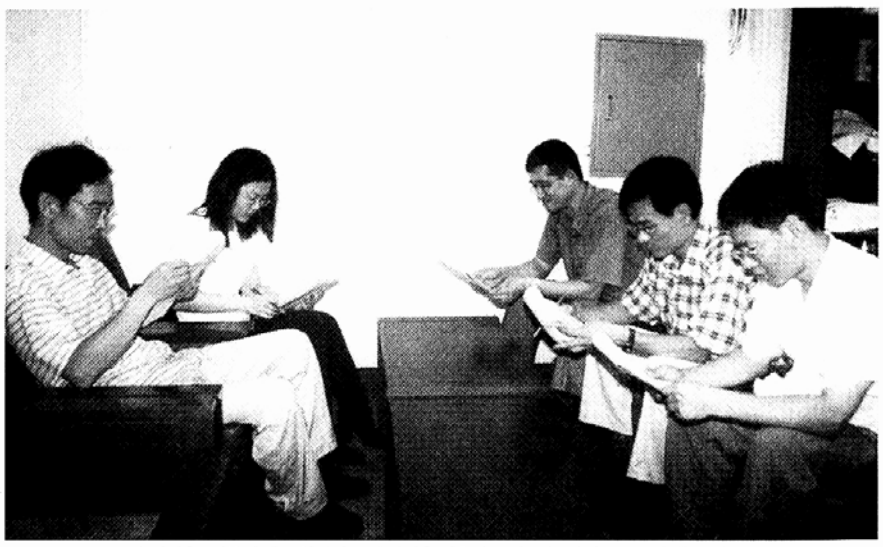
### 매주 3시간 이상 토론

'원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불교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는 생각으로 시작된 순수한 공부모임이다. 회원은 이준오 · 김태완 교수를 비롯해 김만겸 부경대 강사, 김준호 부산대 철학과 강사, 박원출 부산대 사학과 강사, 윤옥선 동국역경원 번역 위원 등 8명으로 초기경전부터 어록까지 대표적 책들은 섭렵했을 정도. 〈중론〉 〈인명입정리론〉 〈신심명〉 〈전심법요〉 〈임제록〉 〈백장어록〉 〈마조어록〉 〈완능록〉 등을 완독했고, 〈아함경〉 〈구사론〉은 부분독, 〈반야심경〉 제이역본 대조독 그리고 〈유식삼십송〉 등은 완독해 번역까지 했다.

부산대불교독경회는 전국의 여러 윤독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로인해 1996년에 성철선사상연구원으로부터 승조의 〈조론〉 강독으로 윤독회 지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998년에는 종밀의 〈승습도〉와 〈도서〉로, 1999년에는 '조선후기 선논쟁 자료집' 가운데 첫 번째 자료인 백파 긍선의 〈선문수경〉으로 세 번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부산대불교독경회는 올해부터 윤독의 성과물을 출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백파긍선의 〈선문수경〉을 번역해 막바지 교정작업 중이며, 〈선문사변만어〉 도 윤독과 번역을 완료하고 출간 준비에 한창이다. 이는 부산대불교독경회가 처음으로 출간하는 책으로 벌써부터 학계의 관심이 높다. 또한 현재 윤독중인 〈임제록〉 종밀 주해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근고판과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부산대불교독경회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 윤독회 활동은 득송과는 구별된다. 윤독을 통한 번역은 경전을 단순히 읽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글자 풀이를 넘어 뜻을 새겨내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경전에 담긴 궁극적인 뜻을 풀이해 내는 것으로 기존 번역서의 오류를 바로 잡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듬기도 하여 제대로 된 번역과 주해로 불경을 현재에 되살려내려는 노력인 것. 많은 일반인들이 뜻도 모른 채 암송만 하는 현재 경전공부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윤독회 활동의 의미이자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원전을 읽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하는 작업이고 보니 웬만한 결심과 끈기가 아니면 지속할 수 없는 일. '불법의 정수를 알아보고야 말겠다' 는 발심 하나로 버텨왔다고 표현할 만큼 철저한 노력과 자기 수행이 뒤따라야



◇사진은 9년동안 매주 한번씩 모여 경전을 강독하고 있는 '부산대 불교독경회' 회원들.

## 철학 · 사학 전공자들 주요 회원
## '임제록' '선문수경' 등 단행본 준비
## 기존 번역서 오류 수정 "이해 쉽게"

하는 일이다. 자칫 학문적으로 흐르기 쉬운 경전공부의 한계를 개인적 수행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부산대불교독경회는 매주 5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 한사람의 발표자가 경전을 풀이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사찰순례 등 문화체험

현재 윤독회는 방학을 이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온종일을 경전 윤독과 번역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오전에 다시 읽고 있는 〈금강경〉은 영역본, 산스크리스트어본, 한역본 등 7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고 있기도 하다.

부산대불교독경회는 한때 해체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윤독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몇 몇 회원의 원력으로 단 두 명이 모임을 이어나가기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수녀가 윤독회 회원으로 참가해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현재는 가톨릭 신자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부산대불교독경회는 불경의 문자 해석에 얽매이기보다는 보편적인 진리 탐구에 주력하고 있다.

공부모임이던 부산대불교독경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공부만 챙기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이 원전을 접하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 모임인데다 일반인들의 경전공부를 위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윤독회가 경전의 번역서를 내는 일과 일반인의 불경 교육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부산대불교독경회는 이런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 나가고 있다. 원전 번역 출간으로 일반인에게 불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인터넷 불교동우회에서 그 동안의 원전 풀이 강의를 제공하거나 토론의 장을 마련, 일반인들의 불경 공부와 불교수행 전반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대불교독경회는 현재의 수행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기초교리 수준의 교육만을 겨우 받거나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는 없이 기복과 외형에 치우친 신행형태를 갖게 되는 적지 않은 불자들에게 심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김태완 교수는 "한국불교가 늙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것은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면서 "절에서 하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경전이나 어록을 통한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젊은 불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경전을 공부할 때는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윤독회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찰 교리강좌나 불교교양대학에 출강, 일반인들의 경전공부를 적극 돕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불교 전반적인 분위기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대안이 경전에 들어 있고, 경전이라는 든든한 뗏목을 세간에 건네는 역할과 기능이 윤독회 활동의 중심에 있는 만큼 윤독회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윤독회란?

윤독(輪讀)은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아가며 읽는다는 뜻으로 승가의 오랜 전통이다. 승가대학(강원)의 원전강독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일지사) 등 윤독회의 성과물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돼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소규모의 윤독회를 지원하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 윤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교 윤독회는 약 20여 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통 6-7명 안팎의 사람들이 매주 한 두 차례 모여 원전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윤독회는 한 모임에서 여러 경전을 강독하는 것보다는 경전이나 어록별로 윤독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는 윤독회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윤독회는 부산대 불교독경회와 서울 교대 은정희 교수가 이끄는 윤독회를 꼽을 수 있다.

### 전국 20여 모임 활동
### 불교학 발전 '주춧돌'

이밖에도 불교경학연구회, 동양사회사상연구회, 경주 남산윤독회, 원전윤독회, 조론 윤독회, 구결학회 등이 있다. 또한 성철선사상연구원에서는 윤독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매년 6개의 정도의 윤독회를 지원하고 있다.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획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종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 金금檀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리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⑲

8월의 삼복 더위도 잊은 채, 십지품을 설하기 위해 타화자재천궁의 마니보장전(摩尼寶藏殿)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다. 금강장보살이 '큰 지혜로 밝게 빛나는 삼매'에 들었다가 부처님께서 금강장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가피를 주시자, 삼매에서 깨어나 부처님의 위신력에 힘입어 십지의 이름을 설하였다. "첫째는 환희지요 둘째는 이구지요… 열째는 법운지이다." 이어서 "십지법문은 보제(菩提)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청정한 법의 광명문이다." 이렇게 설하고는 묵연히 계시니, 대중들이 해탈월(解脫月)보살을 필두로 간절하게 법문을 청한다. 이른바 삼가오청(三家五請)이다. 먼저 해탈월이 청법하고 대중이 청하고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법을 청한다.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 어떤 곳인가? 욕계(欲界)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다. 이곳은 남이 변화로 나타내는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아는 천인(天人)이 사는 곳이다. 앞의 삼현위의 수행이 무르익어 십지(十地)의 본격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천인이다. 말하자면 월드컵처럼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수준 있는 선수들이 뛰는 선불장(選佛場)이 아니겠는가!

"서로서로 쳐다보고 공경하오며 모두들 한결같이 우러르기를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이 목마른 이 감로수를 그리워하듯 /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린 이 좋은 음식 생각하듯 이 병난 이가 좋은 약 생각하듯 이 벌떼가 단 꿀을 좋아하듯이 / 우리들도 오늘날 그들과 같이 감로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어렵게 법문을 청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일까?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화엄에서 십지법문(十地法門)이 가장 훌륭한 까닭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법화경(法華經)〉 방편품의 '삼지삼청(三止三請)'을 통해 볼 수 있다. 법화회상에서는 성문제자 중 상수인 사리불(舍利弗)이 대중을 대신하여 간절한 청법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살제자 중 상수가 법문을 청하고 있다.

이어서 불법의 어렵고 미묘함을 비유로 송하기를,

"허공에 그려 놓은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으매 분별커나 보기가 매우 어려워 / 수행이 오래잖고 지혜가 얕아 의식(意識)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어 이 법 듣고 의심하면 악도에 타락 그들이 불쌍하여 해석 않노라.

바닷물과 겁화중(劫火中)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듣자 올 수 있으려니와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는 영원히 이런 이치 듣지 못하리."

## 어떤 기쁨이 깨달음만 하랴

### 간절한 청법 · 확고한 믿음있어야 득도

두 번째 게송을 잠시 보자. 〈대혜서장〉의 그 유명한 답증개장(答曾開狀)에서 서간법문으로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제자가 스승에게 멱살을 잡히고 내동댕이쳐지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소개한 게송이다. 이에 비춰 오늘날 우리들은 불법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어떠한지 되돌아 볼 일이다. 간절한 청법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득도(得道)의 길은 열리는 것이니,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깨달음의 기쁨은 가장 뛰어나고 오래가는 것이니까 말이다. 간절한 청법 자세를 보여주는 다음의 게송을 보자.

"들으려는 마음이 금강과 같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 깊이 믿으며 마음 자리 아는 데 〈내〉가 없어야 이렇게 수승한 법 능히 듣나니."

이처럼 중생의 근기에 맞는 성불에의 욕구를 끌어내기 위하여 다섯 번의 청법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리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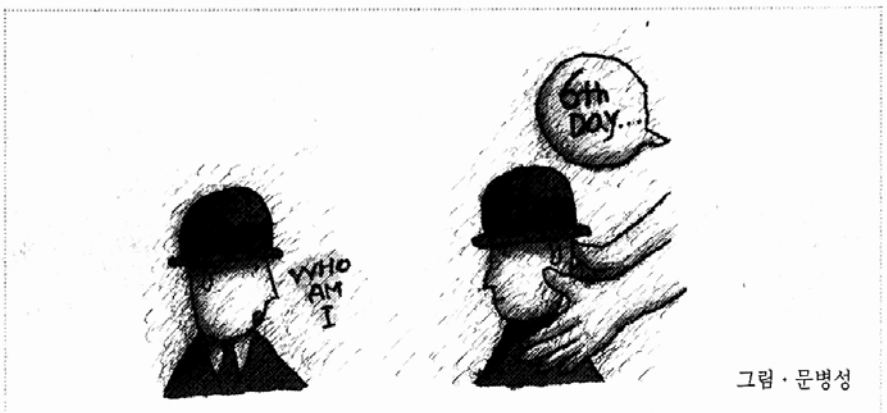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유전공학 성과 善과 惡

## 불교와 과학 〈38〉

192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유색인종과 빈민 유럽인들이 폭증하자 미국 정부는 앵글로-색슨계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를 노골화하면서, 우생학적 차별을 전제로 한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민제한법 시대 이전인 1911년에서 1931년까지 미국은 30개 주에서 정신박약인의 강제불임이 법제화되어 있었다. 이런 악법은 60년대 들어와 대부분 주에서 폐기되었으나 버지니아 주에서는 70년대까지 강제 불임시술이 강행됐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정신박약인들이 강제 불임시술의 희생자가 되었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그러했고 스웨덴에서는 그 수가 6만 명에 이르렀으며, 악명 높았던 독일은 40만 명 이상을 강제 불임시켰고 나중에 그 대부분을 학살하기까지 했다.

### 우생학적 차별

**미물인 지렁이 토양 정화하듯**
**좋고 나쁜건 인간 중심의 발상**
**'배제' 아닌 '공존'의 생태학 절실**

1997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인간복제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과학 신봉자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었다. 체세포 복제란 기존의 육종학자들이 해 왔던 생식세포 복제와 달리 손오공의 머리 한 올을 입김으로 불어서 동일한 손오공을 수없이 만든다는 이야기와 원리적으로는 같다. 이런 유전공학의 성과는 결국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극단적인 자아 정체성의 철학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에 앞서 사회적 책임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가 실용화 단계에서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다. 과거 우생학이 가져다준 사회윤리의 괴멸은 기본적으로 생식세포의 변형을 통한 과학의 무책임성에 있었지만, 이제 체세포의 인위적인 교체를 시도하는 유전공학의 미래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생명윤리의 괴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32만개의 염기서열 구조의 암호를 하나 하나씩 풀어가면서 불치의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생각하면 분명히 유전공학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온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러한 과학적 성과들이 순수한 목적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목적으로 오용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그래서 인간복제 혹은 신 괴물 창조의 이종간 교배와 같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현대 유전공학의 결과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적 성과들이 상업주의의 농락에 오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벌써 유전자 암호 해독 연구를 전담하는 대규모 사기업이 나왔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돈 받고 팔고 사는 행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문에서 볼 수 있다.

유전공학의 성과들이 현실에 응용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너무 확연하게, 그리고 너무 인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논에 난 피는 벼에는 나쁘지만 전체 생물 생태계에서는 피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논의 피는 전체 생태계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인간의 가치기준으로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서구사에서 보았듯이, 특정 집단의 배타적 우월의식에서 좋고 나쁨의 가치평가를 내림으로써 우생학적 편견을 낳은 것과 같은 인간사회의 역사적 모순들이 반복될 수 있는 과학적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새끼 돼지 저금통의 역사는 미국 캔사스 주에 살았던 한 어린아이가 어떤 한센병(나병) 환자를 위해 작은 동전을 모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나치가 혹독하게 다룬 정신박약인이나 한센병 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우생학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감으로써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갖게 하는, 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조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

똥은 더럽지만 땅을 기름지게 하며, 구름은 어둡지만 생명의 비를 내려준다. 곰팡이는 균을 퍼트리지만 모든 것을 썩혀 깨끗하게 해준다. 지렁이는 징그럽지만 증금속을 분해하여 흙을 살아나게 한다. 양귀비꽃은 그렇게 매혹적이지만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킨다. 산소가 없다면 숨을 못 쉬어 곧 죽게 되지만 그 산소가 바로 세포의 노화를 가져다 준다. 잡초라고 해서 다 뽑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밥상 위의 맛깔 나는 쓰바귀와 쇠비름이었다. 오존이 대기권에 있으면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생명의 차양막이 되지만, 그것이 땅 근처에 있으면 치명적인 광화학 산화제 오염물질이 된다. 사랑니도 다 있을 만하니까 있는 것이고, 뱃속의 대장균도 다 있을 만하니까 있는 것이다.

좋고 나쁘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 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배제의 우생학'이 아니라 '공존의 생태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전부 불교의 이야기를 대신 한 것 같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 세계 축구장 누비며 "고국에 자유" 호소

### 지구촌 불교 / 티베트 축구대표팀

'자유 티베트'를 실현하려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노력은 정치, 문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1일 덴마크 코펜하겐 교외에 있는 반로세(Vanlose) 스타디움에서 티베트와 그린란드(Greenland) 대표팀간의 축구 경기가 열렸다.

티베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니브란트(M. Nbrandt) 감독의 1년 남짓한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이번 경기는, 4천여 유럽인들이 스타디움을 가득 매울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은 티베트와 그린란드의 국기를 흔들며 '가자! 티베트로(Go Tibet)'라는 구호와 함께 티베트 대표팀에게 갈채를 보내며, 독립을 위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티베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98년 팀 창단 때부터 감독을 맡아 온 니브란트 감독은 "이번 경기에는 티베트가 중국 정부의 방해와 FIFA의 무관심을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며 "특히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의 집요한 압력에 굴하지 않은 덴마크 정부의 용단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중국 대사는 덴마크 수상 라스무센(P. N. Rasmussen)과 축구협회장 한센(J. S. Hansen) 등을 번갈아 만나며 "티베트는 중국의 한 자치구에 불과하고, 티베트 축구팀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집단"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들과의 경기는 덴마크와 중국의 관계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란드와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는 티베트 축구 선수들.

### 98년 인도 · 유럽 난민 26명 주축 창단
### 中 방해 · FIFA 무관심 속 90여회 경기

또한 FIFA는 "정치적 문제에 스포츠 기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해, 덴마크 정부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경기를 주관한 덴마크 축구협회가 국제적 파장을 우려해 두 팀의 국기 게양을 생략한 채 국가(國歌)만을 연주했다는 것은, 덴마크와 중국 정부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경기는 그린란드의 4대1 승리로 끝났다. 티베트 대표팀은 전반 11분 포워드 노르부(R. Norboo)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이후 그린란드의 골잡이 플라이쇼(K. Polaishow) 등에게 4골을 내주는 등 큰 기량차를 드러내며 완패했다.

98년 인도, 네팔, 유럽 등지에서 살고 있는 26명의 티베트 난민을 주축으로 창립된 티베트 대표팀은 99년 이탈리아에서 첫 경기를 가진 이래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국제 경기를 가졌다. 이번 대회 이후 티베트 대표팀은 득일, 프랑스, 스위스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고 미국과 대만, 말레이시아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창단 멤버인 티베트 공격수 다르갈(T. Dargal)은 "우리는 승패를 떠나 티베트 국민과 독립을 위해 뛴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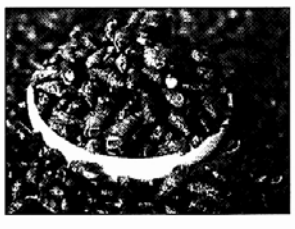
# 다슬기

산약초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0시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빛의 생명에너지」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성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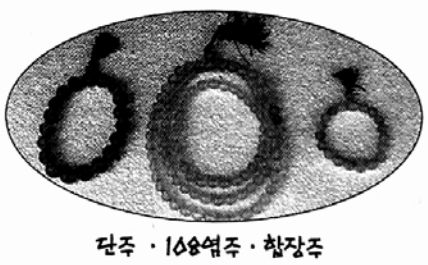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불교세계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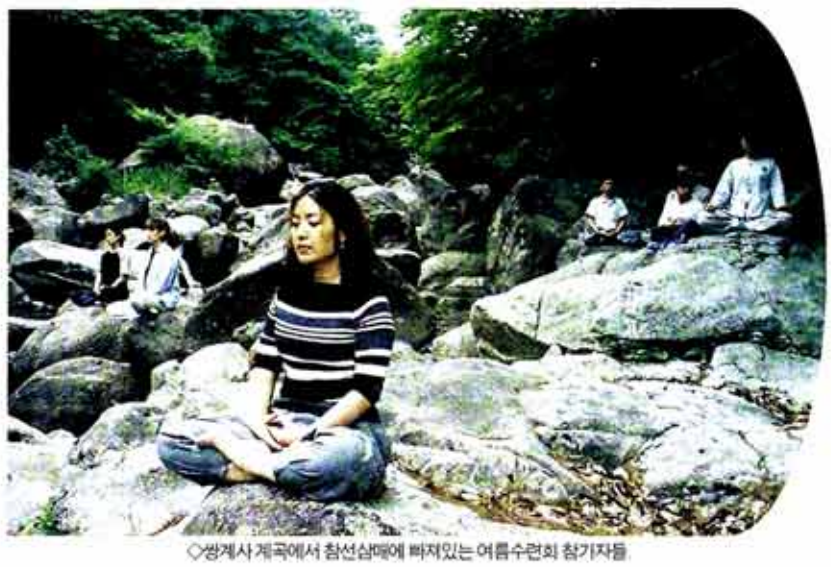





◇노인복지관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드릴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 불자여름휴가 5選

여름산사 수련
불교문화 공부
불우이웃 돕기
사찰로의 여행
경전독송·사경



◇쌍계사 계곡에서 참선삼매에 빠져있는 여름수련회 참가자들

# 몸으로 불법 실천…마음으로 재발심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의 학기중 방학 등 사계절 휴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명 관광지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교통난에 시달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휴가 유형이 자리잡아 가고있다.

휴가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휴가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유명 관광지에 몰리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재충전은 커녕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기 일쑤였다.

올 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를 찾는 것도 좋지만, 한번쯤은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듯 싶다. 잠시 눈을 돌려보면 산사여름수련회, 가족문화 체험교실, 사찰순례, 봉사활동, 경전독송과 사경 등 산심도 다지고 재충전도 할 수 있는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다.

### ▲산사 여름수련회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사찰에서는 매년 여름수련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경쟁률이 2~3대 1을 웃도는 삼보사찰의 수련회는 현재 거의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대다수 사찰에서 8월 중순까지 사찰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어 선택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사찰의 여름수련회는 새벽 3~4시부터 밤 11시까지 예불 · 참선 · 발우공양 · 경전강독 · 1080배 · 교리강좌 · 울력 등 철집에서의 수행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짧게는 3박4일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이어져 휴가와 맞추기에는 제격이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수련(화성 용주사), 산모의 태교명상(대구 파계사), 선무도 수련(경주 골굴사), 티베트 수행법 체험(보성 대원사), 청소년 캠프(보령 세원사)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들도 많다. 또 합천 해인사, 해남 대둔사, 부산 범어사는 유경험자 수련회를 별도로 마련해 깊이 있는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여름 휴가때 송광사 수련회에 참가했다는 김성준(43, 한빛은행) 씨는 "묵언 등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진행된 수련회에 적응을 못해 처음에는 후회도 했었지만 마지막날 1080배를 하고 난 뒤 솟구쳐 오르는 환희심을 맛보고는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었다"며 수련회 참가를 적극 권한다.

### ▲불교문화체험

여름 방학을 맞아 열리는 성보박물관의 특별 전시회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문화여행을 떠나보자. 여주 목아박물관에서는 8월말까지 '목조각 체험 교실'을 열고 있다. 관장 박찬수 씨가 직접 이론과 실습을 맡아 지도한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관회와 장승을 만들어 볼 수 있다.(031)885-9953.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요리, 가족신문 제작, 미술, 장애체험, 갯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로문화교실'을 개설한다. (02)852-0525. 8월4~5일 아산 인취사에 가면 '제8회 백련시사(白蓮時社)'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하얀 연꽃이 만발한 5백여평의 연못가에서 시낭송회, 서예와 그림전시, 헌공다례, 풍물놀이 등이 어우러진다. (041)542-6441. 강화도 무애원에서는 '도자기 실습' 교실을 마련한다. 가족단위로 참가해 도자기, 그릇, 장식품 등을 직접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032)932-5087 이외에도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목조삼존불감' 특별전과 양산 통도사 박물관의 '티베트 불교유물 특별전'도 가볼 만하다.



◇강화 선원사 성보박물관에서 주지 성원스님의 설명에 관람객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



◇<반야심경>사경에 몰두하고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이근직 경주대 강사가 감은사지 금당터에서 문무왕에 얽힌 전설을 설명하고 있다.

### ▲봉사활동

우리 주위에는 휴가를 즐기는 일조차 사치로 여길 만큼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일단 가까운 복지시설이나 병원을 찾자. 빨래에서부터 목욕, 청소, 밥하기 등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다. 이런일이 어찌 휴가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육체적 봉사 뒤에 오는 '영혼의 휴식'으로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은평노인복지관에서는 중풍노인 수발들기와 도시락배달 봉사를, 옥수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봉사, 길음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목욕서비스와 집안 청소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능인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시설 봉사캠프를, 삼전사회복지관에서는 소싹새마을 여름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사찰 수련회 신청을 놓쳐 아쉬운 불자라면 여름불교학교, 산사 수련회, 한문학당 등 여름철 내내 절집에서 이뤄지는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다. 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양간 봉사는 밥과 반찬을 만들고 이를 수련생들이 있는 방까지 나르고 간식까지 준비하는 일이다. 음식 만드는데 자신이 없다면 세탁과 청소를 하면 된다. 수련회 참가보다 봉사가 더 좋다며 아예 여름철이면 단골 출장을 가는 이들도 있다. 청정심(43)보살은 "여름불교학교에 아이들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스러워 해마다 자원봉사자로 함께 따라간다"며 "비록 직접 수련회에 참가 하지는 않지만 봉사행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신심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즐거워 한다.

### ▲사찰순례

수려한 경치를 원한다면 점의 조임이 호수와 초목으로 둘러쌓인 서산 개심사를 찾아가보자. 인근에 있는 막숭산 수덕사와 서산 마애삼존불, 간월암 등도 들러볼 만하다.

시원한 폭포가 생각나면 포항 보경사가 안성마춤이다. 경북 3경중의 하나로 일컫는 빼어난 주위 경관과 12폭포가 저마다 기이한 절벽에서 웅장하게 떨어지는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인근에는 골굴사, 기림사 등이 있다.

**주요사찰 여름수련회**

| | | |
|---|---|---|
| 조계사 | 8월12일 | (02)732~2183 |
| 해인사 | 8월5일 | (054)436~6174 |
| 법주사 | 8월13일 | (043)543~3615 |
| 동화사 | 8월19일 | (053)982~0101 |
| 화엄사 | 8월14일 | (061)782~7600 |
| 대둔사 | 8월14일 | (061)535~5775 |
| 마곡사 | 8월15일 | (041)841~6221 |
| 수덕사 | 8월12일 | (041)337~6565 |
| 선운사 | 8월15일 | (063)561~1422 |
| 봉선사 | 8월15일 | (031)527~5974 |
| 골굴사 | 수시 | (054)744~1689 |
| 봉화사 | 8월29일 | (061)337~3440 |
| 파계사 | 8월8일 | (053)984~4550 |
| 대흥사 | 8월23일 | (061)853~1755 |

**자원봉사 원하는 복지관**

| 교계단체 | 봉사내용 | 전화번호 |
|---|---|---|
| 은평노인복지관 | 중풍노인 수발 | (02)385~1351 |
| 옥수사회복지관 | 경로식당 봉사 | (02)2282~1100 |
| 장안사회복지관 | 지역주변 청소 | (02)458~6796 |
| 길음사회복지관 | 급식, 목욕, 청소 | (02)985~0161 |
| 능인사회복지관 | 장애인 수발 | (02)571~2998 |
| 삼전사회복지관 | 소싹새마을 봉사 | (02)421~6077 |
| 구로사회복지관 | 환경미화, 장애인수발 | (02)852~0522 |
| 두송사회복지관 | 우편물발송, 청소 | (051)265~9471 |

울창한 숲이 보고 싶으면 적멸보궁 오대산 상원사로 달려가자.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인근에 있는 자연학습 야영장을 이용하면 가족 나들이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지리산 계곡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하동 쌍계사와 국사암, 구례 연곡사를 답사하면 푸른 녹음과 시원한 계곡물에 더위를 잊을 수 있다. 해안가에 있는 사찰로는 정동진 등명낙가사와 양양 낙산사 화암사 등이 있다.

### ▲경전독송과 사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집밖에서 보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온가족이 모여 평소에 작심만 하고 미뤄 두었던 '경전독송'과 '사경' 공부를 해 보자.

강원에서는 학인 스님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소리내 경을 읽는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 읽는 것은 천양지차다. 〈천수경〉이나 〈금강경〉 〈법구경〉 〈아함경〉 〈화엄경〉 등 어떤 경전을 택해도 좋다. 하나의 경전을 선택해 일정 시간을 정해 마음을 다잡아 읽노라면 부처님 가르침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경구 하나를 '1자1배'의 정신으로 하나씩 정성들여 쓰는 사경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다. 휴가 기간 동안 목표를 정해 조용히 정좌한 후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통일 해 사경을 한다면 굳이 산사를 찾지 않더라도 번뇌와 미혹에서 벗어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20여종의 사경집을 사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go@buddhapa.com



정세채와 떠나는

## 선·식·기·행

### 마박된장무침



세종은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한 팔수증과 건망증에 시달렸다. 어의들이 백방으로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특별식을 올리기로 했다. 어의의 요청을 받은 사선관(임금의 보양(保養)을 관장하는 관리)이 흰수탉과 노란암탉, 그리고 양고기를 푹 고아 올리자 세종은 사선관을 크게 책망했다.

세종의 책망에도 머리를 조아린 사선관은 읍소했다. "이 처방만이 전하의 병을 다스릴 수 있나이다." "내 몸의 치료법은 따로 있느니, 초가 지붕 위에 열려 있는 박나물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선 박나물을 많이 먹어야 중풍을 예방하고 총명한 대군이 된다고 하셨느니라." 귀한 음식을 마다한 세종은 박으로 된 음식을 먹고 병증을 호전시켰다.

"대비마마의 병환은 내가 잘 안다. 문경사의 들과 밭에 박을 많이 심도록 하여 어머님 치료에 보탬이 되게 하라."

문경사에는 조선 말기까지 박밭이 있었고, 좋은 박을 골라 왕실에 공출하였다고 전해진다. 본래 박은 혈전을 막아주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혈압의 변화와 심장 이상으로 오는 혈관혈행의 장애를 제거하며 과다출혈을 막아준다. 노이로제와 건망증, 치매증상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저자

### 노이로제 · 건망증에 효과

효심이 깊은 세종은 어머니 원경왕후(세종대왕의 어머니)가 요양 중이던 경기도 양주군의 문경사를 자주 찾았다. 아들인 자신이 일국의 왕이 되었건만,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역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신원을 회복시켜주지 못함을 늘 안타까워했다. 창졸지간에 친정식구를 모두 잃은 어머니 원경왕후의 충격과 분노는 깊은 병을 만들었고 치료마저 불가능했다. "어머님께서 하루빨리 병석을 털고 일어나셔야 할 텐데…," 원경왕후는 신체마비와 기억력 상실로 돌아가셨다.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마, 박, 된장, 참깨가루, 함초가루, 참기름

**요리법** ① 박의 껍질과 씨를 숟가락으로 긁어낸 다음 적당히 썬다. 말린 박을 사용할 경우,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린다. ② 박은 소금을 넣고 끓인 물에서 살짝 데치거나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짜둔다. ③ 마는 채 썰어두고 된장에 참깨가루, 함초가루, 참기름을 넣어 부드럽게 개어둔다. ④ 오이 무치듯 준비한 된장 양념을 골고루 무쳐서 접시에 담아낸다.

**효능** 혈액과 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중풍을 예방한다.



##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나옹 왕사의 '無聞'

나옹 왕사의 이름은 원혜(元慧), 법명은 혜근(慧勤), 법호는 나옹(懶翁), 속성은 아(牙)씨, 평생 주석하신 당(堂)은 강월헌(江月軒)이다.

왕사는 나이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무상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하고 묻고 다녔다.

하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대답했다. 마음의 답답함을 풀길이 없자 공덕산 묘적암에 주석하고 계신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출가했다.

요연 선사는 물었다. "무엇 때문에 중이 되려 하느냐?." 이에 왕사는 "삼계(三界)를 뛰어넘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고 말하자 요연 선사는 출가를 허락했다. 그 뒤 왕사는 운수납자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25세 때 회암사로 들어가 용맹정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스님 석옹화상(石翁和尙)이 승당에 내려와 선상을 치면서 "대중은 이 소리를 듣는가"라고 크게 소리를 쳤다. 아무도 이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사는 홀연히 방에서 일어나 대답하였다. "선불장 안에 앉아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라(選佛場中坐惺惺着眼看), 보고 듣는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요 원래 그것은 옛 주인이다(見聞非他物 元是舊主人)."

용맹정진 4년 왕사께서 29세 때 겨울, 눈이 쌓인 뜰을 거닐다가 때 이른 매화꽃(梅花)을 보고 대오(大悟)하셨다.

무문(無聞)

眼耳元來自沒蹤(안이원래자몰종)
箇中誰得悟圓通(개중수득오원통)
空非相處蘇身轉(공비상처번신전)
犬吠驢鳴盡豁通(견폐노명진활통)
눈과 귀는 원래 자취가 없거늘,
누가 그 가운데서 원만히 깨칠 것인가.
텅 비어 형상 없는 곳에서 몸을 굴리면,
개 짖음과 나귀 울음이 모두 도(道)를 깨침이네.

이후 왕사께서는 중국 연도(燕都)에 들어가 법원사(法源寺)에 주석하고 있는 지공 선사(指空禪師)를 찾았다. 지공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그대를 여기 오라하던가." "고려에서 혜근이 스스로 왔습니다." 지공은 허락했다. 이후 왕사는 지공 문하에서 수참(修參)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공은 왕사에게 "하늘의 해와 땅의 조사를 모두 다 쳐부수어, 그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무엇인가" 물었다. 왕사는 "안팎이 다 붉다"면서 대각(大覺)을 이루게 되었다. 왕사의 입에서 금구(金口 : 부처님의 입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황금이나 금강에 비유한 말)가 흘러 나왔다.

대원(大圓)

包塞虛空絶影形(포색허공절영형)
能含萬像體常淸(능함만상체상청)
目前眞景誰能量(목전진경수능량)
雲卷靑天秋月明(운권청천추월명)
허공을 꽉 싸안은 그 모습 뛰어나,
온갖 형상 머금었어도 몸은 항상 깨끗하다.

## 눈과 귀는 원래 자취가 없거늘
## 누가 원만히 깨칠 것인가

눈앞의 참 경개(景槪)를 누가 능히 헤아리니,
구름 걷힌 푸른 하늘에 가을 달은 밝아라.

이와 같이 왕사의 대기대용(大機大用)적 선(禪)은 화두에만 전몰(全沒)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통하여 성성(惺惺)해지므로 개오(開悟)됨을 말씀하였다.

또한 왕사께서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 염불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염불을 미타일념으로 담연(湛然)적 청정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삼악도를 벗어나는 정각의 지름길로 보았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별개로 인정하지 않고 선가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정토 자체를 마음에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사께서는 이론에 치중하여 관념적 성격이 강한 화엄의 법계연기사상(法界緣起思想)을 실천적 행동적으로 개혁 성성심(惺惺心)적 개오(開悟)인 시심마(是甚麼) 선(禪)으로 발전시켰다.

왕사의 대기대용의 시심마 선은 오늘날에도 크게 활용되고 선원의 청풍이 되고 있다. 왕사께서는 회암사에서 고려 우왕 3년(1377)에 입적하였다.

## 가까이서 뵌 큰스님

# 인 허 스 님

오대산 월정사 회주

# "지금 하는 일 가벼이 말라"

"국내의 명산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요, 불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소재한 오대산(五臺山). 일연스님이 〈삼국유사〉에서 기록한 것처럼 신불(神佛)이 깃들어 있는 한민족의 성스러운 영지인 오대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월정사가 마음의 쉼터를 마련해 준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창건 유래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643년(신라 선덕여왕 12)에 오대산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절터에 초암(草庵)을 짓고 머물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문수보살의 상주처인 성스러운 땅으로 신앙되고 있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일명 약왕보살상(藥王菩薩像)이라고도 하는 보물 제139호 석조 보살좌상(菩薩坐像)이 대웅전 앞에 살아있는 듯 좌정한(현재는 유적발굴로 이전) 이 곳에는 근대의 고승인 한암 대선사(조계종 초대종정)의 수행가풍이 오롯이 전해내려온다.

억수비가 내려 강원도 횡성지역에 물난리가 난 7월 23일, 한암스님의 제자인 월정사 회주 인허스님을 친견했다.

"스님, 건강하시지요. 스님께 법문을 청하러 왔습니다."

"법문은 무슨 법문. 난 멍텅구리야. 아는 게 없어, 그만 가뵈."

"스님, 제가 근기가 낮지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 구업 짓는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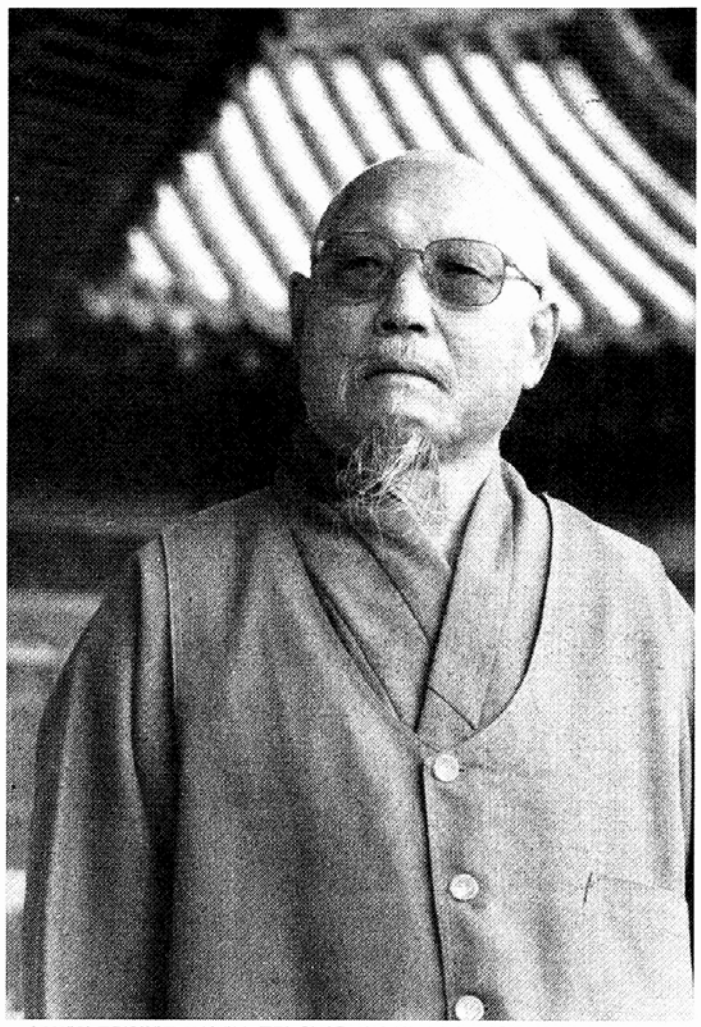
86세의 고령이신 인허스님은 점심공양을 드신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말씀을 아끼시는 스님에게서 오랜 묵언정진은 물론 겸양의 기풍이 묻어나온다.

"스님, 1983년 입적하신 탄허 스님은 스님의 속가 형님이자 스승이신 한암스님에게서 같이 공부한 사형도 되시는데 탄허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계속생인 탄허스님은 5형제 중에 둘째였고, 나는 세 살 아래였어. 14살 때까지 4서와 서경을 깨우칠 정도로 한문에 달통했지. 17세에 장가를 드셨는데, 그후 3년간 한암스님과 도(道)를 묻는 서신왕래를 한 후 22세에 출가를 했어. 그이는 좀 특별한 데가 있어서 항상 근본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어. 도 자리를 아는 사람은 눈이 멀어도 천리 만리를 본다는 거여. 소소한 것이라도 근본을 모르면 필요 없다고 말하곤 했지."

2년 뒤 탄허 스님의 뒤를 이어 출가했다는 인허스님. 스님은 스무살 초발심 당시와 형님 탄허스님을 회상하는 듯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어렵게(말귀가 다소 어두우셔서) 말문을 여셨다.

"당시 절에는 전부 대처승들 뿐이었어. 선방 다니는. 수좌들 빼고는 말이지. 일본인들이 경술년(1910년) 합방(일제강점) 때 비구승들을 대처승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때 '주지'라는 말도 생겼어. 왜놈들이 한국 불교를 망친거야. 이승만 정권 때 대처승 7,000명을 수좌 300명이 목숨을 걸고 몰아냈어. 한국 불교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비불교적인 일이 판을 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의 폐해로 볼 수 있어요."



◇86세의 고령임에도 조석예불, 독경, 참선을 쉬지 않는 인허스님은 언제나 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법문을 대신한다.

## "법문 청하러 왔습니다"
## "경전대로 실천하면 그대로가 법문이야"

오늘날 한국불교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의 뿌리를 설명하는 노스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과보'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스님, 가까이서 모신 한암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성격이 급했지만, 겸손하셨지."

"스님께선 한암스님으로부터 '이 뭣고' 화두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한암스님은 평소에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셨나요?"

"묵언(默言)인데 무슨 말을 해. 상원사 선방(청량선원)에선 오로지 묵언이었어. 밥 먹을 때만 입을 벙긋벙긋 했지. 처음에 방법만 일러주면 그만이었어. 경을 설하실 때는 '불급불완(不急不緩)'을 강조하셨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꾸준히 생각을 끊지 않고 정진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지."

한창 공부하던 시절의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는지 인허스님은 상원사 선방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를 자상히 해주신다. 특이한 점은 요즘과는 달리 경전도 강독한 것인데, 하루 일과를 요약하면 이랬다.

새벽 3시 목탁소리가 잠을 깨우고 밤 9시 반 죽비소리가 온갖 세상사를 잠재웠다. 새벽 5시가 사계절 똑같은 아침 공양시간이다. 방선 직후 흰 죽에 된장국으로 아침공양을 한다. 처음에는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더니 시간이 흐르자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요 꿀맛이다. 오가피차를 마시며 잠시 차담으로 여유를 갖다 보면 바로 금강경 강론 시간이다.

한암 조실스님의 지시에 따라 20대의 탄허스님이 맑은 목소리로 경의 한 대목을 읽는다. 곧 이어 조실 스님이 해석하고 구절대로 법문을 하신다. 그런데 당일 배운 것을 한눈 팔다가 외우지 못하면 입승을 보던 탄옹스님에게 종아리를 맞아야 한다.

사시(오전 9~11시)가 되면 문수보살님께 드리는 기도에 조실 스님은 꼭 백팔염주를 돌리신다. 오후 참선시간 전에 금강경을 외우고 써야 한다. 밤 참선공부까지 숨 한번 제대로 쉴 새 없는 짧은 시간이다. 선방은 소쩍새 소리와 구름 비낀 삼왕봉에 달빛이 밀려오는 바람소리뿐 누구 하나 기침 소리 한번 내지 않는다.

한암 스님이 조실로 있던 상원사 선원의 가풍은 엄격한 청규 정신에 의해 규율을


#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의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청정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인허스님은?

## 후학제접 항상 겸손
## '오대산의 자비보살'



같은 한암 문도(門徒)의 사형이자 속가 형이기도 한 탄허 스님과 함께 한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인허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큰 산맥인 한암·탄허 두 스님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한암 대선사의 선지(禪旨)와 당대의 대강백이자 학승인 탄허 스님의 교학을 가까이서 심득한 인허 스님은 두 선사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정진을 닦았다.

1916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스님은 탄허 스님이 출가한 2년 뒤인 36년 상원사로 입산, 39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39년 월정사 강원을 수료한 뒤 45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51년 한암 스님이 열반할 때까지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정진했다.

83년 탄허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 그늘에서 묵묵히 참선, 독경, 염불의 정진을 계속해 온 인허 스님은 95년 한암문도회 대표로 추대되었으며, 96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돼 후학 양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예불에 이은 독경, 참선을 멈추지 않는 인허스님은 항상 겸손하고 온화한 자세로 후학들을 제접, 오대산의 자비보살로 일컬어진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틈틈이 경전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점심 공양 후 차담 시간에 한암스님은 조사어록을 들고 나와 계속 법문을 했다 하니, 한국불교의 으랜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전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선(禪)에서 언어와 경전을 배타시한 것은 언어와 경전의 껍데기를 버리라는 말이지, 그 알맹이를 버리라는 게 아냐."

인허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암 스님이 〈금강경오가해〉와 〈보조법어〉를 현토(懸吐), 편집하여 간행하고 제자인 탄허스님에게 〈신화엄경합론〉을 한글로 번역토록 당부한 깊은 뜻을 알 것 같다. 인허 스님의 선교겸수에 대한 생각은 무수한 역대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던 탄허스님의 뜻과 다름이 없었다.

"선은 돈교(頓敎)요, 교는 점교(漸敎)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하나였지만 바다를 못보고, 냇물과 강물을 조금 본 것으로 무수한 주장이 생겨났어. 참선, 간경, 염불은 구경(究竟)은 똑 같다."

인허 스님은 참선은 상근기, 간경은 중근기, 염불은 하근기가 하는 방편이지만 드달점은 같다고 말한다. 참선은 새마을호, 간경은 무궁화호, 염불은 비둘기 호여서 도착 시간은 다르지만 종착역은 모두 서울역이라는 것.

인허 스님은 이처럼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 업장 소멸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업장이 두터워 근기에 둔탁(鈍濁)이 있더라도 염불 지송과 기도로 내생에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또한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참다운 참회가 전제돼야 한다며 인허 스님은 천수경의 '참회게(懺悔偈)'를 외우셨다.

"백겁 천겁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불 태운 듯 흔적조차 없어지다.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따라 일어난 것 마음 한번 없애보니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도 업도 없어지고 마음까지 비워지니 이것이 다름 아닌 참뉘우침 자리로다."

어느 때를 정해놓고 용맹정진 하는 것은 상기병(上氣病)을 일으키기에 찬성하지 않고 평소의 꾸준한 정진을 강조했다는 한암스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인허 스님. 쉼 없이 산길을 걷다보면 정상에 오르듯이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음을 웅변하신다.

도(道) 자리는 재미도 없고 화두 역시 맛이 없지만 무심히 정진하다 보면 무색 무취 무미의 도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인허 스님은 이를 '지음(知音)'의 경지로 표현했다.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음'. 도의 본체에 다가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는 언설로는 말할 수 없기에 '구업 짓지 말라' 고만 하신다.

"젊어서 업장 소멸하고 참선해야 해. 참선도 하고 경도 읽고 염불도 하며 계정혜를 닦아야 해. 알지 못하고서 법문해선 안돼. 말을 잘못 해도 구업(口業)이지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구업이야."

인허 스님이 말씀을 아끼신 까닭을 이제야 할 것 같다. 증자가 말했듯이 도는 '하나로 꿰뚫는 것(一以貫之)'. 도에 가까우면 말이 적어지는 이유이리라. 스님은 법문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에 법문이 다 들어 있어. 경전대로 실천하면 그게 법문이야."



◇항상 온화하게 후학을 제접하는 인허스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월정사 하안거 결제식 후 제자들과 기념촬영한 장면.

실천이 참다운 법문임을 설하는 인허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다. 착각 도인, 큰스님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된 법문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알 듯하다. 후학들을 위해 올바른 수행의 자세를 일러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외는 구업일 뿐이지."

최근 수행기풍이 날로 흐트러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방 풍조에 대해 경책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스님은 한참 묵묵부답하시더니, 이윽고 하시는 말씀이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야. 옛날과 지금은 근기가 달라."

그랬다. 스님이 수행하시던 50~60년전과 지금은 천양지차였다. 절간의 방사마다 화장실과 욕실이 들어서고,

"말 잘못해도 구업
남이 못알아들으면
그것도 구업"

먹을 것은 풍족해졌다. 그러나 치열한 정진력은 희미해 지고, 어른을 존중하는 미풍양속마저 사라지고 있다. 절마다 큰 부처님, 큰 법당을 만드는 대작불사를 일으키지만 도인을 배출하는 참된 불사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란 게 스님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사회가 금수세상으로 갈수록 부처님 도량만은 중생들의 의지처와 삶의 올바른 지향점을 일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게야."

인허 스님은 고령이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신도들과 수좌들을 기꺼이 맞으며 가르침을 펴신다. 스님은 늘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하시는데 고해에 빠져 있음에도 날로 허우적거리는 중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리라. (이 때 한 비구니 스님과 보살이 스님을 친견하러 와 잠시 대화가 중단됐다. 안부인사를 받은 후 스님은 하던 말씀을 계속했다.)

"개벽과 같은 대전환이 필요해. 총과 칼이 사라지고 신명(神明)이 악인을 벌하는 그런 시대가 오려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그럴려면 부디 바르게 살아야지. 대장부로서 뜻을 세워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를 해결하려면, 헛되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지."

다시 한번 출·재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을 청하자 인허 스님은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에 수록된 한산시를 기억을 되살려 외우시며 옛 선사들의 각고(刻苦) 정진(精進)을 따르라고 하신다.

男兒大丈夫 作事莫莽勞(남아대장부 작사막망노)
勤挺鐵石心 直取菩提路(경연철석심 직취보리로)
邪路不用行 行之枉辛苦(사로불용행 행지왕신고)
不要求佛果 識取心王主(불요구불과 식취심왕주)

사내 대장부들이여! 하는 일을 가벼이 말라!
철석 같은 마음 굳게 세워, 곧바로 보리의 길로 ...
사특한 길을 걷지 말라! 그 길엔 고통 뿐이리.
굳이 불과(佛果)를 구하려 말고, 마음의 주인을 깨달아라.

오직 대도(大道)의 길, 보리(菩提)의 길을 향하여 정진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간곡한 법문. 결과와 목적에 대한 집착으로 불과(佛果)를 구하지 말라는 경책이 하산 길 내내 여운으로 남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진스님의
## 스님이야기
상법스님



나는 자장면을 먹을 때마다 상법스님이 떠오른다. 그와 얽힌 일화 한 토막이 지금까지 풋풋한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인 때는 김치 한 조각도 맛있는 그런 시절이다. 그래서 국수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은 별식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울력이 많았던 초년 학인들 에게는 차담이 모자랄 때가 더러 있었다.

그 시절 상법스님과 나는 휴식 시간을 틈타 자장면을 먹기 위해 사하촌(寺下村)으로 몰래 내려가곤 했다. 무슨 작전을 감행하듯 은밀하게 치르는 우리들만의 스릴과 재미가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상강례(일종의 조례 같은 것)시간에 상법스님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이 일이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 상법스님은 해인사 안내소임이었고, 윗반스님을 모시고 있던 아랫반이었는데 전날에 자장면을 먹으면서 양파를 너무 많이 먹은 게 탈이었던 모양이다. 자극적인 양파 냄새 때문에 한 방에서 지내던 윗반 스님에게 들키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상강례 시간에 상법스님의 허물이 대중적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 때 나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분명 상법스님과 행동을 같이 했던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법스님이 "어

### 새벽예불후 항상 뒷산 올라
### 스스로 약속 엄격한 수행자

제 행동은 저 혼자 하였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일로 인해 상법스님은 법당에서 일주일간 3000배 참회를 하였다. 그 날 당당하게 일어나서 허물을 대중에게 밝히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이 점이 지금까지 그에게 남아 있는 마음의 빚이다.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리 자장면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합천읍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몇 그릇 후딱 비우고 돌아오는 날은, 음식값보다 택시 요금이 몇 곱절 많이 든다. 그래도 그 일을 즐겨 했던 것은 자장면 한 그릇의 맛보다는, 통제된 병영에서 벗어나는 병졸들의 그런 기분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은 지리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법스님을 보게 되면 운동 선수를 만나는 것처럼 건강하고 단단함이 느껴진다. 산을 오를 때나 공을 찰 때는 마치 20대 청년처럼 기운이 넘치고 체조를 할 때는 선수 못지 않게 유연한 동작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그의 체력은 운동을 좋아하는 타고난 성품 때문이다. 그래서 못하는 종목이 별로 없다. 검도와 태극권은 사범을 할 만큼의 실력이고 요가와 선 체조도 강사급이다.

특히 그는 등산을 즐겨 한다. 전문 산악인들도 상법 스님의 산 타는 실력에 놀란다. 지리산을 앞산처럼 누비고 다닐 정도로 그의 트레킹은 프로 수준이다. 아마 출가하지 않았다면 분명 운동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운동은 수행자의 공부와 닮아 있다. 운동할 때의 집중력과 지구력은 화두 공부의 생리와 비슷하다. 운동으로 따진다면 수행 역시 장거리 코스에 가깝다. 그래서 상법스님은 운동을 수행 길의 공부 법으로 운용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가 함부로 주먹질하거나 힘 자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힘을 이용해 만용을 부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이 수행자라는 사실을 잊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무인처럼 상법스님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법 스님에 견주어 보면 나는 정말 무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해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스님들이 많다. 본사로서는 유일하게 축구 전용 운동장을 갖추고 단오날은 산중 스님들이 축구 시합을 한다.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의 축구 실력은 절 집에서는 1등이나 다름없다. 그 실력이 소문 나서, 어느 해는 월드컵 유치



기념으로 연예인 축구단과 스님들이 축구 시합을 벌여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그 해인사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면 상법스님은 언제나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닌다. 공을 잡으면 비호처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부러운 건 마찬가지다.

한 때 나는 상법 스님의 운동 일과에 동참한 적이 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절 뒷산까지 등산하는 일이었는데, 놀란 것은 이 일을 단 한번도 빼먹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의를 입고, 눈이 오는 날에는 아이젠을 신발에 붙이고 산을 올랐다. 더러 쉬고 싶거나 늑장을 부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일이었다. 그 당시 그는 정말 지독한 교관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에게서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고칠 수 있었다. 자기 질서에 엄격하지 못하면 수행의 일상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배웠다. 든든한 둑도 손가락 만한 구멍이 무너지게 하듯이 마음의 틈도 작은 게으름에서 생긴다는 법문을 몸소 일러준 것이다. 내 몸이 한없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가 살고 있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꿈을 꾼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7,8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먼저,
팔만대장경부터 파(破)하라!
- 권두칼럼 -

"절복(折伏)의 칼을 들어야 할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기고 I 해인사 청동대불의 막전막후
기획연재 유럽의 참여불교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종교와 세금, 관계정립의 새로운 대안모색
특별기고 II 한국불교, 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
언론에 비친 불교
'중진승려 강남 유흥장 출입사건' 무엇을 남겼나
만남 논산 쌍계사를 가꾸는 사람들
이 책을 말한다 승락시바라사 지음 '평화의 씨앗'
교계 초점 달라이 라마 2001 방한 왜 무산됐나
기획취재 한국불교 속의 해외원조단체들을 찾아서

중진급 스님들의 고급 유흥장 출입, 범어사 소속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들에 이어 이번엔 가야산이 과문의 진원지가 돼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마지막 희망일 지도 모를 해인사가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더없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돌이켜볼 것도 없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재가불자들의 책임이 수미산처럼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급급하여 응당 절복(折伏)의 칼을 들어야 할 때 '내 식구 감싸기'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여 이제부터는 불법에 의지하여 오직 과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텔레비전 뉴스는 어느 사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 특집
- 교단운영의 기본윤리,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가
- 불교교단의 재정운영 청규를 위하여
- [좌담] 교단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정기구독신청 02-725-6231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2001년 7·8월호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별책부록
불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 목록
(국내 540개, 해외 123개)



현재 활동 중인 불교 사이트들을 직접 검색하여 불교 신행 및 포교, 학술, 문화활동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제작된 불교 관련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목록





해외불교 법문 - 2001년
달라이 라마의 평화메시지
"상호 존중과 자비는 세계 평화를 향한 열쇠입니다."



특집
불교 생태운동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환경위기가 우리들 공동의 업(業)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종교계가 연대하며 대안운동으로서의 생태운동을 전개한다. 타종교계의 생태운동 현황을 통해 불교 생태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화보 - 지상중계 / 불교계 최초 인터넷 관리자 연수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포교의 전초 기지 - (가칭)불교인터넷협회 발족

What would Buddha do?
부처님은 핸들을 잡으시면 어떻게 운전하실까?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완당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시간 위에 지은 집

특별기고 / 사찰의 불사, 이제는 바꾸자
무분별한 사찰 불사를 전면 비판하고 대안 불사를 촉구한다.

기고 / 한국에서 불교와 기독교 신자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보시/신행
무주상 보시를 몸소 실천한 평양 여걸- 만덕 백선행
티끌 한 점 남김없이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 - 법련화 김부전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 세계 도자기 엑스포 10일~10월 28일 이천 · 여주 · 광주 등지서

# 80개국 2천여점 도자기 감상

세계 도자기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흙으로 빚는 미래,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경기도 이천 · 여주 · 광주 일대에서 10일~10월 28일까지 열린다.

세계 각국의 독특한 도자문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도자기 엑스포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모두 15개의 기획전이 동시에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다.

이 전시를 위해 신석기시대의 토기, 이집트 항아리, 아프리카 원주민의 토기에서 최첨단 세라믹 도자 작품까지 모두 2200여점이 세계 80여개국에서 대륙과 바다를 건너 왔다. 이번 도자기엑스포 행사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주요 전시를 소개한다.

⊙**세계도자문명전**(이천 세계도자기센터)은 동서양의 도자역사 1만년의 거대한 흐름을 체험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도자 발달사를 비교하며 동양 도자의 지역적 특징은 물론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백자로 이행되는 양식과 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 서양부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양도자 발달사를 조명하고 동서 도자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고궁박물원,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의 명품 340여점이 전시된다.

⊙**세계도자비엔날레**(이천 세계도자기센터)는 도자기에 대한 통념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전시다. 총 293점의 수상작이 전시되는데, 거대한 원통형의 조각작품 같은 대상 수상작을 비롯, 무게 500kg이 넘는 초대형 작품까지 현대 도자예술품들의 향방을 가늠하게 한다.

⊙**조선도공후예전**(광주 조선관요박물관)에는 심수관가(家) 등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도공 후예 여섯 가문의 작품을 통해 일본에서 우리 도자기 문화가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보여준다. 400여년을 이어온 조선 도공의 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옹기전**(여주생활도자관) 대표적인 전통 생활용기로서 한국 특유의 서민적 정서를 드러내는 옹기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장독대가 지닌 한국적 풍경을 예술적으로 수용한 이 전시는 우리 장독 문화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세계도자디자인전**(여주 생활도자관)은 국내 업체와 영국의 웨지우드, 헝가리의 헤렌드, 일본의 노리다케 등 해외유명 생활도자기 업체의 최신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첨단세라믹전**(광주 행사장) 생활용품부터 첨단 과학분야의 신소재로서 광통신 및 우주항공 전자공학 바이오세라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세라믹의 놀라운 세계를 조명한다. 생활분야, 정보통신분야, 의료 보건 환경분야, 교통분야, 산업분야, 에너지 분야 등 6개 부문로 나뉘어 흙이 지닌 미래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자투각 칠보문향로.

이밖에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지않고 전통 양식을 유지해 오고 있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원주민 부족들의 독특한 토기를 보여주는 '세계원주민 토기전' 우리 나라의 도자기만 모은 '한국전통도자전' '한국현대도자전', 미국 현대도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NCECA(미국도자교육평의회)전' 등과 백남준의 도자 비디오아트 작품, 도자기타임캡슐, 도자영상 라이브러리 등의 이벤트와 조형물도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한여름 밤 문화 향연

### 만해축전

백담사, 5~8일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혼을 기리기 위한 2001년 만해축전이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열린다.

이번 만해축전에는 '축전시인학교'를 비롯, 만해스님의 독립사상과 불교의 독립운동을 되짚어보는 '독립사상 심포지엄',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이버 문명과 정체성의 위기를 주제로 '세계한민족작가연합 심포지엄', 남북문학의 이상과 현실을 살펴보는 '남북문학 심포지엄', 한시를 통해 본 만해의 자유와 평화사상을 주제로 '만해학 심포지엄'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제5회 만해상 시상식도 거행되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만해백일장과 만해시 암송대회, 참가시인들의 자작시 낭송,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한여름밤의 문화향연 '불향산곡의 메아리와 만해와 별과 물소리와 함께'가 강원작가회의의 주관으로 펼쳐진다. 또 축전기간 동안 '걸레 중광 선화전', '지혜스님 초대전', '무주스님 선화전' 등이 열린다. (033)462-6969

이은자 기자




어릴 적 절에서 만났던 동자승들의 천진한 모습과 계곡과 물 위에 번지는 잔잔한 미소. 동승의 화가 원성스님이 펴낸 새 화집 〈거울〉의 이미지다.

때로 차를 마시며, 때로는 한적한 숲속에서 명상에 잠기다가 홀짝 만행을 떠나는 다양한 동자승의 생활과 고민을 담은 신작 130여점이 스님의 이야기와 어우러진다.

스님은 오는 9월 1일~30일 [illegible]사 초청, 타이페이 전시회, 10월 1일~30일 상하이 '시립미술관 초청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 환경강좌 '인사동 생명학교'

'환경과 인간', '미술'이 만나는 이색 환경강좌가 열린다. 불교환경교육원은 9일부터 23일까지 가나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솔바람 새소리와 함께하는 한여름 인사동 생명학교'를 연다.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이번 생명학교는 환경운동과 생태에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9일 유창희 생태연구소마당 소장이 '숲과 생명 그 오묘한 조화의 세계'를, 10일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이 '꽃과 들풀의 속삭임', 16일 고려곤충연구소 김정환실장이 '곤충과 벌레들, 조회로운 질서', 17일 이기섭 경희고 교사가 '산새와 짐승들의 생태계', 23일 이학영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장이 '계곡의 물소리와 민물고기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02)587-8997

### 문화소식

## 한국 문화이미지 기획전

국립민속박물관은 9월 17일까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국의 문화이미지 기획전'을 연다.

한복, 김치, 탈춤, 한글, 불국사와 석굴암 등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10가지의 이미지를 4개의 주제로 분류해, 우리문화의 특징을 국내외에 알린다.

'한국의 멋을 거리' 부문에서는 김치와 불고기, 인삼 등 우리 음식과 특산품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한국의 미' 부문에서는 설악산의 경치와 한복의 선과 색을 선보인다. '한국의 기(技)' 편에서는 한글, 불국사와 석굴암, 태권도 등 우리의 독창적이고 빼어난 기예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전시된다. '한국의 예(藝)' 편에서는 탈춤, 종묘제례악, 백남준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예술인과 우리 예술문화에 관한 자료와 유물들이 소개된다. (02)720-3138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꿈인가 하면 꿈이 아니요 꿈이 아닌가 하면 꿈이 아닌 것 또한 아니니, 어이할꼬 중생이여. 꿈을 꾼즉 깨어나기 괴롭고 깨어난즉 꿈을 꾸기 괴롭고여." 소설의 첫 머리에 제사(題辭)로 붙어 있는 이 말처럼, 김성동의 '꿈'은 이광수의 같은 제목의 소설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광수의 소설은 또 삼국유사의 유명한 고사인 '조신몽(調信夢)'을 모티브로 하여 쓰여졌다.

신라 신문왕 때의 젊은 스님 조신은 강릉 태수 김흔 공의 딸에 반하여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낙산사의 관세음보살께 빌었으나, 그 처녀에게는 이미 배필이 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관음보살 앞에서 깜박 잠든 사이, 꿈속에서 그 처녀가 나타나 둘은 함께 도망친다. 40년을 함께 살지만 결국 생활고에 지쳐 헤어지고 마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긴 꿈이었다. 그때 조신이 깨달은 것은 〈금강경〉 사구게의 내용이었다. "온갖 유위의 법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고 물거품 같으며 이슬방울 같고 또 번갯불 같으니 중생들의 살림살이 또한 이러한 것임을 잘 관찰하여라.(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 김성동 '꿈' (4)

## 남녀문제도 소화하기 따라

구도의 길에서 마주치는 남녀간에 얽힌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신라 문무왕 때에 광덕과 엄장이 살았는데, 둘은 서로 사이좋은 친구로 지냈다. 광덕은 부인과 동침하지 않고 청신남 청신녀로 살면서 정성껏 아미타불을 염하고 십육관(十六觀)을 실천하여 마침내 서방정토로 건너갔다. 엄장은 친구가 떠난 후 친구의 부인에게 함께 살자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밤에 자면서 부인을 안으려 했더니, 부인은 광덕과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핀잔을 준다. 크게 뉘우친 엄장은 원효대사를 찾아가 정관법(淨觀法)을 지도받고 열심히 수행하여 역시 극락에 가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성덕왕 때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백월산 무등곡에 들어가 암자를 짓고 수도를 하였다. 어느 날 젊은 색시가 박박의 암자에 찾아와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다. 박박은 매정히 거절하고 처녀를 멀리 쫓아보냈다. 그녀가 이번에는 부득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부득은 여인을 따뜻이 맞이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인이 해산을 하게되자, 부득은 물을 끓여 목욕시킨다. 목욕이 끝나자 물이 금빛으로 변하는데, 그녀는 부득에게 "우리 스님도 여기서 목욕하시라!"고 권한다. 부득은 그 물에 목욕을 하고, 도를 성취하여 미륵불로 화현한다. 그 처녀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박박은 친구가 계율을 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놀려주려고 찾아가니 미륵부처님이 환한 빛을 내뿜고 계셨다. 부득은 미륵불이 일러주는 대로, 통에 남은 물에 목욕을 하고 친구를 따라 무량수부처님이 된다.

이런 설화들은, 번뇌가 곧 보리인 것처럼, 남녀문제도 소화하기에 따라 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동은 이 경계가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나갔다. 경계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계속)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btn 불교텔레비전 32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삼베,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잠깐, 한 권쯤은 …

방학에다 휴가철이다. 이런 때 책 읽기를 권한다는 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때론 농담 속에 진실이 담기는 법. 덜커덩거리는 기차 속에서 혹은 계곡 속에 발을 담근 채, 책이라는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자. 배낭 속에 넣어 갈 수 있도록 부피가 작고 부담 없이 읽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책을 골랐다. 책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 책과 함께 떠나는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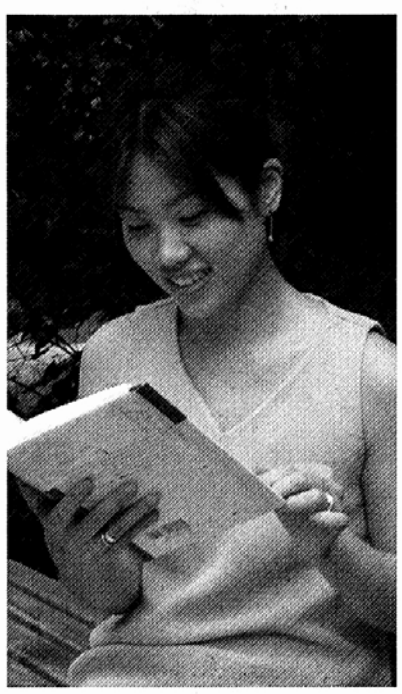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성우 · 지현 스님 엮음, 민족사, 값 3천원) : 경전 속에는 명구들이 참 많다. 〈법구경〉이나 〈숫타니파타〉 그리고 초기 경전 속에 들어 있는 명구들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금언들이다. 생활의 지침이나 삶의 교훈으로 삼아도 좋은 명구들을 경전이나 고승들의 어록 · 문집에서 까려 뽑아 엮은 이 책은, 인생-참 삶을 위하여, 수행-피안으로 가는 길 등 3개의 장으로 나눠 참된 인생을 위한 부처님 말씀 300개를 실었다.

〈선방일기〉(지허 스님 지음, 여시아문, 5천원) : 일반인들에겐 '신비의 장소'인 선방에서의 일과와 수행담이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선방에 들어가는 일부터 해제한 뒤 산사에서 내려오기까지 3개월간의 일을 담은 이 책은, 결제의식, 울력, 소임, 지대방 생활 등 선방의 생태와 풍속을 들려준다.

무학에서 대졸까지 다양한 학력과 이력을 갖춘 스님들에 얽힌 일화, 일종식(一種食: 하루 한끼 식사을 하는 스님, 장좌불와하는 스님, 3개월 내내 묵언하는 스님 등 선승들에 대한 기록도 인상적이다.

산사에서… 주옥같은 고승 법문
마음을 비우면… 달라이 라마 명상집
길 끝나는 곳에… 호젓한 산사 안내서
무서록 현대수필사의 백미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명정 스님 편역, 좋은날, 값 9천원) : 큰스님들이 보낸 편지 모음. "가을 바람이 편했던 서책의 갈피를 넘깁니다. 문밖에는 낙엽지는 소리가 사락사락 귓가를 간지럽게 합니다. 만행 끝에 머문 해인사 문지방에는 가을이 때늦은 봇짐을 풀어놓고 나를 유혹하는 듯 합니다." 고봉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삼독번뇌'를 비롯하여 110여 편의 편지글을 엮었다.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정찬주 지음. 해들누리, 값 8천원) : 전국의 암자 순례기와 명상글을 한데 모은 산문집. 안개도 쉬어 간다는 고흥 거금도 송광암, 안동 천등산 국사암, 하동 지리산의 국사암 등의 암자 순례기와 '마음의 바리 때', '삿됨을 씻는 마음, 소나무 이야기' 등 마음을 맑혀주는 명상 글을 담았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달라이 라마 지음, 공경희 옮김, 문이당, 값 7천원)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의 명상록.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사상 · 종교의 대립,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밝고 맑은 마음과 참 지혜로 해결할 것을 들려준다. 책의 원제는 '평온으로 가는 길-매일의 명상'으로 하루에 한편씩 읽고 명상할 수 있도록 365개의 짧은 단상들이 일기 형식으로 묶여져 있다.



〈유배지에서 온 편지〉(정약용 지음, 박석무 역음, 창작과비평사, 값 8천원) : 조선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이 유배생활 중에 아들과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서한집. 1801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6편을 비롯해 모두 52편의 글을 수록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간곡한 어조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무서록〉(이태준 지음, 범우사, 값 6천원) : 한국 현대 수필사를 기록할 때 절대 빠뜨려서는 안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태준의 수필집. '벽', '물', '역사',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등 한글 문장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는 수필 42편이 실려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예수 청년시절 인도 - 네팔 등 순례

## '성경엔 없다' · 고준환 교수 지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의 시작이며 중심이긴 하지만, 예수 자신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다만 한 가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아니며, 예수를 통해서만 기독교가 탄생하지는 않았다." (칼 야스퍼스).

예수 존재가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담론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심지어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와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도신경에 있는 동정녀 탄생과 육체부활은 예수의 사상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고준환(경기대 법학과) 교수 쓴 〈성경엔 없다〉(불지사)가 눈에 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책은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재조명하고, 그리스도교의 개괄적 역사와 문제점 등을 밝힌 연구서다. 8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문헌만으로도 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지은이는 지금 전승되고 있는 성경은 물론 성경에는 없는 많은 문헌 자료들을 참고해, 예수의 탄생 · 결혼 · 인도 순례 · 십자가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다. 이 가운데 지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12세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의 18년 동안의 행적이 현재의 그리스도교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 기간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 붓다와의 만남 등 추적
### 잃어버린 12~30세 조명

책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인도 · 네팔 · 티베트 · 이집트 등 7개국을 다니며 불교 · 브라만교 · 조로아스터교 · 헬레니즘 · 헤브라이즘을 공부하였다고 밝힌다. 카필라성 · 베나레스 · 라다크 등에 머무르면서는 불경을 연구해 성현으로 존경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지은이는 예수가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임사체험으로 연출한 십자가 사건에서 소생한 후 다시 살아나 카시미르 안지말에 묻힐 때까지 인도 여러 지역에서 가르



침을 펴 이사(Issa) · 유즈 아사프(Yuz Asaf) 대사나 보디사트바(보살)로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지은이는 먼저 예수의 잃어버린 18년을 살펴보고, 예수 탄생의 미스터리(생부는 누구인가), 예수의 어린시절, 예수의 결혼과 가족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붓다의 만남, 그리스도교와 한국의 미래 등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역사의 진실을 위해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던 베일을 하나씩 벗겨나간다. 그렇다고 이 책이 기독교 흠집내기는 결코 아니다. 왜곡된 그리스도교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는 것, 다시말해 종교적 배타성을 제거해 21세기 상생의 종교평화시대를 열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수행 외길 비구니 33명 평전

## '깨달음의 꽃2' 하춘생 지음



한국불교사에 있어 비구니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불교전래 이후 여성성불 불가론을 내세워 깨침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가 하면, 비구니팔경계(比丘尼八警戒)로 비구니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사에는 덕망 높은 여러 비구니들이 수행과 불법홍포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한국불교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고 잊고 지내왔을 뿐이다.

신간 〈깨달음의 꽃 2〉(여래)는 끝없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묵묵히 수행에 전념한 비구니 스님들의 행장을 발굴한 '한국불교 비구니 평전'이다. 지난 98년 출간한 〈깨달음의 꽃〉 후속 편으로, 지은이는 주간불교신문 하춘생 기자. 그가 10여 년 동안 발품을 팔아 쓴 이 두 권에 담은 근세의 대표적 비구니 스님은 모두 33명으로 그들의 전법과 수행 그리고 가람수호를 위한 원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승은 비구만이 존재한다. 특히 근세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역사를 돌이켜 보게 한다. 한 치의 방일도 허락하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지계와 구도과정을 빼놓고는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 자기탐구 · 헌신끝에 오는 깨침

## '바가반이 말씀하신…' 대성 스님 옮김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는 진아를 깨달은 뒤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래서 마하르쉬의 가르침은 침묵으로 시작되어 침묵으로 끝났다고 한다. 그는 아루나찰나의 암자에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후에는 아쉬람에서 인도에 및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했다.

〈바가반이 말씀하신 가르침〉(탐구사)은 마하르쉬가 설한 구두 가르침을 제자인 아서 오즈번(1906~1970)이 주제별로 가려 뽑아 엮은 어록이다.

책의 많은 문답에서 끊임없이 상기되는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탐구와 자신의 에고를 신이나 스승에게 내 맡기는 헌신을 통한 진아의 발견이다. 나머지는 그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스님 · 재가자 등 3천여명 행장

## 불교TV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

〈인물로 본 한국불교 1600년사〉(불교TV)가 나왔다. 이 불교인명록에는 우리나라 고승 1,000여 명의 행장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님 1,200명, 재가불자 1,000여 명의 이력이 담겨 있다. 고승의 경우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시대별로 나눠 수행과정과 행장을 수록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소속종단, 수계, 출가이력을 비롯하여 좋아하는 법문, 주요 활동사항 등을 기록해 활동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했다. 재가불자는 교계에서 활동하는 지도자급을 중심으로 학력과 현직, 사회 이력, 수행방법, 존경하는 스님 등을 기록했다. 인물사진을 실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인명록과 다른 점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불교전래 이후 1,600년의 불교약사를 살필 수 있는 한국불교사를 비롯해 불교문화재 현황, 팔만대장경 경전명, 40여 종단의 연혁, 인물 및 사건을 통한 불교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한국불교 1,600년 연표도 수록했다. 값 15만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 순위 | 도 서 명 | 저 · 편자 | 출 판 사 |
|---|---|---|---|
| 1 | 거울 | 원 성 | 이레 |
| 2 | 선방일기 | 지 허 | 여시아문 |
| 3 | 티벳 밀교 요가 | 유 기 천 | 정신세계사 |
| 4 | 법구경(작은경전) | 지 현 | 민 족 사 |
| 5 | 선의 나침반 | 현 각 | 열 림 원 |
| 6 | 나의 행자시절 | 박 원 자 | 다할미디어 |
| 7 | 천수경 천수신앙 | 혜 국 | 효 림 |
| 8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 성우 · 지현 | 민 족 사 |
| 9 | 산하대지가 참빛이다 | 양 형 진 | 장 경 각 |
| 10 | 오직 할 뿐 | 무 량 외 | 불병자리 |

도서 안내: (02)737-0695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류시화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사자의 서》!

티벳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웬츠의 티벳 라이브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웬츠는 인도로 가서 라마 카지 다와삼둡의 제자가 되었고, 티벳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복원해냈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해탈의 서》, 《티벳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벳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벳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신간!

티벳 밀교 요가

라마 카지 다와삼둡 번역 | 에반스 웬츠 편집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벳 성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 · 마르파 · 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벳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의!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야 했는가?
8세기경, 티벳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에이지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신세계원 회원이 되시어 강좌 · 물품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02)733-3135(401 · 407)/ 팩스: (02)747-7034/ 인터넷 신청: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은행 · 우체국 · 농협 지로번호: 3006577, 홈뱅킹: 009-21-1159-604(국민은행, 예금주 송순현)

정신세계사 · 월간 정신세계 · 해방 정신세계 · 정신세계원
전화 747-7033 / 팩스 747-7034 | www.mindvision.org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장물인줄 몰랐다" 하면 法도 '물방망이'

# '선의 취득 배제' 규정 만들자

### 사찰문화재 보존 토론회서 주장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월 12년 전 충남 부여군 무량사 주지실에서 훔친 지방유형문화재(충남도 100호)인 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3점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팔려 한 김모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12년 전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는 주장을 펴 처벌에 어려움을 겪자 '은닉' 혐의를 적용했던 것.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도난 당한 불상은 되찾을 수 없게 된다.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사찰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선의취득'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사찰문화재의 도난방지 및 보존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박용대 변호사는 "문화재 도난방지와 사후 도난문화재 발견시 이를 원소유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 "처벌규정 강화 못지않게 유통억제 현실적 대책"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문화재 도난사건이 줄지 않는 것은 처벌의 위험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보다 도난문화재의 유통을 억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도난 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고가에 매입하는 것은 도난문화재가 몇 단계의 유통을 거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소유한 사람이 적법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의취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도난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양수한 선의의 양수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변호사는 "동산문화재 유통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동산문화재를 매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출처, 도난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축했다.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선의 취득배제' 규정을 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해 조계종에서 도난문화재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총무원 청사에 내건 현수막.

박 변호사는 그러나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인지 단순 골동품인지 여부 파악이 어렵고, 도난 사실 여부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지정문화재에 한해 선의취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한 문화재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불교문화재는 국보 302건 가운데 169건(56%), 보물(전체 1290건) 854건(66%), 지방유형문화재(전체 1,833건) 875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형태별로는 국보 58건(34%) 보물 343건(40%) 지방유형문화재 531건(61%) 등 지정 불교문화재의 51%가 조계종 소유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난당한 문화재는 31건 373점으로 99년의 32건 145점보다 1건이 줄었으나 점수는 157.2% 늘었다. 이는 범죄유형이 날로 교묘해지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파악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복 얻기'서 '복 짓기'로

### 광동여고 유동호 법사 "기복불교 벗어나자" '불교평론'에 기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면서도 관행으로 굳어져 제도화한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던 '기복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한 글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유동호 광동여자고등학교 교법사는 최근 나온 계간지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에서 "오늘날 불교계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행해지는 각종 제사 의례와 그것을 진행하는 승려의 모습은 부처님 당시 비판했던 브라만교의 제사만능주의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하며 바람직한 불교 신행을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선업은 행하지 않고서 결과만 바라는 기복에서, 실제로 복을 짓는 작복(作福)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기복주의를 넘어 공덕주의로'란 글에서 "복을 구하고자 하면 복을 구하는 행을 해야 하는데도 복을 구하는 행은 커녕 오히려 복을 멀리하는 행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며 한국불교의 모습을 "뱀을 잡고자 하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함에도 꼬리나 허리를 잡아 오히려 화를 당하는 꼴"에 비유했다. 이어 유 씨는 "불교 신행의 기복화는 수행자 · 교화자인 승려를 사제로 전락시키고, 동일한 가르침을 앞뒤에서 함께 닦아야 할 승 · 속이 서로 다른 차원의 행동 양식을 굳혀가게 하는 승 · 속의 괴리를 초래한다. 승속의 괴리는 다시 신행의 기복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복불교를 "한국불교의 제반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돌출된 현상"이라고 강도를 높였다.

기복불교의 한계를 탈피하여 불교 신행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유 씨는 초기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의 교설을 부처님의 근본교설로 인식하여 닦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씨는 "〈아함경〉은 무속적 · 사제(司祭的)적 신행을 배제하고 승 · 속이 함께 불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점진적인 수행 체계를 설하고 있으며, 이는 미신적인 기복불교와 승 · 속의 괴리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또 유 씨는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의 즐거움과 내세의 안락은 물론 열반의 성취를 기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출가 수행자 못지 않은 수많은 재가의 제자들이 등장해 세간적인 복덕은 물론 출세간적인 깨달음까지 당당히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함경〉이야말로 재가 불자들에게 신행의 차원을 고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바람직한 신행을 위해서는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공덕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 불교관련 천연기념물 '11건'

### 경북 57건 '최다'

### 문화재청 '… 보존관리'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의 정이품송, 제주도 용암동굴, 밀양 얼음골, 황새, 두루미….

천연기념물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천연기념물은 어떤 이유로 지정되며 이 가운데 불교와 관련된 것은 얼마나 될까? 천연기념물이 가장 많은 시 · 도는?

역사, 문화, 자연사 및 과학 등의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 · 명승 328건을 수록한 〈천연기념물 · 명승 보존관리〉가 최근 문화재청에서 나왔다.

우선 불교와 관련해서는 사찰 창건설화가 깃든 송광사 곱향나무 쌍향수(사진) 등 모두 11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불교와 관련이 없어도 유용식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있다. 천안 광덕사 호도나무, 진안 은수사의 청실배나무가 여기에 속한다. 정조와 사도세자의 전설을 담은 용주사 회양나무,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도 천연기념물이고,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운문사 처진 소나무,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역시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이 가장 많은 시 · 도는 경상북도(57건)고, 전라남도(44건) 경상남도(34건)가 그 뒤를 잇는다. 분야별로는 식물 219건으로 가장 많고 동물 63건, 지질 · 광물 23건, 천연보호구역이 10건이다. 식물 가운데는 은행나무가 소나무(18건)를 제치고 가장 많지만(21건), 백송(7건)과 반송(5건) 곰솔(6건) 처진 소나무(3건)까지 합하면 역시 소나무가 가장 많이 지정돼 있다.



이밖에 보존관련 벌칙 등을 간략하게 실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병들거나 조난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시 · 도 및 시 · 군 · 구별로 수록했다.

권형진 기자



## "임진강 유역 불교유적 70점"

### 경기도박물관 학술보고서

북한의 두류산에서 시작해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임진강은 삼국시대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지금도 포염이 채 가시지 않은 이 곳엔 그러나 성곽 같은 군사시설만 남아 있는 건 아니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등 고고유적에서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보물 제93호 · 사진) 등 불교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즐비하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최근 펴낸 〈임진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종합적인 조사가 없었던 이 지역에 대한 첫 학술보고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절과 절터 25곳에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석불 9점, 부도 10점과 부도비 2점, 석탑 1점과 석등 2점 등 모두 33점의 불교유적을 확인했다. 이전의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불화 12점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 '초기불교 수행법 연구'

### 보조사상硏 17~19일 워크숍

보조사상연구원은 17~19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초기불교의 수행을 주제로 제1차 수련 워크숍을 연다. 빨리어와 한문으로 된 초기불교의 경전에서는 초기불교 수행법인 지관과 사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원전을 중심으로 강독하고 토론한다.

초기불교의 수행법을 실제로 해 봄으로써 현재의 수행법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시간도 함께 갖는다. 제2차 수련 워크숍은 간화선을 주제로 겨울방학 중 열릴 예정이다. 참가비 6만원. (02)733-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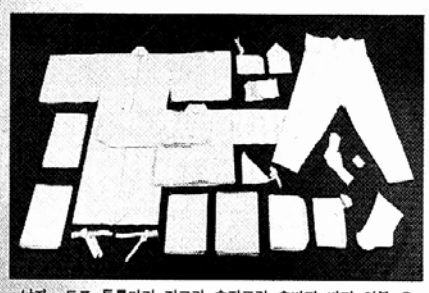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니다.




#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수의(壽衣)중에서도 윤년수의(閏年壽衣)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起源)하는 최상(最上)의 수의(壽衣)로 손꼽힙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처마, 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황나무 박스

##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 품 명 | 구 성 | 재 질 | 백화점가격 | 불자님가격 | 특 별 혜 택 |
|---|---|---|---|---|---|
| 삼베 二品 | 남 20종, 여18종 |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 600,000원 | 550,000원 |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
| 삼베 一品 | 남 20종, 여18종 | 삼베의 불순물을 3회 이상 제거한 후 장섬유로 제조된 순수 삼베 100% 제품 | 900,000원 | 798,000원 |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
| 삼베 特品 | 남 20종, 여18종 |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 수의로 삼베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안동포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염색된 순수 삼베 100% 제품 | 1,320,000원 | 1,150,000원 |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 수직 特品 | 남 20종, 여18종 | 안동 삼베에서 개발한 대마 100% 원사를 베틀로 제작한 고급 수직제품으로 안동포 七세를 기준으로 제조, 염색된 순수 삼베 제품 | 1,870,000원 | 1,450,000원 |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 안동포 七세 | 남 20종, 여18종 | 순수 삼베 자연사 100%를 재래식으로 제조하여 자연염료인 치자 열매로 염색된 최상의 상품 | 4,200,000원 | 3,950,000원 |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 멧베 주문시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 "한짝 짚신을 죽은 사람인줄 알고 묻도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 이야기 ㊷

### (41) 거짓 법문

무작정 향산사를 떠나긴 했지만 신광은 갈 길이 막막했다. 어디로 가야 달마 대사를 만날 수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이곳 저곳을 헤매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는 게 고작이었다.

동록관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달마의 행적을 귀동냥할 수 있었다. 달마가 어떤 여인의 집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라 신광은 양연지의 집을 찾아갔다.

양연지는 방문객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유명한 고승인 신광을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런 신광의 출현에 속이 뜨끔했다. 혹시 신광이 모든 사실을 알고 꼬치꼬치 캐묻기라도 한다면 큰 일이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치미를 떼기로 했다. 마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양 신광을 대했다. 양연지의 이런 속내를 알 리 없는 신광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듣건대, 이 댁에 얼굴이 시커먼 노스님 한 분이 머물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소이다. 계시면 좀 뵙고자 하니 안내해 줄 수 없겠소이까?"

### 시치미 떼는 양연지

신광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양연지는 내심 안도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노스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레 동안 머무신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은 안 계시다는 말이오?"

연지는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탄식하듯 말했다.

"갑자기 병환이 나셔서 어떻게 손 쓸 사이도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신광은 눈앞이 아찔했다.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온몸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물었다.

"그 노스님을 어디에다 장사 지내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혼자 힘으로 정성을 다하여 동록관의 교외에다 모셨습니다."

신광은 대성통곡했다.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에 덥석 주저앉았다.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내가 이렇게 인연이 없고 박복한 줄을 미처 몰랐구나. 찾아오신 큰스승을 쫓아내 여기까지 참회의 발걸음을 했건만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이제 어디 가서 내 잘못을 용서받고, 장차 큰스승의 끊긴 도맥은 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고…."

독백을 마친 신광은 다시 소리 내어 울었다. 양연지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짐짓 애통한 목소리로 신광을 위로했다.

"비록 노스님은 가셨지만 도(道)의 뿌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오신 스님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신광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말했소? 스승의 도근(道根)이 남아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것을 얻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오?"

양연지는 자세를 바르게 하더니 근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졌소!"

## 무제를 구하려고 갔다 죽을 뻔했고 신광을 구하려고 했다가 쇠염주를 맞았소

신광은 순간 야릇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달마 대사가 이 여인에게 전법(傳法)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여인은 당당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신광은 잠시 의심을 접어 두기로 했다. 이 여인은 그래도 큰스승을 일 주일이나 모셨고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보지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자기보다 인연이 깊은 듯싶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신광은 앞뒤 가리지 않고 여인에게 매달렸다.

"그 가르침을 나에게 전해 줄 수 없겠소이까?"

양연지는 목소리에 한껏 위엄을 담아 정중하게 말했다.

"그대에게 전법할 수는 있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법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대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마음을 낮추고 인내하지 않고선 어려운 일이 아니겠소?"

연지의 대답에 신광은 당황했다. 급히 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절을 받으면서 말했다.

"법은 가볍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하늘 앞에 큰 원을 세워야만 하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전법이 허용되는 것이오."

신광은 아찔했다. 그녀의 말에 따라 서둘러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고 예의를 갖췄다.

### 소리내어 우는 신광

"제자 신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는 아직 현(玄)에 통하지 못했습니다. 전심일의(專心一意)로 스승님을 따르고 참선(眞善)을 배우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가르침을 가벼이 여긴다면 영원히 고(苦)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스승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는 일이 있다면 성명(性命)이 환원(還元)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맹세하오니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양연지는 법단에 올라 새롭게 촛불을 밝히고 상좌에 앉아서 스승으로서의 위엄을 보였다.

"나는 오늘 그대를 제자로 삼아 법을 전하노라. 수행은 오로지 마음에 달렸느니라. 그릇된 사람에게 전하면 그 죄 또한 가볍지 않느니라. 도(道)는 산을 꿰뚫고 바다를 투과하여 항상 응현(應現)하느니라. 그것은 하늘을 감싸고 땅속까지 스며들지만 사람 몸에 있느니라. 동정(動靜)을 활발히 하여 성천(性天)을 기르도록 할지어다. 천 번을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부처를 이룰 수 있느니라. 건곤(乾坤)을 관통하고 가득 채우는 것은 진성(眞性)에 달렸느니라. 그래야만 본래의 근원자리에 이를 수 있을지니."

"가르침을 명심하겠나이다. 그렇다면 몸 가운데 있는 성명(性命)과 생사(生死)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신광은 양연지에게 삼배(三拜)의 예를 하며 간곡하게 물었다.

"생사는 성명의 근원으로, 내외(內外)의 분별(分別)이 있느니라. 안으로는 능히 골수(骨髓)까지 뚫고 들어가 온몸을 덮고, 만물에 응하여 화육하느니라. 이것이 육문(六門) 곧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동정(動靜)이니라. 밖으로는 능히 산을 뚫고 바다를 투과하며 천지를 쌓아 안아 시방세계에 가득 관통하느니라. 놓아 주고 거둬 드리며 움직이고 고요함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곧 시간에 매이지 않는 진인(眞人)이로고."

양연지의 입에선 청산유수처럼 법문이 흘러 나왔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현재, 과거, 미래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없나니, 인상(人相) 아상(我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모두 끊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비로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염군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느니라."

신광은 연지의 강설을 들으면서 의심이 뭉클 샘솟았다.

"지금 말한 도리(道理)는 내가 일찍부터 늘상 강론하던 내용과 똑같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천(先天)의 대도(大道)를 전해 달라는 것이외다."

그러나 연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마디 내뱉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법은 이미 그대에게 전했노라. 나에게는 또 다른 법이 없느니라."

신광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양연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연지는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신광의 가슴엔 의심의 구름이 덮쳐 왔다. 선천의 도법은 분명 경전의 글귀를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찍이 달마 대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생사의 해탈은 그런 경전으로론 어림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양연지가 스승의 죽음을 말한 것조차도 의심스런 일이 아닌가. 거기엔 무슨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신광은 연지를 응시한 채 생각에 생각을 굴렸다. 한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 왔다.

"동토(東土)의 중생들은 인연이 없도다. 안타깝구나. 서천의 달마가 일부러 불가(佛駕)를 동토로 갖고 왔거늘. 그것을 그대로 놓쳐 버렸구나…."

신광과 양연지는 마치 용수철처럼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노스님이 우뚝 선 자세로 두 사람을 코끝으로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신광이 서둘러 합장의 예를 갖추고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달마 대사님을 만나셨습니까?"

노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서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루 낮 하룻밤을 달마 대사와 같이 지냈소이다."

이 말에 신광과 양연지는 어리둥절했다. 특히 신광은 어떤 충격을 받은 듯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노스님은 신광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며칠 전에도 달마 대사를 우연히 서양호(西洋湖)에서 만났소이다. 마침 그곳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대사께서 지나가십디다. 한 손에 긴 지팡이를 들고 계셨는데 짚신 한 짝이 걸려 있고 등에 짐을 진 채 갈대 위에 올라서 강을 건너가려고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소이다."

신광이 참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듯 물었다.

"대사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십디까?"

"내가 묻는 말에 대사께서는 비감한 목소리로 말씀하더이다. '일찍이 무제를 구하려고 갔다가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엔 신광을 구하려고 했다가 인연이 없어 쇠염주를 맞았소. 우연히 양연지를 만나 구해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독살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소. 그래서 이제 웅이산(熊耳山)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려고 가는 길이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그대로 자취를 감추셨소."

신광은 노스님의 말이 진실 그대로라고 여겼다. 양연지를 노려보며 힐문했다.

"그대는 대사께서 중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양연지는 펄쩍 뛰었다.

### 감탄의 눈물이 절로

"대사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나와 함께 동록관 교외에 있는 묘로 가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신광은 연지를 따라 나섰다. 묘를 파고 관 뚜껑을 열어 보았다. 관 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연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신광이 관 속을 살펴보니 한쪽 구석에 짚신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신광은 짚신을 집어 들어 찬찬히 살폈다. 놀랍게도 짚신의 밑바닥엔 자수로 수 놓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

"달마 서쪽에서 와서 짚신 한 짝에 천 개의 바늘과 만 가닥 실로 수를 놓았노라. 동토의 중생 나를 알지 못하고 한 짝의 짚신을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땅에 묻도다."

신광은 짚신 앞에서 큰절을 올렸다. 큰스승을 독살하려한 독부 양연지에 대한 분노는 참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노는 짚신 앞에서 오히려 눈 녹듯 녹아 내렸다. 달마의 신통광대(神通廣大)와 변화무쌍(變化無窮)함에 감탄의 눈물이 절로 쏟아져 내렸다.



◇작자 미상(종이에 수묵).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의 기원과 역사, 본질을 밝히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철판신수」와 「법륜공」, 「사찰과 조선의 왕릉 풍수해설」을,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유달의 산소이장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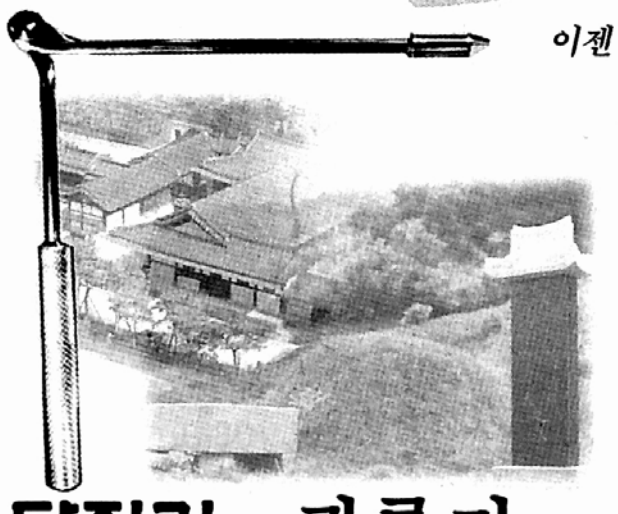
6월호에는 「조선의 무격」을,

7월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의 풍수지리 해설」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그러나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실험 후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미 국내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중인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 · 양(+)의 전하(electric charge)가 발생된다. 음 · 양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으로 특별한 지기인 생기가 발산되는 곳이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 중에서 부분발췌-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합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혈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번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번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께는 「월간역학」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명당 탐지기 - 관룡자

진산실업(주)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한국 시내전화로 걸음)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아트 101호

## 종립학교를 가다

(8) 심인 중·고등학교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지향하는 실천불교인 대한불교진각종의 교리에 입각하여 지덕을 겸비한 선남선녀를 양성하고 호국정신과 전통 문화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이타자리의 덕성인을 기른다."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심인중·고등학교의 건학 이념이다. 심인중·고등학교는 불교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손규상 대종사에 의해 1953년과 55년 각각 설립됐다. 이후 불교사상에 의한 인재교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회당 대종사의 무진서원과 진언행자들의 참여속에 성장을 거듭한 심인중·고등학교는 현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눈길'

'다음 밝히는 공부'라는 뜻의 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인중·고등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 자아를 완성하는 인성교육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다. 심학시간 및 명상의 시간 운영, 내가먼저인사하기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심학시간이란 진각종에서 발행한 종교 교과서를 배우고 개인의 심성을 밝히는 시간으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매주 한 시간씩 심학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수업시작 전에 실시되는 명상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먼저인사하기운동도 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인문계 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로 학교가 평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인중·고등학교가 명문사학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률 87%. 전문대를 포함하면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에는 연 평균 13명이 입학하고 있고, 임시사상 한해에 서울대 법대 8명 동시 입학이라는 진기록도 가지고 있다.

종립학교에서의 신행활동 활성화는 기본.

**손규상 진각종 종조 설립 | 심학시간 등 인성교육**
**서울법대 8명 동시입학도 | 4년째 퇴학생 없어**



◇대구 심인중·고등학교는 불교진각종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타자리의 덕성인을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심인고 취타대가 울산 문수 경기장 오픈행사에서 연주하는 모습.

인사를 통해 하심(下心)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있다. 이같은 인성교육의 결과 최근 4년간 자퇴나 퇴학당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우수교로 선정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정보사회로 진입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구조속에서 심인중·고등학교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내에 정보 기반 시설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정보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몇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또 정보검색대회 등 각 종 공무전을 개최해 정보소양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소양 인증제 실시, 학생 1가정 1PC 및 E-mail 갖기 운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심인 역시 그러하다.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진각불교학생회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한 정기법회 뿐만 아니라 대구 심인당에서 사찰순례, 수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고 양로원,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교직원들도 심인중·고 정교실장 일학정사를 중심으로 매월 1차례 법회를 보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 교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등 최신 시설로 최고의 면학분위기를 갖춘 심인중·고등학교에는 현재 이사장 지광정사와 교직원들의 화합아래 중학교 1,014명, 고등학교 1,265명의 청보리들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오늘도 늦은밤까지 교실 불을 밝히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 최선 다하는 성실교육 강조

## 심인고 박노선 교장
## 심인중 정희영교장




68년 평교사로 심인고등학교에 부임한 박노선(사진 위) 교장은 학교 교훈인 '성실'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실은 자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하늘의 뜻에 가까이 가는 노력"이라고 말하는 박 교장은 "항상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다는 것"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는 또 마음을 교기인 탁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둥근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을 바로 잡는 심학시간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학교의 자랑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어 보인다.

배움을 떠난 학생은 있을 수 없다는 중학교 정희영(사진 아래) 교장도 심학을 통한 올바른 학생지도를 강조한다. 66년 심인 중학교에 부임해 36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심인중학교에 근무한 정 교장은 실천하는 교장으로 통한다. 교내에 떨어져 있는 휴지하나라도 먼저 줍고 있고 남이 하기 싫은 일도 이타자리의 정신으로 실천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매주 일요일 대명 심인당 법회와 월초 불교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 전국 최초 취타대 행사초청 단골

## 천체관측반 과학자 꿈 키워 … 풍물반도 유명

대학들이 특기와 소질, 단체활동 등 다양한 선발기준을 두고 있어 입시교육에 위축된 고교 동아리들이 최근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심인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타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가운데 최초로 결성된 취타대는 음악담당 배해근 선생님의 지드아래 총 37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국악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던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하는 등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됐다. 대구와 울산 월드컵 경기장 오픈 행사에서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이들의 실력이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례라 하겠다. 특히 심인고 취타대를 중심으로 대구청소년국악 관현악단이 창단되는 등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77년 창설된 탁구부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만도 한국중고탁구연맹회장기 우승, 대통령기 준우승, 전국 종별선수권대회 준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웠다. 그동안 배출된 국가대표만도 오상은 강희찬, 남성관 등 다수다.

심인고등학교 옥상에는 최신의 천체 망원경이 있다. 그래서 천체관측반의 활동도 왕성하다. 천체관측반 학생들은 별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과학자의 꿈을 꾸기도 한다. 결성된 지 20년이 넘은 풍물반 또한 학교의 자랑이다. 풍물반은 청소년국악제 등 각종 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밖에도 진각불교학생회, 푸른물고기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교실에서

일학 정사·허웅·강헌구·김의현 교사

## "바른 심성 갖도록 지도"


◇일학 정사

◇허웅

◇강헌구

◇김의현

진각종은 신라와 고려의 밀교를 계승하기 위하여 입교 개종된 밀교중흥 종단이다. 그래서 기존 종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조차도 약간씩 다르다. 스님을 정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또 종립학교에서 불교관련 업무를 맡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교법사라 부르는 것과 달리 이곳 진각종립학교에서는 심학교사라 부른다.

심인 중·고등학교에는 심학교사들이 근무하는 정교실이 있다. 정교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학교 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마음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시복 심인당 주교 일학 정사는 이곳 정교실의 실장이다. 심인중·고등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바른 심성을 가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좌장인 셈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여념이 없다.

일학정사를 돕고 있는 허웅 고등학교 심학교사와 강헌구·김의현 중학교 심학교사는 학생들에게 효행, 기초질서 등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등 인성교육과 진각 불교학생회 지도 등 교내외 불교활동에 열심이다.


◇건봉사 주지 영도 스님이 참가자들과 함께 염불 정진을 하고 있다.

# 바닷가 절벽 '홍련암의 美' 감탄

## 본사 7월 지역불교문화기행
## 건봉사 진신치아사리 친견도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의 날씨 때문에 순례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당초의 예상을 깨고 현대불교가 주최한 지역불교문화기행 참가자들이 찾아간 동해안은 빗줄기가 잠시 멈춰 있었다.

22일 새벽 4시 정동진 등명낙가사 대웅전. 청우 주지 스님의 집전으로 아침 예불이 봉행됐다. 참가자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대웅전을 나오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멀리 보이는 지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등명낙가사 참배에 이어 참가자들은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양양 낙산사와 홍련암을 찾아가 108배 정진을 했다.

오후에는 이번 일정의 마지막인 고성 건봉사를 찾았다. 건봉사 주지 영도 스님은 "건봉사는 임진왜란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도량이자, 염불만일회가 처음으로 열린 유서깊은 사찰"이라며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이기도 한만큼 짧은 시간이나마 각자 개인적으로 정진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가 봉안된 만일염불원으로 자리를 옮겨 사리를 친견했다.

중국에서 온 진연(24)씨는 "바다가 빤히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위치한 홍련암이 매우 인상 적이었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⑩

### • 스트레칭 •





1. 두 무릎으로 꿇어앉은 자세를 취하고, 정강이와 팔은 바닥에 놓고 쉰다. 머리는 팔 위에서 쉬고 단전은 넓적다리 옆에 온다. 단전에 집중한다.
2. '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팔을 늘리고, 목을 뒤로 제끼며

**곧은 자세로 가슴펴**
**골반·척추근육 강화**

앞가슴은 쭉 피며, 등은 휘게 한다. 단전에서 기를 목으로 보낸다.

3. 단전을 수축하며 상체를 시작한 자세로 끌어들인다.
4. '뭐'와 '꼬'를 반복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도한다.

골반과 척추를 강화시켜주고, 앞가슴의 근육을 펴주는 스트레칭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조절해 가며, 단전의 중심을 배꼽에서 목으로 목에서 배꼽으로 다시 이동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행한다.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02)391-6502


#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 '자기' 버려야 '주인공' 믿을 수 있어

###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와 "나"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이나 참 자아, 법, 불성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즉 천상과 천하에 나만이 존재한다면 얼굴은 다 틀리지만 결국은 모두가 "나"가 되는 겁니까? 또 내 속에 있는 주인공이 진리란 말입니까? 거지가 돈을 요구하면 주어야 맞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다른 나가 가져간 겁니까? 내가 잘살아야 다른 나에게 부담을 안주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사는 겁니까? 능력, 돈,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 안 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지옥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감히 부처님,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답**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좀더 폭넓은 지혜로써 지견을 쓴다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악업 · 선업이 뭉쳐서 우리 인간이 됐으니 그것들이 모두가 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악으로 쓴다거나 선으로 쓴다거나 그런 다면은, 악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악으로 같이 해 주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 "'苦' 만들지 말고
> 근본에 던져놓고
> 가볍게 사세요"

우리가 말입니다. 지구 벌레라고 합시다.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생명들과 같이 이 몸을 지구로 삼고, 우리의 생명과 같이 우리도 지구의 벌레로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도 항상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지구도, 즉 말하자면 수명이 오래도록 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그렇습니다. 지구와 같이 안에서 파워가 일어나서 싸우고 한다면 몸뚱이가 망가집니다. 세포가 굳어지고요. 콩팥에서 걸러주는데 벌써 지장이 생기고 붓고 또 간이 나빠지고 위가 나빠지고, 어디는 안 나빠집니까? 한 곳이 나빠져서 거기를 치료하면은 또 다른 데에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몸뚱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 망가지는 거죠. 이 몸뚱이는 우리의 집이라고 봅니다. 집이 망가진다면 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효죠. 아무리 우리 의식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 세상차원에 따라 이 세상에 다시 바꿈질을 해서 진화되기도 하고, 또는 끝간데 없이 우리는 이 중생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해서 업보니 유전성이니 영계성이니 하는 문제들이 모두 생기는 거죠. 종교도 잘 못 믿으면은 의식이 잘못돼서 말도 안하고 방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병이 생기고 그냥 미친 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식들을 못 키우고, 키우다가도 못 쓰게 만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한 집에서 그런 거 하나를 해결해도 이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누가 삶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걷고 자기가 자기 정신계의 자기를 믿고 맡겨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데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자기는 부지런히 살고, 빙긋이 웃으며 사는 거죠. 현재 이 모습 가지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한 생인데 이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원대로 산 것대로 또 재생할 때는 과거에 산 것대로 차원이 든지 삶이든지 생김생김이든지 모든 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마음공부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지금 못생겼으니깐 조금만 더, 잘 생긴 거는 바라지 않아도 그저 밉지 않게 생겨서 마음이 너그럽고 지혜로워서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고 이익을 주고 내 자신도 해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참 자기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시자인 겁니다. 모습은 즉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죠. 몸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정신계의 자기가 있다는 거를 꼭 믿고 그렇게 하세요.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고 당신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보이지 않는데서 다 해결이 돼서 보이는 데에서도 해결이 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늘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항상 얘기했죠.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을 하고 산다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공법에서 만법을 들이고 어떠한 문제든지 들이고 내고 살아도 걸림이 없다는 거를 알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고 끄달려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알도록 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야합니다.

### 세상 모든게 너무 허무합니다

**문**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허무해서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여섯 살 때부터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허무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허무인지 그 끝을 잡고 시작을 찾으려고도 해보고, 또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정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면 나뭇잎이 피었다가 가을에는 그 잎이 땅에 떨어지는 걸 밟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되면 대부분 사는 자체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허무한 게 아니라 그 가랑잎이 지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성계가 꿈을 꾸고 생각했듯이 말입니다. 야, 추운 겨울에 꽃이 피었다가 사르르 지고 눈이 오니까 그 꿈을 나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학대사가 꿈 해몽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꽃이 다 떨어지니 열매가 맺겠구나" 했으니 얼마나 꿈 해몽을 의미 있게 했습니까.

그러니 생각하기 달렸지 않습니까? 무한정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무한정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한정이에요. 동서남북이 벽이 없어요. 지구도 벽이 없어요. 그래서 지 · 수 · 화 · 풍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충만해 가지고 서로 당기고 당겨서 힘이 생겨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게도 되고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죽 솥의 죽 방울 많아도 한 죽방울이듯**
**생각 · 경계 주인공 나툼이니 속지 말라**

그런데 만약 이 자유로운 마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차원대로 죽어도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차원이 더하고 덜함도 없어서 다시 금 화해서 형성될 때에 내가 과거 살던 차원이 현실에 또 나온단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고등동물들은 고등동물로서의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왔는데 이거마저도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살림살이는 지구의 살림살이하고 어느 혹성의 살림살이하고 똑같은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차원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습성이 전부 다르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사는 살림들이 말입니다. 사는 건 똑 같겠지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억겁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좌천이 되며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얼마나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울어야만 하고 아파야만 하고 허무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 세상의 동물들을 보세요. 만약에 동물들을 봐도 '나도 너의 모습처럼 그랬을 때에 나도 너 같았으니까 바로 나야' 하고선 생각했을 때에 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모하게 어느 골짜기에서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돈이나 물건을 뺏으려고 마구 치고 뺏습니다. 그러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마음에 따라서 짐승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짐승도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팔자 운명을 만드는 거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팔자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계발하면 계발하는 대로 달라지니까요. 오늘은 요런 그릇이었다가 내일은 한생각 돌리니까 이만한 큰그릇이 됐단 얘깁니다. 조그만 연못에서 놀던 고기는 큰물을 모릅니다. 생각조차도 못하죠. 거기가 아주 족한 줄 알고, 거기 뿐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것 뿐 인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생각을 고집하지 말란 얘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온 누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들고도 남음이 있고, 돌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펼치면 펼치는 대로 넓어지고 좁히면 좁히는 대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무하다 힘들다 지겹다 라는 생각을 넓히고 펼쳐서 더 고를 만들지 마시고, 공을 만들듯이 똘똘 뭉쳐서 근본에 던져놓고 새털처럼 가볍게 살아가세요. 아셨지요?

### 왜 좌선을 하라 하시는지…

**문** 스님께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그대로 참선이고 좌선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법문을 들으면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좌선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 앉아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마음먹고 앉아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그대로 참선이라 그랬으면 좀 틈을 내서 앉는 것도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선이다 저게 참선이다 하지말고 참선을 하라고 했지 누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좌선을 하라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 틈내서 앉았으면 명상도 되고 참선도 되고 좌선도 되고 그런 거지, 마음을 좀 쉬어볼 수 있는, 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닙니까? 부지런히 일할 때 일하면서 공부한다면 그게 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진리가 돌아가는데 쉴 사이 없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 좌선한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8시간을 좌선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좌선했다면 좌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앉았다면 그냥 좌선일 뿐이지 참선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왜 참선이 될 수 없느냐?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고, 선다고 생각하고 서니까 그 나머지는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모든 게 참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하고 좀 앉아있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간도 없다면 어떻게 정립을 하고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그 만가지의 맛을 알겠습니까? 내 자가발전소가 만가지 생산을 낼 수 있는 바로 생산처라면, 그 생산처에서 바로 그 맛을 안다면 만 가지의 맛을 낼 수 있고 만가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 가지의 생산을 해서 남을 만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과 원심력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 주인공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문** 주인공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주인공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주인공에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법문도 듣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저의 식구들 모두가 주인공을 알도록 주인공에게 놓고 있습니다.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답** 처음에는 "주인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저렇게도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급하니깐 무조건 맡기기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깐 무조건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고 거기다 맡기시는 작업을 하세요. 왜 우리가 용광로에다 헌 쇠 모두 갖다 쓸어 넣죠? 그러면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다시 나오죠? 그런 작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엇을 믿느냐고 하는 그 자체를 믿으란 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자기 몸 속에서 자기 생각이, 모습 없는 모습이 수 만개라도 펴져서 나갈 수 있고 수 만개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수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작년 수박 씨를 심어서 수박이 됐는데, 수박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거 뭐꼬?" 한다면 되겠는가 하더랍니다. 그러니 벌써 그 시대가 지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씨가 화해서 나온 수박이 "이게 뭐꼬?" 하지말고 수박은 그대로 수박이며 수박 속에는 반드시 수박 씨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듯이 자기 안으로 그냥 들어가야지 이게 뭐꼬 한다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난 급해서도 그렇게 못 있어요.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박은 수박 씨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수박 씨는 반드시 봄이 오면은 심어서 싹이 나고 또 수박이 열려서 만 중생을 다 먹이고도 되 씨가 남아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도 끝간데 없이 먹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인공 모르는데 어떻게 믿죠

**문** 현대불교에 연재된 내용을 읽고 가슴에 새기면서 공부를 해나가다가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 "보고 듣고 말하고
> 오가는 게 空 하니
> 고정된 게 없어"

요. 과연 내가 주인공을 믿는다고 마음 속에 다짐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 내 주인공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믿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해지고 멈춰서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 알고 모르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체가 바로 자기에게 주인공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스스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먹는 거 자체가 모두 공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뜻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났습니까? 그런 생각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생각 안 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니까 주인공이죠.

예전에 누가 죽 솥에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 끓어서 막 이 방울 저 방울 다 나와도 죽 방울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 방울이 죽 솥에서 끓어서 막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주걱으로다가 요놈도 문수, 조놈도 문수 하면서 쳤단 말입니다. 요놈도 문수, 저놈도 문수 하면서요. 그러니까 요놈도 주인공, 이놈도 주인공, 저놈도 주인공…, 그러다 보니깐 그 한 솥에 있는 죽 방울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에도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 · 집 · 멸 · 도 사제법이 생긴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망상·병고 붙을곳 없고 맘먹기 달려

☞ 19면에서 계속

겁니다. 고 덩어리가 전자의 인과로 인해서, 악하고 모자랐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한 마음으로 돌려 거기서 전부 나오는 거라고 믿는다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생각이 왜 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왜 나는가 하면, 그건 목석이게요? 생각이 안 나면. 그러니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좀. 무조건 왜 자기를 믿지 못 하십니까? 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지 자기라는 게 없고 고정됨이 없다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그렇게 믿으시고 한번 나가보시면, 해결이 되든 안되든 주인공을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꼭 몸이 있을 때 공부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다리를 못 써서 영 왕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 몸뚱이는 내 시자인데, 주인공의 시자인데 이 시자 몸뚱이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 심부름을 해. 이 다릴 걷게 해야 될 거 아냐!' 하고서는 일어났더랍니다. 그러니깐 벌떡 일어나 지더랍니다. 그래서 거길 걸어왔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둔자는 빨리 깨우칠 수 있고 아주 약은 사람은 오히려 더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저 알아도 모든 걸 거기다 맡겨놓고 좀 모자라듯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모자라는 공부, 봐도 보지 않는 공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공부 이런 걸 좀 배우세요. 그런다면 속에서 모든 게 물리가 터져서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술술술 풀려서 나갈테니까요.

### 망상 어떻게 하면 끊어지나요

**문** 공부를 하는 중에 망상 때문에 그르친다고 하는 말씀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상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망상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망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를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끊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나오느냐. 고정됨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얼마나 의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관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이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자유스럽게 생각할 일이 없으면 꽁지가 꽁지를 물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 그저 내일 모레 한달 후에 일인데도 그냥 오늘서부터 그 날까지 그냥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주인공에 맡기시고 침착하게 있으면 그때에 몸으로 할 거는 몸으로 하고 말로 할 것은 말로하고 보이지 않는 데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바로 거기서 하구요. 이렇게 하면은 일이 순조롭게 되면서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진실로들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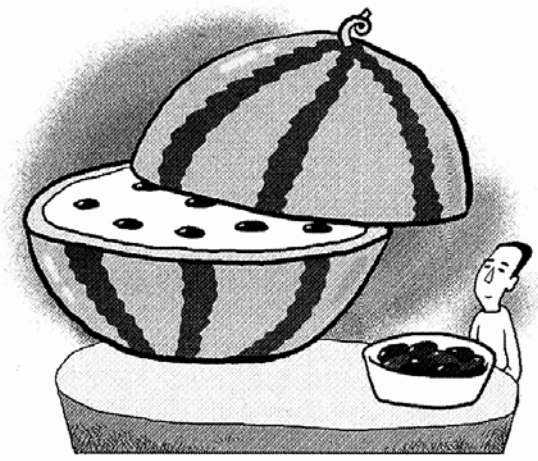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끊는 게 아니라 녹이라 이 소리죠. 거기에 말리지 말고 끄달리지 마시라. 왜냐하면 망상도 붙을 자리가 없구요. 병고도 고통도 붙을 자리가 없죠. 그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그게 바로 묘법입니다.

###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문**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나 점성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지구의 한계성, 이상기후와 자연환경의 파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이 세상에 종말이 곧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러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 종말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종말이 오는 겁니다. 불로 심판을 한다는 지가 빌쳐, 내가 스물 몇 살에 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여지껏 아닙니까. 왜냐?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과 심판을 하는 것이, 이 세계에 그렇게 닥쳐온다. 우리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이 됐습니까?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게 발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전파를 통해서 오고 가는데 그것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 마음과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전파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입력을 해서 꺼내서 쓸 수도 없구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네들이 예수가 말씀한 것을 잘못 써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썼기 때문이죠. 그 뜻을 몰라서요. 무의 세계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파괴가 돼야 새로이 새 시대가 발전이 되죠. 지금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만, 만약에 전자에 화산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화산이 터진 거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을 겁니 다. 그것을 재료로 못하고요. 이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저 나라가 부자가 되고, 저 나라가 또 싸움이 나면 또 이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게 혼란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가 끝간 데 없이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림살이하듯 잘 생각해서 너무 해가 없이 치닫는 문제들을 가라앉히면서 빨리빨리 잘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종말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나 또는 이 지구 자체가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은 수명이 짧지만 지구의 몸은 수명이 길죠. 수명이 긴데 긴 나름대로의 우리가 마음의 능력의 집을 가꾸어 나간다면 절대로 그건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불교는 생명과 맡이니까요. 마음 전달이니까요. 그게 불교입니다.

목탁만 치는 게 불교인 줄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연구들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종말이 와서 우리가 못살면 어쩌나, 나 늙을 때 까지도 못살면 어쩌나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이 마음, 한마음이라는 게, 우주전체를 한 그릇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 **모든 걸 자기가 벌여놓고 행하고**
> **구덩이에 들어가고 나오려 애쓰니**
> **자기 습관 탓이지 누굴 탓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자루 없는 도끼로써 그 기둥을 다듬어서 하늘을 받칠 테니까 자루 없는 그 도끼를 다오' 하듯이 기둥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일산이라는 그것도 역시 기둥이죠. 뒤집으면 전체를 담고 제끼면 전체를 덮고, 굴리면 전체 굴리니 이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요리로 만들어서 모두 여러 중생들에게 내려 주는 것이 그 얼마나 참다운 자비며 사랑이겠습니까? 종말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보배를 좀 찾으세요. 마음의 보배부터 찾아보십시오. 즐거움이 항상 깃들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진리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종말도 없구요. 시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것입니다.

### 주인공 믿는 게 기복 아닌지

**문**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정말 조바심의 연속입니다. 온통 조바심을 내야 겨우 하나를 달성할까말까 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바심이 없었다면 현재의 내 자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조바심을 내야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만이 이 조바심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인공에다 맡기면 괜찮을까요? 조바심을 내건 안 내건 주인공은 움직여 주나요? 한동안 주인공에다 맡긴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이 편해졌다 싶더니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주인공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라는 것도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경전에 주인공이란 말이 있습니까? 주인공이 불성과 같은 것인가요. 불성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계시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인공을 믿으라는 것 역시 기독교의 하느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결국 주인공이라는 것 역시 새로운 기복신앙이 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요즘 힘이 빠집니다. 알기 쉽게 직설적으로 납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자기 영혼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나를 진화시키고 탄생시키고 이렇게 해 온 장본인이 바로 나의 주인공, 즉 주장자 입니다. 경전에서는 주인공을 일컬어 불성이라고도 하고 진여(眞如)라고도 하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도 하고 참나(眞我)라고도 하죠.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이름조차도 방편이에요. 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두었고 '이뭣고' 나 '시심마' 라는 화두를 선지식들이 참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주인공이라는 걸 부르지 않아도 마음으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그게 놓는 거고 믿는 거고 그렇지, 꼭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의 근본, 자불(自佛)이죠. 자불! 그 자불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그대로 송장이 되겠죠. 살아 있으니까 자기의 불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주인' 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요, '공' 하는 것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화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일거일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레! 그런데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수레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나를 돌아가게 하는 그 불성 자체 의 기둥을 믿어야지 어딜 믿느냐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심봉이 바로 나의 주인이지 따로 또 무엇이 있어 돌아가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모든 걸 자기가 벌여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떨고, 자기가 울고불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 놓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은 대로 거기에 입력이 되어 나오는 것들에 속아서 자꾸 떠 벌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다 자기가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나쁜 거 좋은 거, 일했던 거 말했던 거, 하루 24시간 걸어온 거를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하는 그놈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놈, 그 한 놈이 그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알고 있는 그놈이 바로 주인공이자, 내 몸에 그대로 부착이 돼 있으니까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 말로 해서 알아듣는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다 오직, 모든 것을 몰두해 보려는 큰 용단과 신심, 용맹심을 일으켜서 일체 만법과 또는 만물의 활용을 나 자체가 들이고 낸다는 사실을 단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 아닌 말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주인공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믿고 맡길 때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구요.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을 발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임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육임(래정비법)강좌안내

| | |
|---|---|
| 「육임래정비법」 |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아는 법) |
| 「육임세밀정단법」 |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법) |
| 「육임대요형이상법」 | (귀신 · 산소탈 · 빌미 · 부정병 · 일의 되는 날자 잡는 법) |
| 「육임운명판단법」 |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법) |

위 내용의 강의를 다음 각 장소 · 시간에 실시하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 · 천역자 제위께서는 이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여 더욱 밝은 활인 ·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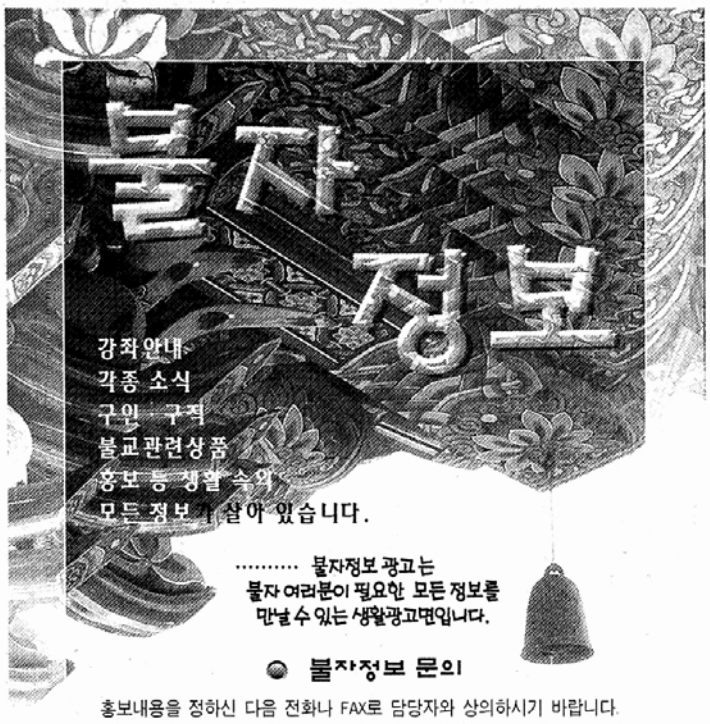
고복자 철학박사 효 사 배상

장소 및 시간

(강의료는 없습니다.)

- 서 울 관토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좌측 옆건물)
  TEL : 02-993-8680
- 부 산 해정식당(매주 일요일 오전10시~오후3시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129-2(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건너편)
  TEL : 051-781-2669
- 대 구 보리알 선원(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압산출구 새한약국 뒷편 2층)
  TEL : 053-653-0287
- 광 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 전 주 전북일보 전주지사(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가 43-3(구 경기전 뒤 제세한의원 2층)
  TEL : 063-284-7714
- 수 원 수원시 팔달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아원 철학원 (기동제일교회 맞은편)
  TEL : 031-242-8813
- 청 주 동인당 한약방(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암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 043-221-2557
- 원 주 노겸철학원(매주 금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쌍다리(경찰서 앞)전 한약방 2층
  TEL : 017-377-7005
- 인 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65-2 호봉사(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구 송도역에서 유원지방향 1킬로 지점)
  TEL : 032-833-4488
- 충 주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금강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판금대 큰 다리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842-3352
- 대 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영회관 3층 양부건설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명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문의전화 : 02-993-8680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

**매실액 판매**
지리산 매실로 만든
청정 매실액
녹차 발효차도 판매
생산자 직거래
055)883-9321
영목 다전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

**전통황토방**

발명특허 제 300446호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흙은 만물의 모체다.
천연적인 황토로 APT나 주택을 시공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수 있음
주) 지정 전화 032)427-6644~5
황토산업 PCS 016)360-2236

---

**동진기획 불교달력**
www.BuddhaComputer.com
불기2546 임오년 Calendar Catalogue
불교카렌다 불교출판물
법보시책자 홍보물제작
부산 금정구 남산동 120-30번지
동진기획 & 도서출판 동진 대표 : 강태규
TEL 051-515-2988 H/P 011-554-2988
FAX 051-515-3611 TUNHWANG.COM

---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초보 피아노 3개월 완성 ◇
◇ 합창반주반 ◇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림 및 재즈와 클래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클래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도연피아노학원**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 유무하셔도 됩니다.
02-741-2815/018-272-2815 종로 3가 지하철 앞 (1,3,5호선)

---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

**원조 농산** (어성초 · 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생즙 출시」 (8월달까지)
어성초 · 삼백초 건강차와 동사상담
❖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 증가, 뇌졸증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등
서울지사 02) 957-8342
508-0867
011)479-0633

---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화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천도재는 3월 9월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

**효 심**
본래로 가는 공세계 병고 액난은 업장이고 믿음이 지극하면 소멸합니다.
02)392-5801(야간)
02)392-5809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

음식 솜씨가 좋으신 보살님 모십니다.
▷ 보문사
041)337-4350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62-1142
02)962-6186

---

삼명 수료한 좋은 도량 입니다
참선기도 수양공부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 강 사
055)932-5706

---

**서해 바닷가 사찰**
▷ 사무원, 보살 구함
(초보자 가능함)
▷ 기도봉사 보살 1명 구함
041)673-2333

---

조계종 스님으로
**기도스님 구합니다**
▷ 진해 성흥사
055)552-5111

---

**토성부동산 컨설팅**
자격증 있고 컴퓨터 잘하며 불심있는 여성분 연락 바람
※ 전원주택, 별장, 종교용지, 수련장, 아파트 용지 전문업
02)446-2446
017)334-2446

---

**진리와의 만남**
**'삿 상'**
031)768-7180

---

**새천년을 열어갈**
동업중생 불자님을 모십니다
1 관리직 : 0명
2 영업, 판매, 판촉 : 00명
3 상담직 : 0명
4. 무점포 운영 대리점장 및 지사장
※ 25~65세 중 · 고졸이상 남, 녀
02)756-0677,0678
인연있는 불자님을 꼭 모시고 일하고 싶습니다

---

**명당터, 효도할 수있는 기회**
약 2000천, 고급별장, 사찰가족 묘지터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고모리 금계 포란형
현재 대학로 성업중, 대중식당 경영
인과 직접인수, 가격상담절충
02)766-0228, 911-3106
017)741-3106

---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홍성군 소재
● 대 지 : 4,300평 ● 법당 : 35평
● 명부전 : 15평 ● 요사채 : 40평
※ 굴법당이 따로 있으며 산세 아주 좋은 기도 도량임
● 양도가 : 1억 9천
● 위 치 : 경북 경주시 산내면 소재
● 부 지 : 1,6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40평
※ 건천 I/C에서 10분거리 산세좋음
● 양도가 : 1억 3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 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법 당 : 40평(2층건물중 2층)
● 보증금 : 전/월 300,000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역사 오래된 도심 포교당임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내
● 대 지 : 170평
● 법 당 : 40평 (2층)
● 요 사 : 70평 (1층)
※ 뒤는 산세좋고, 앞에는 대단위 APT단지임
● 양도가 : 3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유급 주지스님을 찾습니다**
◎ 연세는 65세전후로 사찰에 상주하고 여생을 포교와 법요에만 전념하실 분이라야 합니다.
◎ 특히 조계종 스님을 환영합니다. 주지할 사찰은 김해신어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납골 장묘문화의 선구사찰입니다.
◎ 사찰의 소유와 운영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공익재단인 반야암 운영회에서 운영 합니다
◎ 사찰 경비는 일체 영가봉안비 수입에서 충당합니다
◎ 단, 명년 음 사월 초 파일 까지만 영가전 영가봉안 법요만을 전담하셔야 합니다
반야암운영회부산사무소
전화 : 051)782-0033

---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

**사 찰 안 내**
·위 치 : 의정부
·법 당 : 20평
·요 사 : 30평
·부 지 : 790평
·가 액 : 6억 4천
※ 신세좋고 계곡있으며 도심 가까운 일급 사찰 도량임
·위 치 : 전남 완도
·법 당 : 34평(전세)
·요 사 : 50평
·부 지 : 500평
·가 액 : 3천 5백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위 치 : 성남 분당
·부 지 : 920평
·차량 진입가
·도심 근접하며 조용한 일급 사찰 도량 임
·가 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승마공원입구
• 부지 : 1,300평
• 건평 : 3동, 25평, 52평, 13평
• 가액 : 4억 3천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좋음. 강남에서 1시간 거리
031)533-2420
011)9653-0546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 대지 : 2,500평 (종교용지 및 임야)
• 시설 : 대웅전 28평(목조, 5포, 9포, 금안청필)
요사 합계 70평(3동), 산신각, 종각
• 특징 : 70년된 전통사찰, 사찰위치 최고, 주차시설 다량 확보, 법당 인등 1,000개 이상
• 가액 : 6억 5,000만원 (장난 전화 일체 사절)
011)9318-3230

---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소재(청평)
● 부지 : 약 200평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특징 : 도심사찰로 서울에서 40분거리 있으며 스님 심정관계로 급히 양도코저 함
● 위치 : 충남 괴산군 소재
● 부지 : 약 700평(종교부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징 : 영산철보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증통법당내에 보물급 부처님 모시고 있음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전국에 소재한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

**달마도를 무료로 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소승이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가지 발원을 세우고 달마대시도를 하루에 10점씩 그려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전에 삼배올리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이생에서 헛은 아름다운 인연이 다음생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달마도를 원하시는 분은 우표(170원) 한장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소승이 기도증 정성껏 그린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내실곳 우 618-230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34의 1번지
수도암 정암 스님
전화 : 051)972-5687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 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창고겸 화장실 7평
답사 후 가격절충
011)455-6198

---

**사찰 암자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대지 : 250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각, 약사여래분상
• 요사 : 3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자세한 문의
016)9788-3144
033)378-3144

---

**포교당 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 대지 : 300평, 자연석간수 뒤가 소나무산
• 건평 : 30평, 창고
• 가액 : 8500만원
042)624-5712
011)209-3622

---

**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 가액 : 5500만원
• 건평 : 27평
• 대지 : 192평
043)544-3861
011)572-3379

---

**사찰부지안내**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차량진입(대전에서 25분)
• 경관수려(30년생 수목 울창)
• 7만평
• 가액(평당 1만원)
017)405-1554

---

**사찰 안내**
•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섬)
• 건평 : 40평, 인법당 15평 큰방 3개, 부엌
• 특징 : 세없음, 비품재 약간
061)553-1961

---

**사찰 안내**
• 위치 : 워커힐 광나루 전철부근
• 평수 : 100평
• 보증금 : 1500만원
019)9108-0909
017)390-0909

---

**지리산 시조암 션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연못, 총 2583평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계곡 有)
• 대지 : 850평 • 임법당 : 35평
• 가액 : 4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 (시내 소재)
• 건물 3층 법당(46평)
• 기존 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크기 3자), 문수 원불 52불, 관세음 보살 원불 30불, 대형 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 주방포함
• 가액 : 15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가액 절충가능)
053)565-0430/016)875-0934

---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

**작품[선서화 도자기]전시장**
무변 해광스님의 친필작품인 금강경, 반야, 아미타경을 비롯 선구, 달마도등 선화와 도자기, 금강경, 반야, 달마상등을 전시 판매함 - 8월15일까지 -
부평 032)503-4883

---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3-11번지 원각사 동강병원에서 울산 예식장 중간 지점
• 건평 : 22평 • 법당 : 방 2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절충
052)245-5920
011)895-2919

---

**명당의 주인은 미래의 주인입니다**
▷ 금시 발복할 우리나라 제일의 명당이 주인을 찾습니다
0502)123-4936
地 觀

---

**사찰 안내**
• 위치 : 전라북도 지역 94년도 건물
• 대지 : 129평
• 건물 : 100평
• 청심한 스님이면 대환영
가격 절충 가능 1억 8천만원
063)291-9832
019)655-9832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 대지 : 35평 3층 건물 (2층)
방 2개 주방 1
• 가액 : 보증금 2,6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무
017)517-1690

---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40평, 산신탱화, 방 2개, 부엌 1개
•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1)405-2795

---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 중앙시장 옆건물 3층
• 평수 : 47평
• 보증금 포함 3,200만원 월 30만원
053)783-8367

---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인법당(20평)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1)495-7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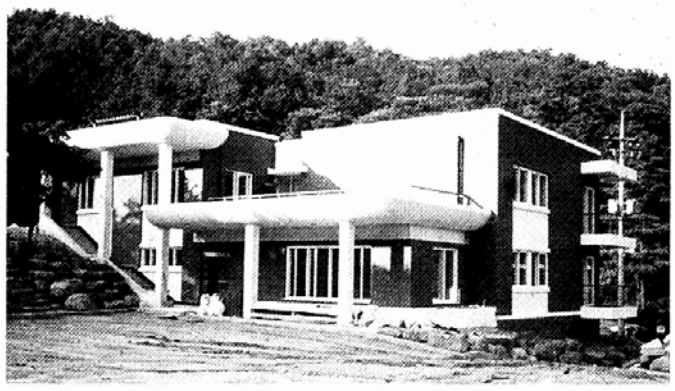
---

**포교당 안내**
• 위치 : 잠실 본동 신천역 10분 거리
• 평수 : 35평, 방 3개, 욕실, 주차장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5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 특징 :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02)2203-1118
016)9280-1178

재가불자 전문 수행·공부도량

# 광주 '유마정사' 16일 개원

◇한국불교연구원이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에 건립한 유마정사의 전경.재가불자들이 생활불교를 실천할수 있도록 아담하게 꾸며져 있으며 종교간 토론회·어린이 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경전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수련원 유마정사를 16일 개원한다.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연곡리 600여평의 부지에 230여 건평,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유마정사는 160여 명의 불자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수련도량이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신행단체들의 단기 수련장으로 적극 이용되는 것은 물론, 4인실 방 4개도 마련돼 주말 휴일동안 불자 가족들의 신심을 다지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유마정사는 97년 '생활불교의 터전을 만들자'는 한국불교연구원의 서원이 발단이 돼 조성된 기금으로 세워졌다. 이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불도를 완성한 유마거사에게서 불자의 인격적 모델을 찾으려 했던 고 이기영 박사의 이념을 따른 것이다.

정병조 이사장은 "재가불자들이 불법을 올바로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생활 불교의 참도량이 되도록 유마정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마정사는 연구원의 기존 행

**한국불교財 기금조성**

**2층규모 160명 수용**

**기도·연수·재일법회등**

**단기 수련장 활용 기대**

사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음력 초하루 기도법회나 초파일 성도재일 열반재일 우란분절에 정진법회를 열어 신행을 북돋우고 신행단체의 어린이 및 청소년 캠프나 연수 공간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연구원은 종교지도자들이 년 4회 유마정사에 모여 '이해와 화합'을 주제로 토론하는 세미나도 기획해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 종교화합의 이념적 근거도 제시할 계획.

총 8억 6천여 만 원에 이르는 건축비는 연구원 이사 13명과 1000여 일반회원들이 마련했다.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금조성 과정에서 일반회원들의 약정금이 100% 납입된 것으로 확인돼, 재가불자 수련 도량인 유마정사를 향한 연구원 안팎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 "통일신도시 불국토로 가꿀터"

파주사암련 보운스님



"통일신도시가 건설되는 파주에 불국토가 이루어지도록 지역스님들이 한마음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합'을 모토로 파주시 모든 사암들이 한 종단 한 사찰의 대중처럼 화목한 가운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파주사암연합회 회장 보운스님(황용사 주지). 스님은 7월 26일 월운스님(남양주 봉선사 회주)을 비롯하여 지역스님 30여명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한 파주시 중앙포교원 황용사에 파주 사암련 현판식 및 사무실 개원행사를 가졌다.

이날 보운스님은 "황용사에 사암련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지역불교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파주불교계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포교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피력했다.

**어린이집·교양대 추진**

**불우 중학생 급식비 후원**



◇7월 26일 거행된 파주사암련 사무실 현판식.

이를 위해 스님은 파주 중앙포교원 황용사에 새싹포교를 위한 어린이집, 어린이 교육을 위한 불교학교,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관내 30여개 사암으로 구성된 파주 사암련은 매월 음력 10일, 각 사암을 순례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또 파주 사암련 산하 경승단과 친목모임인 청룩회를 양대 축으로 든든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 사암련은 매달 30여명의 가정이 불우한 중학생들에게 급식비 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운스님은 "지역사찰이 100여개나 되지만 사암연합회 활동을 하지 않는 군소종단 사찰이 70여개에 이른다"며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암연합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종단협의회 산하에 전국사암연합회 본부를 결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원우기자

# 美 LA 태고사 대웅전 상량

무량스님 7년째 불사…내년 봄 완공 예정



◇태고사대웅전 상량식 장면. (사진제공=이근찬씨)

미국에 한국 전통양식의 사찰이 들어선다.

미국 캘리포니아 테하차피에 위치한 태고사(주지 무량)는 7월 22일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상량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의 1부 상량의식은 혜안스님(조계종 재무국장)의 집전으로 봉행되었으며, 주지 무량스님이 대들보안에 경전과 염주 등을 넣어 봉하고, 도편수 이춘식 씨의 지휘로 대들보가 올려졌다.

방송인 이근찬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상량법회는 증명법사로 초청된 성덕스님(동화사주지)이 상량문을 봉독하고 법문했으며, 주지 무량스님의 초대말씀, 이원익 거사('태고사를 돕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특히 덕현스님의 축하단소 연주(영산회상)가 법회식장을 장엄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달마젠센타 주지 무상스님, LA평화사주지 정산스님, 전 LA포교사단장 정정달법사 등 LA한국불교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인인 무량스님은 명문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의 제자로 출가, 한국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정진하다 미국으로 귀국, LA달마젠센타 주지 등을 역임하고 94년부터 테하차피 산록에 태고사(마운틴 스피릿 센타)를 건립 중에 있다.

7년째 불사중인 태고사는 대웅전을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에 낙성하고 선방과 기숙사 등도 연이어 건립할 계획이어서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태고사 연락처=1+(661)822-7776, (661)334-7204.

김재경 기자

## 백담사·건봉사서 통일염원 염불

6~8일 염불만일회 결사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1만번씩 염송하며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염불만일회가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내설악 백담사와 고성군 건봉사에서 열린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 주관으로 만해축전 기간에 맞춰 거행되는 염불만일결사에서는 염불법회를 비롯한 염불세미나, 염불대동제 등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첫째날과 둘째날에는 백담사에서 만해축전 행사에도 참여하고,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염불만일 결사 근본도량인 건봉사와 등공대를 참배한다.

특히 이번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사 조실 설산 스님이 불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주제로 설법하며, 중요무형문화재 27호인 이애주 서울대 교수는 염불신앙의 정신을 춤으로 승화한 아미타춤을 선보인다. (02)732-1206 김재경 기자

## 전북 종무원장 취임식

향산스님 "사회 밝히는 보살행"




제14대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취임식이 7월 20일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 김제 혜봉사 주지 담파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사진)

전북종무원장에 취임한 향산스님(전주 보문사 주지)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의 침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민중속의 대승불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 삼국유사 역사향기 꽃피는 인각사

제1회 일연 문화제 28일까지

백일장·세미나 등 다채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인각사(주지 상인)에서 '제1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가 28일까지 열린다.

이 문화제에서는 7월 14일 청소년들에게 삼국유사와 일연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학생백일장을 시작으로 8월24일은 동국대 정병조 교수와 해주 스님, 고려대 최광식 교수 등 교수 7명이 발제하는 '삼국유사의 역사적 가치와 일연스님의 사상과 생애'에 관한 학술 세미나, 25일 민요경창, 시 낭송회, 사물놀이 등이, 26일 일연스님 진영 봉안 및 추모다례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인각사는 일연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를 앞으로 군위군과 공동 주관, 지역문화제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군위군은 천년고찰인 인각사를 옛 모습으로 복원시켜 새로운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해 가기로 했다. (054)383-1161. 김재경 기자

## 장병 6천명에 수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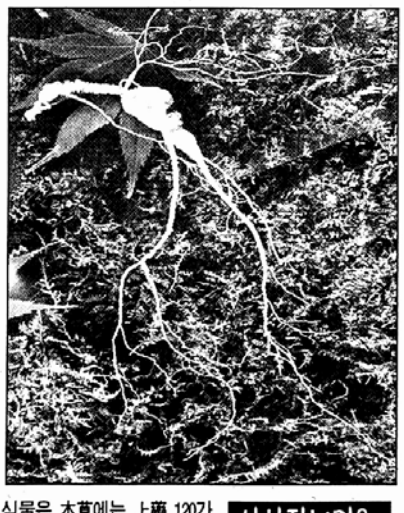
19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충북불교문화회관(관장 박호표)과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만호)는 공동으로 19일 오전 10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법사 최재필)에서 정일(선학원 이사장) 큰스님 초청 군장병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보광사 동학사를 비롯한 충청지역 스님들과 군승 30명, 재가법사 20명, 훈련장병 불자 6,000명, 보광사합창단, 군악대 등이 참석하는 이날 대법회는 정일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 개도 및 참회, 연비, 법어, 계첩수여, 공양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043)276-6812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즈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판매가격표

| 스타일 | 구분 | 판매가 |
|---|---|---|
| 춘추복 | 저고리 바지,조끼 | 남·여 150.000 |
| 춘추복 | 두루막 | 남·여 130.000 |
| 하복 | 저고리 바지,조끼 | 남·여 150.000 |
| 하복 | 두루막 | 남·여 130.000 |
| 장 삼 | | 조계종 200.000 |
| 장 삼 | | 태고종 200.000 |
| 손가방 | | 大 28.000 |
| 손가방 | | 小 23.000 |
| 바 랑 | | 30.000 |

※ 사이즈별로 디잉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를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몬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 양초 동자승 만드는 어르신들

## 교계 27개 노인복지시설 10월 연꽃마을 '작품전' 출품 준비로 바쁜나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마포경로의원과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소에서는 20여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양초로 동자승 만들기 삼매에 빠져있다.

지금까지 30여 점의 동자승 양초를 만들어 온 할머니들은 오는 9월말까지 108점의 동자승 양초를 제작해 세로 1.6미터 가로 1미터 크기의 대형 불상 형상의 틀에 봉안하는 것으로 작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작품은 (사)연꽃마을(대표이상 각현)이 10월 7~28일 개최하는 '노인 작품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주간보호소에서 10여 일 남짓 양초를 조물거리며 동자승을 만들고 있는 87살의 박막동 할머니는 "동자승을 만들다 보니 젊은 시절 사찰을 찾았을 때가 기억난다"며 "이제는 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곳에 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동자승 만들기에서 특히 머리 부분을 잘 만들기로 이름나 있다.

주간보호소는 박 할머니를 비롯해 동자승 양초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의 공방으로 탈바꿈했다. 또 어디서 들었는지 할머니들이 만든 동자승 양초를 구경하러 이 곳을 찾아오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마포경로의원 시설장 공인화 씨는 "노인들은 손동작을 반복하는 제작 과정에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해 자긍심도 키울 수 있다"며 "마포경로의원과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동자승 제작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노인복지시설의 열기는 전국 27개 불교계 복지시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평택서신경로당 할아버지들은 짚으로 망태나 뭣방석 등을 척척 만들어 내고 있고, 안성재가노인센터의 할머니들은 뜨개질 삼매에 들었다. 청주광명의원, 광주남구복지관, 인천동구경로의원 대구동구의료원 등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지공예, 죽공예, 매듭공예, 서예에 푹 빠져 있다. 작품을 만드는 노인들의 창작 열기가 가득한 것.



◇양초를 주물러 동자승을 만들고 있는 마포경로의원 할머니들.

노인들의 작품 중에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및 인천동구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들이 종이접이를 이용해 만들고 있는 호수공원과 사찰 모양의 작품, 모자이크로 연꽃마을 로고를 표현한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 노인들의 작품과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대형 작품들도 있다.

노인작품전시회를 기획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전시회는 노인들에게 참여의 기쁨을 제공하고 숨을 기량을 발굴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가장 생산적인 복지"라며 "노인 작품 지도는 물론 전시회 관련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 노인작품전시회'는 10월 7~10일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13~15일 안양 문화예술회관, 19~20일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26~2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각각 순회 개최돼 노인들의 솜씨를 선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즐거운 물놀이"

### 상락원 여름캠프 · 장애아 70명 동참

상락원 장애아동요양시설(원장 탄호)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12개울'에서 지난 7월 25~26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 7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캠프(사진)를 실시했다.

26사단 육군휴양소에서 치러진 이번 '튼튼한 여름나기' 캠프에는 동두천 소년소녀가장 자원봉사단체 '참빛'(회장 정철종) 회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가해 서울 소재 복지시설과 경기도 소재 자원봉사단체의 상호협력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장애아동의 의료, 식사, 숙박 등의 문제로 일일행사로 치러지다 올해 처음 1박2일로 진행된 상락원 여름캠프는 '참빛'과 육군 카츄샤 장병들을 비롯해 고대 의과대학 학생 봉사팀, 군부대 장병, 상락원 결연 후원자들과 장애아동들이 1대 1로 물놀이, 캠프파이어 등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오종욱 기자

## 청년단체들 '8·15 통일행사'

### 대불청 · 대불련등 통일순례-대화마당 준비

교계의 청년단체들이 8 · 15를 맞아 다양한 통일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청년정토회 등 불교 청년단체들은 15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리는 '6 · 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 공동 행사'의 일환으로 통일순례,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1천일 정진'을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토회는 (사)좋은벗들에서 매주 금요일 열고 있는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에 참여하며 통일에 대한 발원을 하고 있다.

대불련은 통일순례단을 구성, 11일부터 5박6일간 대구에서 서울 조계사까지 통일을 발원하는 순례를 한다. 또 순례단은 순례 지역 청년회와 공동으로 남북통일기원법회 및 통일캠페인도 벌인다. 이외에도 대불청 통일추진위원회는 21~22일 수원에서 철원의 월정리역과 노동당사까지 순례하는 통일기원 행사를 가졌다.

김주일기자

## 부산불교계 '늘푸른 세상' 발족

### 복지 · 인권 · 환경 공동체 · 문화교육원도 곧 개원

불교철학과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꾸기 위해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공동체 '늘 푸른 세상'이 이달 하순 발족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부산 북구 학장동 반도보라 아파트 내 상가에 60여 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예공방 시설을 준비 중인 공동체 '늘 푸른 세상'은 교육청 인가를 받아 늘푸른문화교육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NGO부설 교육원으로 등록된 늘푸른문화교육원에서는 도예교실, 그림교실, 영어교실, 생태 · 문화 기행 등을 마련하고 지역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철학에 대한 교육을 펼치게 된다. 수강료는 봉사활동을 한 확인서가 있을 경우 할인되며, 봉사 시간이 많을 경우 전액 무료.

늘 푸른 세상 준비위원회 김영 간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가 바로 주어지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늘푸른 세상이 타 NGO와의 연계를 통해 부산지역 NGO 종합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늘푸른문화교육원의 교육을 마치면 관광가이드 자격 시험 응시, 컴퓨터 자격시험 응시를 유도, 실질적인 창업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를 비롯해 김도근 동명정보대학 기획홍보실장 등 실무자들은 10일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늘 푸른 세상 대표자와 주요 책임자 인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 日 입정교성회원 방한

### 독립기념관 · 조계사 참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이는 가운데 일본의 한 재가불교단체 회원들이 10년째 한국의 독립기념관 등을 찾아 과거 일본의 행적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입정교성회 시즈오카현 지부 한 소속의 학생 등 36명은 7월 21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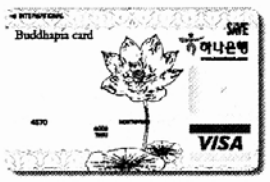
이들은 이날 독립기념관 내 겨레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사 왜곡 특별기획전'을 관람한 뒤 기념관에 성금 2만엔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조계사를 참배한 후 인근 보성고 터에서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숨진 한국인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다.

방문단원들을 인솔한 이와카베 히로시(岩壁宏至) 교류단장은 "불자의 시각에서 역사를 사실대로 보고 배우며 한 · 일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0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최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부다피아 하나카드' 나왔다

### 本社-하나은행 제휴 · 불교복지 기금 적립




본사가 하나은행과 제휴,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인 '부다피아 하나카드'(사진)를 이달 1일부터 발급한다.

부다피아 하나카드는 사용시 보시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보시금은 소쩍새마을, 등 불교 복지단체와 군법당, 결식아동 등을 위한 법보시 기금으로 쓰여진다. 보시금은 현금서비스를 포함 6개월 이내에 5만원 이상 사용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의 기금이 적립된다.

또한 부다피아 하나카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3개월 할부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S-OIL 주유시 리터당 3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주유 할인 서비스' ▲휴일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뺑소니안심보험 등의 '무료보험 서비스' ▲카드 소지자의 경우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연이율 12%(변동가능)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스피드카드론'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신청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스님의 경우는 법인 의료보험증 소지했거나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이 인정한 스님에 한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02)6678-1115~6 한명우 기자

## 청소년 명상-교육 프로 '보급'

### 불교상담개발원 · 입시생 · 부모에 도움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청소년과 고3생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에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수식관 명상을 이용한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중학생용)'와 '수험생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학부모용)' 두 가지.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는 불교 수행법 중의 하나인 수식관 명상을 학습법에 접목시킨 것으로, 단순히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심리상태와 학습습관 점검, 학습부진 원인파악, 대책 탐구, 실천, 평가 등 모두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모든 과정을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고3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중강연 형식이 아닌 부모의 수행과 기도가 자녀들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시기도와 수행,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화법, 어머니가 하는 입시상담, 수험생을 위한 한방요법 등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부모의 신행생활 자체가 입시생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 외에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달초부터 사찰별로 프로그램 지원신청을 받아 사찰 측과 일정을 합의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공부방법 배우기'는 매주 토요일 한 차례식 10회에 걸쳐 12명을 넘지 않는 소그룹 형태로 운영한다. 또 '수험생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은 입시기도 입재기간인 이달 초부터 한 주에 한 차례씩 5회에 걸쳐 이뤄진다. (02)737-8803 한명우 기자

## 도와주세요

### 백혈병 앓는 주부불자



백혈병을 앓고 있는 독실한 불자 최유자(26 · 사진) 씨가 골수이식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두 자녀의 엄마이기도 한 최 씨는 넷째 언니와 골수조직이 일치한 것으로 판명돼 소명의 길을 찾았으나, 3~4천 만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

더욱이 운전으로 생계를 도맡았던 남편 김영수(33) 씨가 최근 언어장애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출당해, 최 씨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망막하다. 현재 최 씨 부부는 어린 두 자녀를 부산 친척집에 남겨둔 채, 서울 이화여대 부설 목동병원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도움을 주실 분은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오종욱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 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 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槩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네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200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두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백과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스님 좋고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 카드로 산다!

#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 개시

부다피아카드는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사용 시 쌓이는 보시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됩니다.




※부다피아는 buddhapia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붓다 너 나(佛陀波羅 - 불타피아)가 하나라는 의미로 만든 상징어 입니다.

##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재물보시!
## 부다피아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1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2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쩍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 3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기념 선물증정" (선착순 1만명)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제작한 「열반의 미소를 찾아 천년의 길을 기다」 CD-ROM

- 신속1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3개월 할부시 수수료 면제
- 신속2 주유할인서비스 – S-OIL 주유시 리터당 30원 환급(1회당 100,000원 / 1일 2회 한도)
- 신속3 무료보험서비스 – 휴일상해보험 –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회원님께 사용일로 부터 1년간 휴일(토요일 포함)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시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전액, 비보험수가의 50%를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
  해외여행자보험 – 해외 출발 전 하나은행 Help Desk (전화 : 전국공통 1588-1155)에 요청시 여행중에 발생한 질병, 상해, 도난 등을 1천만원까지 보상 (카드 발급시점부터 1년)
  항공상해보험 – 하나 부다피아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면 불의의 항공사고시 개인 1억,가족회원 6,600만원 까지 보상
  뺑소니안심보험 – 국내에서 자가용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태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1년 이내 사망, 6개월이내 신체의 일부분을 잃거나 기능을 영구 상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까지 보상
- 신속4 롯데월드 무료입장서비스 – 카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카드 소지자만 가능)
- 신속5 스피드카드론 – 발급 6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내 사용실적 30만원(현금서비스 제외) 이상자 중 하나은행에서 정한 기준해당자에 대해서 연이율 12%(변동가능)로 대출한도 부여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 02)6678-1115~6 * 카드사업에 관심있는 분의 동참을 바랍니다.(50대 불자님 환영)